

GCC ΔR

2019

GYEONGGI CREATION CENTER

ΔRTIST-IN-RESIDENCE 2019 경기창작센터

GCC
ΔR

2019

GYEONGGI CREATION CENTER

ΔRTIST-IN-RESIDENCE 2019 경기창작센터

CONTENTS

목차

006 기관 소개 INTRODUCTION

창작작가

CREATIVE ARTISTS

010	김미라 Mira Kim	048	성필하 Pilha Seong
016	김미래 Mirae Kim	052	안상훈 Sanghoon Ahn
020	김미영 Miyoung Kim	056	이병수 Byungsu Lee
024	류정민 Jungmin Ryu	062	이여운 Yuwoon Lee
028	박미라 Mira Park	068	이웅철 Woongcheol Lee
032	박신용 Sinyong Park	072	이재욱 Jaek Lee
036	박진희 Jinhe Park	076	전혜주 Hyeju Jun
040	서혜민 Hyemin Seo	082	정재희 Jaehee Jung
044	서혜순 Hyesoon Seo	086	조민아 Minah Cho
		090	조이경 Yikyong Cho

기획작가

PROJECT ARTISTS

098	구소영 Soyoung Goo	126	이현지 Hyunji Lee
102	김용현 Yonghyun Kim	130	전희경 Heekyoung Jeon
106	김은솔 Eunsol Kim	134	정민정 Minjung Jung
110	김재유 Jaeyoo Kim	138	정정호 Jungho Jung
114	김채린 Chaelin Kim		
118	송성진 Sungjin Song		
122	이언정 Unjung Lee		

국제 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프로그램

GCC RESIDENCY PROGRAMS

경기창작센터 교육프로그램

GCC LEARNING PROGRAM

144	Andrita Yuniza Orbandi
148	Maria Ivanova
152	Ying-Ting Chen
159	경기창작페스티벌 GCC Creation Festival
192	워크숍 및 심포지엄 Workshops & Symposium
196	문화탐방 Tour Programs
198	전시프로그램 Exhibitions
219	아트프로젝트 ART Projects
222	해외 예술가 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227	상상풍당 예술니눔 : 창의예술니눔 Sangsang Pondang Art Sharing : Creative Art Sharing
234	작가약력 Artist CVs

경기창작센터 소개

Gyeonggi Creation Center Introduction



경기창작센터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공공 예술창작 공간으로서 입주 작가들의 창작과 영감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경기문화재단의 일원인 경기 창작센터는 작가들의 예술적 창작을 육성하고 촉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아트 프로젝트, 문화탐방, 어드바이징, 워크숍 및 심포지움을 통해 작가들이 그들의 예술에 대한 비전을 실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을 해외 협력 기관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 협력기관 으로는 대만의 관두미술관, 피어-투, 싱가포르의 그레이 프로젝트, 오스트리아의 크렘스, 인도네시아의 아르코렘스, 그리고 러시아의 원자보드 현대미술 센터가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을 통해 센터는 입주 작가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고, 다른 관객들과 연결되고 입주 작가들의 미래를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는 입주 작가와 예술의 육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과 플랫폼의 기능을 한다.

Gyeonggi Creation Center, where creativity and inspiration stay alive, is the largest and oldest public artist residence facility in Korea. As par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t gears its efforts to foster and unleash artistic creation among artists. Through funding schemes of art project and cultural tours, professional advice, workshops and symposiums, the center encourages its artists to realize their visions on art. It also runs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with its overseas partners, such as Kuandu Museum of Fine Art and Pier-2 in Taiwan, Grey projects in Singapore, Krems in Austria, ARCOLABS in Indonesia and Winzavod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Russia, in order to offer diverse experiences on arts, to access to different audiences and to envision the artists' future. The center not only plays a pivotal role but becomes a platform to nurture the artists and arts.

레지던시 입주작가 형태

Residency Types

창작레지던시 Creative Artist-in-Residence

국내외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지원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제공
Providing an art studio and residency programs supporting art practice of artists

기획레지던시 Project Artist-in-Residence

입주작가의 개별 창작활동 지원과 더불어 경기창작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예술 결합형 프로젝트 및 지역 협력 사업과 관련한 아이템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수행
In addition to support art practice of artists, also in development are learning programs of Gyeonggi Creation Center, combined art projects, and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초청레지던시 Guest Artist-in-Residence

국내외 영향력 있는 예술가 및 연구자를 초청하여 창작, 연구 지원 및 입주작가를 위한 멘토 역할을 부여
Inviting distinguished artists and researchers as mentors for creativity and research

기관협력레지던시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Artist-in-Residence

경기창작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서 선발하며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
Artists selected from organizations cooperated with Gyeonggi Creation Center, providing an art studio and residency programs for artists

CREATIVE

ARTISTS

digital physics
다채널비디오 설치, 2018



The sense and its double 8min
싱글채널비디오, 2018

어느 날 모든 것이 사라졌다: 불확실한 (감각의)세계를 휘젓기

김미정 아라코미술관 큐레이터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누르고 유명하다는 빵집을 찾아 유명하다는 빵을 샀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며 SNS에서 보고 읽은 것과는 맛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다. 문득 '느꼈다'는 판단의 기준이 정해져 있음을 깨달았다. 사전에 접한 정보의 내용과 나의 경험 사이의 괴리를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옳은지를 검열하고 있던 것이다.

글의 서두를 영동하게 시작했지만 사실 이 깨달음은 새로운 것도, 놀라울 것도 없으며 그렇기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2020년을 맞이한 현대인이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이미지에서 얻은 정보로 세계를 살아간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형태는 수용자에게 습득이 용이한 형태로 몸을 바꾸어 나간다.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동영상(무빙 이미지)으로의 변화처럼 말이다. 특히 최근 동영상으로 제작된 정보에 접속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들은 이제 블로그보다 브이로그(video log)를 검색창에 상위 랭크하기 시작했다. 문자언어를 통해 상상할 수 있던 기회가 영상 이미지로 발 빠르게 치환되면서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 스크린에 띄워진다.

One day, Everything is Gone : Stirring Uncertain World (of Senses).

Kim, Mi-jeong curator

One takes out his smartphone, searches for a famous bakery on App and purchases a loaf of bread. One realizes that the taste of the bread is not like that stated in the App. Suddenly one is aware that the standard of taste was already fixed. Even though one knew that there would be differences between information offered by the App and his actual experience, one still searches for the validity of the information on App. The lead of this article seems to be off the point. Frankly, this awareness is neither new nor surprising. Thus, it is not profoundly personal. It is certain that people in 2020 live off digital devices and information from digital images. The shapes of information change into features, such as from text to images and moving images. So, receivers can easily consume the information. Recently, as people access to information made by moving images more and more, the portals, Naver or Daum, post video logs on the top, rather than blogs. As an opportunity to imagine through text converts into that of visual images, one can optically find his interests by few key words.

변화된 경험과 그 시각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레 벤야민(Walter Benjamin)을 떠올리게 한다. 벤야민은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적 공간이 되어버린 (대)도시를 시각하는 방식이 달라짐과 동시에 충격기술과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경험과 체감의 변형된 의미를 강조한다. 더불어 인간 시각을 역사적으로 조직되는 매체와 함께 변화되는 것으로 전제하며 근대의 산물인 '충격 이미지'와 함께 오늘날까지 미디어의 형식과 매체를 바꾸어가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매체에 따라 시각이 변화한다는 문장은 재생되는 정보를 마치 나의 경험처럼 체화시키는 작금의 상태에 적합한 분석이며, 더 나아가 작금의 경험은 카메라 혹은 스마트폰으로 기록하고,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누군가에게 공개해야만 비로소 진정성과 등가로 성립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의 양은 팽창한다. 데이터화된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경험을 쌓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되면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과 스크린을 통한 간접 경험을 부지런히 혼동한다. 그렇게 스크린의 안과 밖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김미라 작가는 영상 매체를 사용하면서도 스크린을 통해 감각을 습득하는 이 '당연한' 변화와 그 확신에 설불리 다가가기를 망설이는 듯 보인다. 여러 국가와 지역의 다층적인 문화와 장소를 경험한 작가의 정체성과 기억은 혼종적일 것이다. 한국에서 뉴욕 풍경의 조각을 발견하고, 뉴욕에서 일본의 흔적을 떠올리며 '~같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지도 모른다. 사실 초연결 시대의 영상매체가 적극적으로 영상 이미지를 통한 감각의 실재에 관여하거나 대신하고, 정보의 팽창과 감각의 둔화가 비례하면서 '~같다'는 특별한 고려 없이 사용되는 상용구가 되었다.

이에 김미라는 변화된 '감각(sense)'에 대한 탐구와 질문, 실험을 담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 글은 감각을 다루는 작가의 두 작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The Sense And Its Double>(2018)은 '나는 감각을 통해 세계와 소통한다'는 내레이션을 시작되는 작품이다. 간척 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바다, 즉 갯벌을 걸으며 작가는 상실된 바다를 떠올렸다. 여기서 갯벌은 안개로, 통통 튀어 오르는 지점토의 형상은 태양으로, 모래의 결은 파도로 변환된다. 이들은 단일 사물이 아닌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즉 '~같은' 이미지로 은유된다. 재생되는 대상의 상관관계를 결부시키는 것은 대상의 사회적 기호가 아닌 이미지 자체의 시각적 연계성이거나 혹은 그 대상을 감각했던 기억의 서사이다. 그래서 <The Sense And Its Double>는 마치 무의식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지점토로 만들어진 정육면체는 이 세계의 주체를 대변한다. 디지털 콜라주의 레이어나 아래 변형되어 새로운 신체를 일시적으로 가졌다가 지워지고, 손으로 짓이겨져 끈적한 소리를 내는 지점토와 스크린을 향해 인사하는 인물의 레이어나 겹치는 장면은 영상의 화자(아마 작가일 것이라 추측한다)가 현실과 꿈(가상)의 관계와 통제받지 않는 몸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부분과 연결된다. 투명해진 신체를 즐기며 여러 옷을 갈아 끼우지만, "세계가 사라진 것일까, 내가 사라진 것일까", "그런데 과연 내가 존재하긴 했던 것일까"라는 회의적인 문장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처럼 정의되는 세계 안에서 신체에 지각되는 한계와 의심, 혼란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심과 함께 분절된 컷들의 등장은 <When you fold my fingers>(2019)에도 이어진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종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종이의 역사나 역할을 분석하기보다 종이라는 매체의 물성을 실험하는데 더 가깝다. 영상은 "이것은 중요하다/아주 중요하다"라는, 결국 같은 뜻을 가진 몇 개의 문장이 그 의미의 강조가 무색하게 깨긋이 지워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장면에는 앞서 <The Sense And Its Double>처럼, 어떤 사물의 특성을 떠올리게 하는 사운드와 그 사물을 은유하는 형태가 등장하는데, 종이를 만든 새와 잡지의 광고사진으로 만든 콜라주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포장지에 박힌 반짝이는 무늬가 물방울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런데 <The Sense And Its Double>과 다른 점이 있다면 디지털과 디지털이 아닌 이미지 사이를 흐드는 제스처가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클릭하듯 움직이면 몇 개의 레이어나 형성되지만 이들은 콜라주 되

The changes of empirical demeanors and perception remind one of Walter Benjamin's assertion. Benjamin emphasizes the alterations of the awareness of a (mega)city as the space of Phantasmagoria and the modified meanings of experience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impact technology and mass media. Further, as Benjamin defines a human sense as an entity that shifts along with the mediums historically constructed, this and the product of a recent era, an impact image, are reinforced as changing the forms and mediums of media. The statement, that perception shifts according to mediums, is a valid analysi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n offered information is accumulated as personal experiences. Moreover, current experiences are recorded with a camera or a smartphone and offered to others through a digital platform like SNS. Then, people tend to obtain truth and equivalence. This is the way that a human being experiences the world. The quantity of information made by this tendency expands. As one can accumulate experiences by simply watching the data images, one gets confused between the experiences of his own and his vicariousness through screens. Like this, the inside and outside of a screen influence each other consistently.

The artist, Mira Kim, seems to be reluctant to approach to the imminent changes and beliefs obtained from senses through a screen as using visual mediums. To the artist, who has extensive experiences on multi layered culture and places, her identity and memories are probably hybrids. She finds the fragments of New York in Korea and the touches of Japan in New York. Perhaps, she often describes this phenomenon as the expression, "look alike." The term, "look alike," becomes a cliché without the consideration of a proper use when the visual medium of a super interconnected society actively engages in or replace the reality of sense through optical images, and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and the dullness of sense become propor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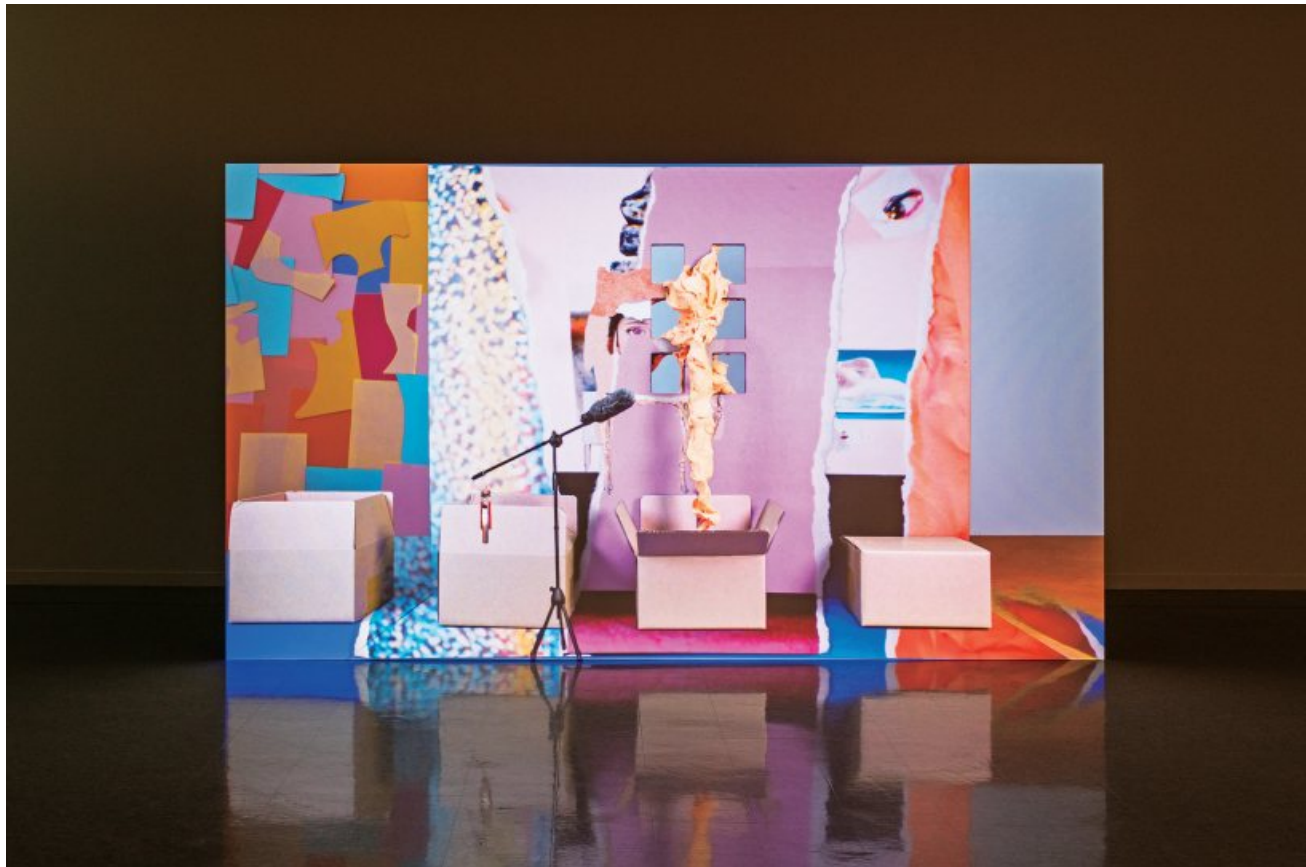
The artist, Mira Kim, continues to work on experiments that retain explorations, questions and tests that hold the changed senses. In two of her works, The Sense and Its Double and When You Fold My fingers, the artist emphasizes the altered senses. Her first work, The Sense and Its Double(2018), starts with a narration, "I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rough senses." As the artist walks on a sea shore, she imagines a lost sea, the lost sea reclaimed as project. Here, a muddy shore becomes a haze, the shape of soft and sticky dough sun, and the grains of sand. They become a metaphor, "look alike," as they remind one of something other than one object. The clues to connect the relationships of recreated objects are not the societal signs of the objects but the visual relationships of the objects or the narration of memory that senses the object. So, the work, The Sense and Its Double, seems as if it realized the world of unconscious. Here, a cube represents the subject of this world. The scenes show an altered body under the layers of digital collage when it appears and disappears. Mashed clay creates a sticky sound and a human being bows towards the screen. These scenes link to the scene that a speaker in the screen(assuming that she is the artist) connects with the relationship among reality, dream and a story about an uncontrolled body. Even though one enjoyed a transparent body and changes various dresses, "does the world disappear or am I unnoticed? Then, did I use to exist?" The skeptical questions like these reveal limits, doubts and confusion sensed from a body in the world of "seemingly everything is possible." These doubts with ruptures reappear in the work, When You Fold My Fingers(2019). In this work, the artist puts a piece of paper as a main character. The artist tends to check up on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rather than analyzing the history or role of the paper. The scene starts with an erased scene of a few sentences



When you fold my fingers
반복재생 싱글채널비디오, 2019



When you fold my fingers
반복재생 싱글채널비디오, 2019



When you fold my fingers
반복재생 싱글채널비디오, 2019

다 다시 파편화되며, 찢겨져 노출된 그 막 뒤에는 크로마키 천 혹은 스톱 애니메이션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된 세트가 드러나 이곳이 '만들어진' 공간임을 인지하게 한다. 이는 포장지 위에 콜라주 되어 발랄하게 움직이는 사물들이 그저 인쇄된 포장지에 불과함을 밝히는 손이 등장해 종이새로 접어버리는 장면과도 연관된다. 영상을 구성하는 각 레이어들은 <The Sense Its Double>에서 지점토의 해체를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고 스스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 영상 속 세계가 가상도, 실재도 아닌 어떤 불안정한 경계에 놓여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시킨다.

두 작품은 모두 미디어 이미지가 대신하는 가공된 감각의 불확실성을 파헤친다. 주목할 지점은 작가 자신이 영상매체에 익숙한 창작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고 디지털과 실사 사이에 어설픔게 기워진 간극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여기서 '어설픔다'는 매끈하게 구현된 디지털 이미지의 그것이 아닌, 작가가 직접 제작한 오브제나 사진, 세트를 촬영한 장면이 영상 안에서 오히려 평면화되면서 발생하는 모호함을 일컫는다.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제작된 거친 이미지가 도리어 위태롭게 느껴지는 지금, 작가는 이러한 일종의 형식 실험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초실감적 체험이 구현하는 기술 이미지의 현전과 아날로그적 방식을 충돌시켜 무의식 내 존재하던 감각을 끌어낸다. 그래서 두 작품에서 느끼게 되는 혼란스러움은 그 이미지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실사와 가상공간 사이에 중첩된 이미지-레이어의 유약함 때문일 것이다. 데이터화된 세계는 오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듯 보이지만 손을 대는 대로 모양을 바꾸는 지점토의 물성처럼 이곳과 저곳의 인상과 기억을 빠르게 섞어버린다. 이는 다원성이 아닌, 마치 모래가 손에서 빠져나가듯 얼버무려지는 감각의 불투명함으로 번역된다. 작가는 이러한 지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이미지-레이어들을 활용하여, 스크린 안팎에서 상실되거나 대체되었던 기억의 조각을 환기하는 초현실적이고 공감각적 공간을 빚어낸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 안에서 보이는 것이 명확할수록, 그 두께가 견고하지 않으며 도리어 섬약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역설한다.

이 글의 제목은 <The Sense And Its Double>에 등장하는 내레이션과 <When you fold my fingers>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를 지워버리는 장면에서 차용한 것이다. 작품에서 '이것'은 무엇인지, 그 문장은 왜 지워져야 했는지를 쉬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문장은 사라져버렸다. 그 주어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면, 원하는 대로 어디든 접속할 수 있는 스크린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볼 수 없는 건 무엇일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김미라의 작업은 미디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당신에게 스스로의 감각을 돌아보기를 권한다. 때문에 <The Sense And Its Double>의 마지막 내레이션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그런데 나는 존재하긴 했던 것인가?"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that are same in meanings, the sentences stating "this is important/ very significant." In the connecting scene just like the work, The Sense and Its Double, a paper bird and a collage made with magazine's advertising pages move slowly, and twinkled patterns of a wrapping paper expand to water bubbles. But, the differences in the work, The Sense and Its Double, are that gestures in doubts between digital images and non-digital images reveal themselves in several scenes.

One can recognize that this space is made just as several layers are made upon mouse clicks, they become a collage and fragments and there is a Chromakey clothing behind an exposed curtain or a setting to tape a stop-animation. This relates to the scene that a hand appears and folds a paper bird, and the hand shows the objects made as a collage and actively moved on a wrapping paper and merely patterned wrapping papers. Just as each layer as the composition of the scene dismantles the clay over and over at the work, The Sense and Its Double, a world within a scene, which one believes his consumption and existence in it, emphasizes that it is laid on an unstable border, the border of ambiguity.

These two works reveal the uncertainty of manufactured senses coming from all media images. The points that her audiences should focus on are that the artist exposes gaps sloppily inserted between the digital and reality as her being reluctant to reveal herself as a creator. Here, being sloppy implies ambiguity resulting from two-dimensional visual images taken from self made objet, photos and settings. Nowadays, when rough images done by analog methods are stigmatized, the artist pulls out senses existing in subconscious as she collides technology images coming from transcended reality with analogue methodology. So, the disturbance from two works come from not the unfamiliarity of the images but the weakness of juxtaposed image-layer between reality and virtual space. It appears that *datafied* world recreates a perfect condition including five senses. Yet, the world mixes impression with the memories of this and that just like a clay mix. This is interpreted as ambiguity, rather than diversity. The artist is fully aware of this rupture. She creates an existential and spatially sensitive space that reminds of the pieces of memories lost and replaced in and out of the screen through her image-layers. As far as things surrounding human beings seem to be obvious, the depth is not firmed and ironically they are constructed fragile. In her works, she states "this." It is not easy to identify what "this" is and to understand why "this" clause disappears. But, "this" sentence is gone. If her audiences were unable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the subject, they should cogitate what they could not see or what could not be seen from her works. Her works suggest that her audiences who have strong bondages with media should look into their senses. As the artist insinuates in her work, one has to ask to oneself "have I existed?"

An Abstract of a Review by Kim, Mi-jeong, curator



몇 번째 파도
종이에 연필, 먹지 60 × 84cm, 2018



무한한 선택지
종이에 연필, 먹지 59.4 × 84cm, 2019

주름진 플랫랜드(Flatland)

안진국 미술비평

눈에 나뭇가지가 박힌 옆집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 돌무덤에 관한 이야기다.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다. 토끼 똥에 관한 이야기다. 씨앗 괴물에 관한 이야기다. 숲속에 서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 전부에 관한 이야기다. 어쩌면 이 모든 것 밖에 존재하는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김미래가 구축한 세계에는 페르마의 세계이다. 그의 드로잉 작업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선형적이지 않다. 마치 테드 창(Ted Chiang)의 단편소설 『네 인생의 이야기』(영화 <컨택트>(2017), 원제 <Arrival>의 원작)에서 외계인 헵타포드 사용하는 언어와도 같다. 김미래의 드로잉은 시작과 중간과 끝을 동시에 제시한다. 시선은 분산된다. 그의 드로잉 작업이 어떤 특정한 곳에 시선을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개의 조각 드로잉이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몇 번째 파도>(2018)나 <39개의 돌무덤과 108마리의 까마귀들>(2019), <삼질의 역사>(2019)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작가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본 것, 사건·사고 이미지, B급 영화, 자극적이고 때론 폭력적인 장면에서 영감을 얻고, 그것으로 나름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도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드라마를 조금만 봐도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전개될지 금방 안다”라는 말이다(작가와 인터뷰). 이것은 그가 이야기에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작가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드로잉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그는 시간의 전면화를 통해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혹은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구성한다.

김미래는 외부의 정보를 언어화할 수 없는 감정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느낌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작가에게 외부의 정보는 추상적으로 기억된다. 그로 인해 김미래의 ‘이야기’에는 정

A Wrinkled Flatland

Ahn, Jin-kook critic

It is a story about a girl living next door, the girl who has a stuck eye with a tree branch. It is a story about a crow, the story about a rabbit's poop, a seed monster and a man standing in the forest. It is a story about all of the above. Maybe it is a story about something existing beyond all.

The world that the artist, Mirae Kim, constructs is a world of Fermat. Her drawings have story lines, yet they are not linear. This seems to be a language that an alien, Heptapod, uses in Ted Chang's short novel, Story of Your Life. The drawing of the artist simultaneously offers the beginning, the middle and the end. One's sight is scattered. This is the reason why her audiences cannot focus on a certain point in her work. The works, What Number the Wave Is(2018), The 39 Stone Graves and 108 Crows(2019) and The History of Shovel(2019), are good examples, the works made by the combination of several pieces of drawings.

The artist gains inspirations from her experiences, sights, the images of incidents and accidents, B-movies and sensational, yet often violent scenes. She states that she loves to make her own stories with those. The reason why she loves dramas is that there are stories. Interestingly, she is aware of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as soon as she watches part of it. This manifests that she is simultaneously able to penetrate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story. This means that to her time is not a unit to pass by but an entity to coexist. In her work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xist at the same time. As she makes her time an entirety, the artist develops a story that a beginning and an end exist simultaneously.

보 값이 별로 없다. 이야기 영역 밖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정보(언어)가 아닌 추상적으로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야기의 선형성을 상실시키고, 시작과 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재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감상자가 김미래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요약하거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가의 이야기는 이야기가 창작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의 바깥(감정, 느낌, 추상성)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김미래는 새로운 형식의 확장된 형태의 드로잉을 제시한다. 마치 소설 『플랫랜드』(1884)에서 플랫랜드(2차원)에 사는 정사각형이 스페이스랜드(3차원)에서 온 구(球)의 도움으로 플랫랜드를 넘어섰듯이, 작가는 편평한 플랫랜드에 주름을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구축하려 한다. 바로 전면화했던 형태를 다면화하는 시도와 화면 안의 드로잉을 화면 밖으로 확장하는 시도이다. 최근 선보인 드로잉북 <모공·무덤>(2019)이나 여러 개의 조각 드로잉을 순차적으로 엮어서 슬라이드 환등기에 비추는 형식은 전자이고, 드로잉과 어우러진 설치 작업은 후자이다. 이 시도는 과거 작품의 변증법적 형식이라 더욱 주목된다. 그는 예전에 책 작업과 유사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서사적 작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드로잉과 설치를 결합한 작업을 2016년까지 줄곧 해왔다(<Welcom>[2016], <거리의 무법자>[2016], <검은산>[2015], <아구빠>[2012], <훈련소>[2012]). 김미래는 자신이 품고 있는 예민한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기 위해 0.5mm HB 샤프를 고집한다. 딱딱하면서도 진하지 않고 살짝 연하게 나오는 0.5mm HB 샤프가 지닌 미묘한 느낌이 자신이 느낀 예민한 감정을 세밀하게 드러내기에 좋은 재료였다고 말한다. 작가는 감정을 예민하게 다룬다. 그 감정은 플랫랜드와 현실을 넘나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그리도록 이끌고 있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She considers that information coming from an outside can be a non-verbal emotion. She expresses this with her feelings. So, the outer information is abstractly remembered. Therefore, the artist's story has no information value. It is a story beyond the boundary of story. The way that the artist abstractly accepts things from outsides lessens the linearity of the story and appears in the form of mixing the beginning and end,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is is the reason why her audiences cannot hear an abstract plot and a sentence in expression or her understandable story. From the beginning of her story, it becomes beyond her story(emotion, feeling and abstractedness)

Recently, the artist suggests a new expanded drawing form just as in a novel, Flatland, a two-dimensional square gets some help from a three-dimensional ball and gets over the two-dimensional limits. The artist attempts to create a new form of the world as she makes two-dimensional Flatland wrinkled. These are the trials to convert a two-dimension into a multi-dimension and to expand the drawing from the scene beyond the frame of that. The former is the format to project slides that sequentially arrange drawings from a recent drawing book, Pore: Gravel(2019) or several drawing pieces, and the later is an installation work as the mixture of drawings. This trial gets focused as the dialectic format of previous works. She did previously work on not only narrative works similar to a book but installations mixed with drawings till 2016, such as Welcome(2016), Outlaw on a Street(2016), A Black Mountain(2015), Baseball Bar(2012) and Boot Camp(2012). The artist, Mirae Kim, intentionally uses 0.5mm mechanical pencils to frankly express her sensitive emotions in her mind. Hard, yet slightly mild texture of 0.5mm HB carbon leads fit into expressing her sensitive emotions. She carefully deals with her emotions. These emotions cross back and forth between Flatland and reality and lead to the creation of a new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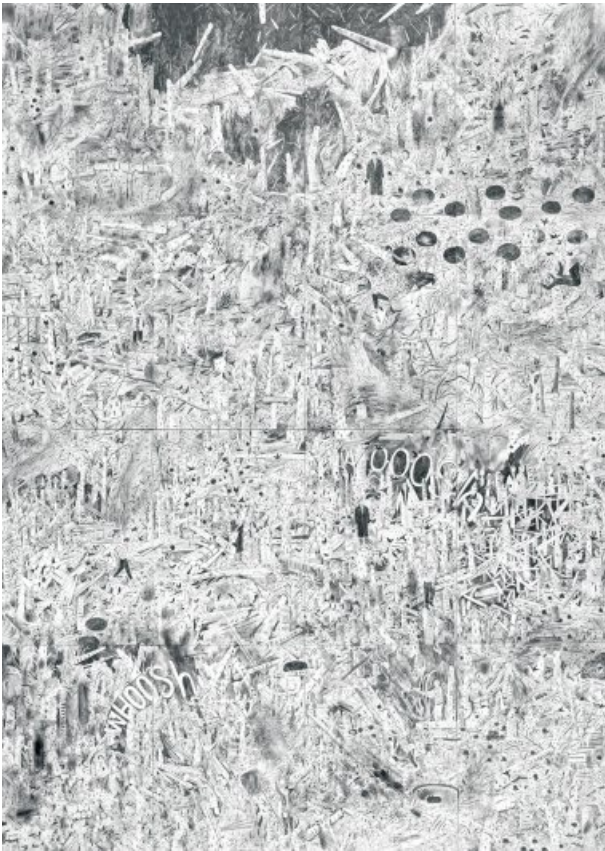
An Abstract of a Review by Ahn, Jin-kook, critic



서늘한 어둠아래 먼지가 별이 되고
종이에 연필, 먹지 59.4 × 84cm, 2020



39개의 돌무덤과 108마리의 까마귀들
종이에 연필, 먹지 120 × 126cm, 2019



Woosh Whoosh
종이에 연필, 먹지 118.3 × 84cm, 2019

19mins London, '푸른달은 시간을 먹는다' 시리즈
비닐 위에 프린트, 가변크기, 2019



시간의 작동법에 대한 단상

김연우 큐레이터

김미영은 주작업 매체인 사진에 실생활에서 수집한 오브제나 이미지, 영상 등을 더하여 감각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설치작업을 전개해 왔다. 최근 몇 년간의 작업에서는 특히 ‘시간’이라는 개념과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보인다. 2018년 아테네 포토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다보탑, 그 기억의 그림자>(2017)는 작고한 할머니의 손가방 안에서 발견한 몇 장의 사진들에서 시작한 작업이다. 롤랑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어릴 적 사진을 접하고 사진의 본질에 대해 깨달았듯, 기실 사진은 단순히 그 대상의 형태를 보여 준다는 것을 넘어서 사진 속 대상의 강한 존재성을 환기하고, ‘그것이-존재-했음’이라는 사실을 통해 시간을 재작동하게 한다. 작가는 당시 읽고 있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저서에서 영감을 받아 촬영한 사진 이미지들을 불멸의 시간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영상과 함께 선보이고,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들을 접고 포개어 탑의 형태로 구성했다. 이는 시간이라는 무형적 존재를 일상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간직하고자 하는 (불가능한) 시도로, 과거의 시간들은 다시 오랜 세월의 흐름을 간직하는 상징인 ‘탑’으로 쌓아져 촬영되었다.

About Time: How It Works / Functions

Kim, Yon-woo curator

Miyoung Kim has been developing works composed of sensual spaces as adding objects, images, and media collected from everyday life to her photographs. In her recent works, she continues to focus on the concept and operation of time. <Daboh Tower, the Memory's Shadow> (2017) shown at the Athens Photo Festival in 2018 was the work initiated by a few photographs found in her late grandmother's brief case. Just as Roland Barthes became aware of the essence of photography when he saw his mother's childhood photos, they not only showed the shapes of their objects but reminded of the strong existence of the objects. Through the existence in the past, the concept of time resumed its operation. As she gets strong impressions from works written by Marcel Proust, she throws a performance symbolizing invincible time with photo images. She piles up old photos and makes a tower. This is her seemingly impossible trial that she owns infeasible time through mundane and physical actions. It is portrayed as a symbolic tower which contains the compilation of time pas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설치전경



8mins New York, '푸른 달은 시간을 먹는다' 시리즈
비닐 위에 프린트, 가변크기, 2019



29mins Seoul, '푸른 달은 시간을 먹는다' 시리즈
비닐 위에 프린트, 가변크기, 2019

교향 레지던시 참여를 위해 머물렀던 낯선 도시 모스크바에서의 경험은 지나간 시간과 개인의 기억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보다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스크바는 관광지뿐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어렵지 않게 레닌과 같은 정치인의 기념동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광경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즈음 우연한 기회로 손에 넣은 오래된 관광 사진들에서 작가는 러시아라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작동되는 시간과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강한 정치적 통제를 실감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영감을 받아 과거의 상징물이 잔여하는 현재와, 현재의 시간에 발굴하는 과거를 나타낸 <Meeting in Time>(2019)은 현대판 신화를 상징하는 석고상 이미지에 오래된 사진을 콜라주하고, 작가가 직접 촬영한 일상 속 정치인 동상의 사진과 함께 설치한 작업이다. 함께 전시되는 영상 <그렇게 젖어두고 있었다>(2019)는 흠뻑 젖은 스펀지의 물이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점차 젖어가는 붉은 벽을 통해 개인의 시간 속에 잠식되어 있는 사회적 통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며, 사진과 영상 작업을 둘러싸는 삼각형 형태는 이들을 반복되는 역사의 시간 속에 가두어 두는 역할로 기능한다.

“2019 경기창작센터창작페스티벌”의 입주작가 기획전에서 선보인 신작<푸른 달은 시간을 먹는다>(2019)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작동하고 제도권 내에서 통제되는 방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탐구과정을 보여준다. 비닐 프린트된 도시의 풍경들은 목조 프레임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판에 부착되어 입체적인 형태로 전시되었다. 사진 속 푸른 달이 뒤덮은 도시의 풍경에서는 왜곡된 형태로 변형된 스타벅스의 로고가 곳곳에 스며 들어있는데, 이와 같은 스타벅스 로고의 등장에는 흥미로운 계산법이 뒤따른다. 작가는 작업의 배경이 되는 서울, 뉴욕, 런던 세 도시의 상대적인 경제수준과 생활물가, 그리고 커피 한 잔에 지정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에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최저임금을 비교하고자 시도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글로벌 커피브랜드 스타벅스의 대표 메뉴인 '아메리카노 한 잔'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이 요구되는지를 계산한 결과, 한잔의 가격에 대응하는 노동시간은 서울은 29분(4,100원), 뉴욕은 8분(약 2477원), 런던은 18분(약 3,735원)으로 환산된다. 개인의 시간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경제적 가치로 통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고찰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여기서 도시에 스며든 푸른 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개인들의 시간 통제에 대한 열망을 상징한다. 지난 작업에서 작가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보관하려는 아날로그적 시도를 보여준 바 있다. 이번에는 오래전 본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업로드했던 직접 촬영한 푸른 달의 이미지를 복기해 선보임으로써, 디지털 사회의 SNS 플랫폼에서 매일같이 작동되는 개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통제-기억을 저장하고, 꺼내어보는 행위-를 몸소 실천한다. 벽에 부착된 확대된 달의 이미지는 푸른 달로 대변되는 시간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전시장 내에 발현시키고 있는 듯하다. 작품 곳곳에 배치된 조그마한 유리병이나 헤어핀, 머리끈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생활용품들은 전시장의 비현실적인 풍경이 보다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며, 이러한 욕망이 실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스며 들어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The artist stayed in Moscow as an artist-in-exchange in 2019. Her experience there encouraged her to expand her concepts of time and personal memories to a societal realm. During her stay in Moscow, she happened to obtain old tourism photos and recognized déjà vu from the operation of time and strong censorship prevailed in the society. She creates an art work, <Meeting in Time> (2019), heavily influenced by the societal circumstances. This work symbolizes the present that holds the remains of the past and the past that excavates present moments. The work is an installation combining a collage made by the images of a plaster statue with old photos, the photos taken by the artist from politicians' statues in everyday life. In her work, <Seeping> (2019), water from a soaked sponge and a wet red brick wall metaphorically reveals a societal control embedded in an individual time, and a triangle shape surrounding the photos and media works functions as the cage of repeated historical time frames.

In her work, <The Blue Moon Swallows Time> (2019), shown at a special exhibition during Gyeonggi Creation Festival in 2019, she overtly revealed the ways that time ran within the societal frame and was controlled within the system. She symbolically showed the logo of Starbucks as a way to measure how many hours one should work in order to buy a cup of coffee. This was the artist's insight that individual time was controlled and understood in terms of an economical value in the capitalistic society. The artist attempts to compare the minimum wage, the most basic value given to labor, reflecting the relative economic standards of the three cities of Seoul, New York and London that serve as the backdrop for the work, and the social values designated for a cup of coffee. Based on the most common global coffee brand Starbucks' signature menu, 'A Cup of Americano,' the number of working hours required is calculated to be 29 minutes (4,100 won) in Seoul, 8 minutes (about 2,477 won) in New York and 18 minutes (about 3,735 won) in London. This is how the consideration of capitalist society, where individual time is controlled by the economic value recognized in the society, is shown.

This work permeated in the city implied an eager to control the time of individuals that took place in private spaces. In her past works, the artist attempted to show her trails to preserve the past in analogue ways. As reviewing and showing the image of the blue moon uploaded in her Facebook Timeline, she personally practiced an essential time control, such as saving the memories and reviewing them. The time control has operated everyday in the SNS platform of this digital society. The enlarged image of the moon seemed to describe the personal desire of time represented by the blue moon in the exhibition. As displaying everyday objects, such as a small glass bottle, hair pins and hair bands, along with her works, this made the exhibition realistic, rather than being surreal. This persistently reminded her audiences of the fact that this desire prevailed in their everyday life.

An Abstract of a Review by Kim, Yon-woo, curator

EIN STEIN_기웃거리는 상상, 머뭇거리는 상상
EIN STEIN_Imagination : Snooping or Hesitating
자석, 피그먼트 프린트, 스티로폼, 문, 철판에 아크릴 페인트_가변설치
magnet, pigment print, steel, door, styrofoam, photo collage on sculpture_dimensions variable, 2016



EIN STEIN_생각의 생각
EIN STEIN_Thinking about Thinking
자석, 피그먼트 프린트, 스티로폼, 와이어, 철판에 아크릴 페인트
magnet, pigment print, steel, wire, styrofoam, photo collage on sculpture
가변설치_왼쪽 220 × 85 × 82cm, 가운데 85 × 62 × 43cm, 오른쪽 125 × 130 × 123cm, 위 300 × 40 × 38cm
dimensions variable_ left 220 × 85 × 82cm, center 85 × 62 × 43cm, right 125 × 130 × 123cm, top 300 × 40 × 38cm, 2019

물질화하는 사진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류정민의 작업은 사진에 기반한다. 사진은 시간을 기계적 장치에 의해 잘라낸 것으로, 매우 짧은 순간 동안의 빛을 제한된 면에 기록한 것이다. 시간의 단면이자 시공 연속체의 잘라낸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진이 지닌 존재론적 구조를 떠올려 본다면 그것이 일어났던 사건의 증거인 동시에 전체에 대한 제유적(metonymic) 기호로서 작동한다는 사실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한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시간으로부터 생성된 빛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완전한 부분이자 극히 미세한 단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기록 자체에 인간의 시선이 개입한다는 점으로 인해 그것은 선택된 부분이며 응시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Photos on Materialization

Yu, Jin-sang professor & critic

The works of the artist, Jung-min Ryu, have their basis on photos. As a photo freezes a certain moment by a mechanical tool, it records lights from an instant moment within a limited space. As imaging an ontological structure of a phot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oss section of time and a space-time continuum,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photo functions as the witness of an incident and at the same time as the metonymic sign of all. A photo once was the record of lights that emit from a historical incident. And, this is an imperfect and very minimal part of it. But, because the point of view of a human being involves into the records of photos, it is still hard to ignore the fact that the photo reflects the chosen part and records of an artist's point of view.



EIN STEIN_생각접기_PP13B
 EIN STEIN_Thinking folding_PP13B
 자석, 피그먼트 프린트, 스티로폼, 철판에 아크릴 페인트_가변설치
 magnet, pigment print, steel, styrofoam, photo collage on sculpture_dimensions variable 60 × 40 × 22cm, 2019

<Ein-Stein> 연작은 돌의 표면을 촬영한 사진을 확대하거나 그대로 출력하여 스티로폼으로 제작한 볼륨 위에 그대로 매핑(mapping)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권오상의 사진 조각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사진을 재단하지 않고 4x6 혹은 5x4 규격 그대로 입체에 붙여나가는 그의 사진 조각과 달리 류정민은 완벽한 재현적 완결성을 얻기 위해 사진을 균일한 표면(skin)으로 조정하고 재단하여 입체를 뒤덮는다. 중요한 것은 입체가 완벽하게 하나의 '돌'로 '재현'되는 것이다. 이제 사진은 분자화와 입자화를 거쳐 사물과 '동일한' 것이 된다. 어디까지 사진이 갈려서 시각적 대상에 녹아들 것인가에 있어 류정민은 그 극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개입하는 새로운 사실은 사진이 사물과 동일해지기 위해 이제 사진은 평면에서 입체로 바뀌었으며, 그 대상은 가장 무거운 대상을 가운데 하나인 '돌' 혹은 '바위'가 되었다는 점이다. 류정민에게 있어 사진의 사용은 순수하게 시각적인 대상으로서의 환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 이러한 무거운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것을 시각적 대상을 통한 세계의 재구성을 위한 계기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 돌-사진은 그것의 무거운 외관과 달리 극단적으로 가벼운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 쉽게 허공에 들리거나 매달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전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돌들이 중력을 거슬러 전시공간의 벽이나 천장에 부착되는 것이며 가히 초현실적인 시공간을 연출하면서 다른 시각적 순수성의 기호들, 즉 기하학적 평면이나 선들과 조합된 '시각적 단위'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다.



EIN STEIN_생각의 생각_MF05
 EIN STEIN_Thinking about Thinking_MF05
 자석, 피그먼트 프린트, 스티로폼, 철판에 아크릴 페인트_가변설치
 magnet, pigment print, steel, styrofoam, photo collage on sculpture_dimensions variable 180 × 105 × 56cm, 2018

Her series, Ein-Stein, are made by the mapping of enlarged or regular prints of stones' surfaces on the stone shape of styrofoam. The series remind of the photo sculpture of Kwon, Oh-sang. Unlike his sculpture, which he directly attaches his 4x6 or 5x4 size photos to objets without cutting the photos in pieces, Jung-min Ryu manages to make evenly balanced surfaces of the photos, cut them and cover objets with them in order to achieve perfection in recreation. The significant thing here is that a body is recreated as a perfect stone. Now, the photos become one with the objet through *moleculification* and *particlzation* of themselves. It is certain that the artist extremely pushes her capability further when it comes to how many pieces the photos should be cut and how much they are absorbed into visual objects. But, a new truth is that a photo becomes three-dimensional, rather than two-dimensional, in order to make the photo identical to the objet. The objet is one of the heaviest things, a piece of stone or rock. To the artist, photo means purely returning back to visual objects. At this point, one can easily guess that dealing with a heavy object implies that the artist uses it as a means to reorganize the world through visual objet. As mentioned above, this stone-photo is easily hung in the hall as it is made of an extremely light material unlike its seemingly heavy surface. As one surely expects the next step of its development, the stone is attached to the wall or ceiling of the exhibition hall against the gravity. As this creates a surreal space, other visually literal symbols return back to "visual units" composed of geometric flats or lines.

이 작업이 어떤 운동성을 띌 것인가는 작가가 '사진'과 그것의 '시간성', 그리고 '세계관'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 그것이 이제까지의 전개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 작가의 작업의 진화 속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예상하건대, 류정민의 작업이 이제까지 나아온 '사진의 물질화'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제 작가의 시선에서 떠나 사진의 물질적 층위에서 시선을 재설정하는 가능성이 부상할 수 있다. 실제로 그의 작업은 사진을 잘게 쪼개 인간의 시선이 아닌 극미한 스케일로 재구성된 어떤 다른 것으로만 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입자 현미경이나 전자적 광학장치의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류정민의 작업은 철저하게 '손'과 사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신체적이고 수공적인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은 작가의 사유의 강도와 그것의 작용이며, 그것이 사진의 물질화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지를 가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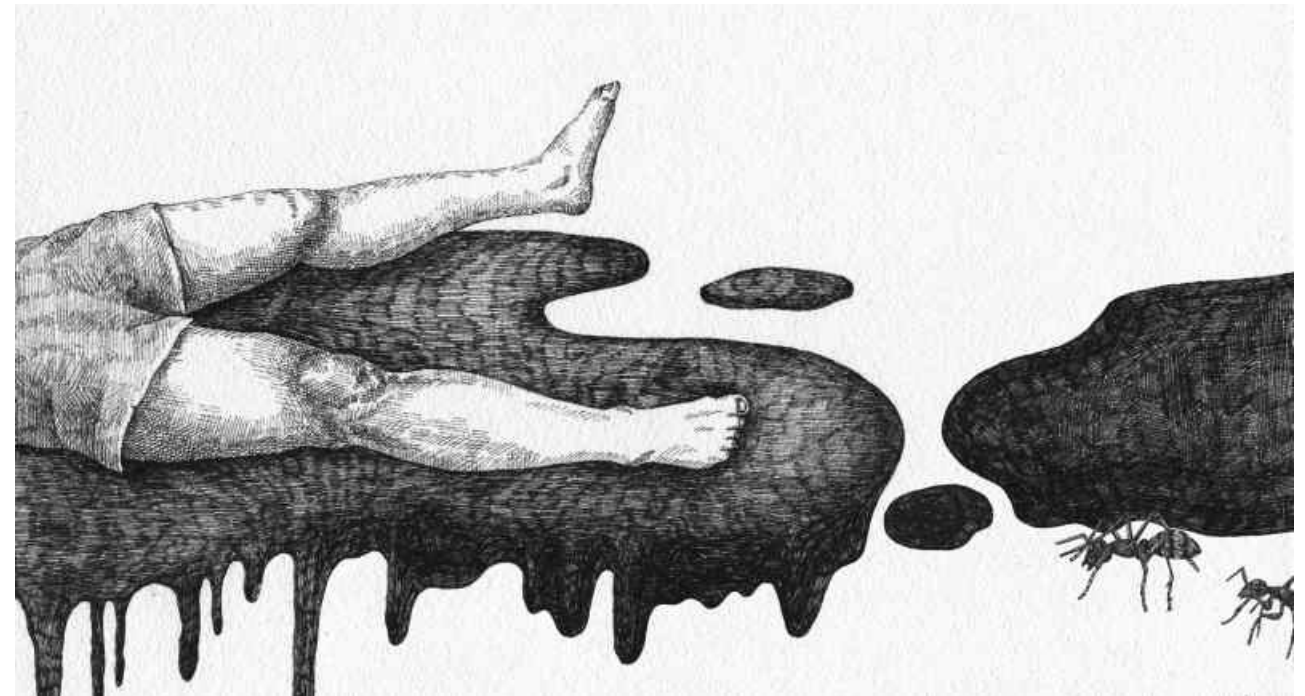
Which directions her works pursue depends on what kind of settings the artist constructs in relation with "photo," "their timeliness" and "a view of the world." One thing is certain that she is not going to stay in the stage that she has been through. This becomes obvious when one penetrates the progression of her works. As considering the materialization of photo that the artist has carried out through her works, it is possible for one to reset the point of view on the photo's materialistic layers beyond the artist's perspective. Her works are actually regarded as a process to create something new reconstructed under a micro scale, rather than human's point of view, as she cuts a photo in details. Of course, this is different from the ramifications of a particle microscope or an electronic visual device. Her works are absolutely made with interactions between her hand and photos. In this sense, her works are very physical and manual. What one should deal with here is the strength of the artist's ownership and its reactions. This can be a clue to estimate how far the materialization of photo can be accomplished.

An Abstract of a Review by Yu, Jin-sang, professor & critic



EIN STEIN_생각의 생각
 EIN STEIN_Thinking about Thinking
 자석, 피그먼트 프린트, 스티로폼, 철판에 아크릴 페인트_가변설치
 magnet, pigment print, steel, styrofoam, photo collage on sculpture_dimensions variable, 2018

스위치온 Switch On
드로잉 애니메이션 2분 19초, 2019



심키는 마을 Speechless
드로잉 애니메이션 1분 31초, 2019

밤의 상념

이성희 하이트 컬렉션 큐레이터

창밖으로 초생달이 보이는 방 안에 온갖 기물들이 꾸물꾸물 거린다. 백열전구 아래로 펼쳐져 있는 테이블 위엔 천장까지 뻗은 식물의 화병과 촛대, 주전자, 이름 모를 새가 자리하고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유영 중이다. 기우뚱하게 놓여져 있는 테이블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책 더미와 원뿔이다. 커다란 쥐들이 기어 다니고, 뽀족한 송곳들이 튀어나온 안락의자 옆으로는 뱀이 지나간다. 벽 쪽 선반 위의 사물들을 통해 이 방의 주인을 짐작하건대, 그는 분명 조형을 다루는 사람이라. 또, 화분 위에 앉아 있는 부엉이처럼 밤을 지새우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

<스위치 온>(2019)은 이 그림의 작가인 박미라가 지새운 밤의 풍경이다. 이 풍경은 멜랑콜리한 상념의 바다다. 불면이 일으킨 상념은 예민한 감정과 감각, 그리고 상상력을 배가시킨다. 작가는 자신을 “도시의 산책자가 되어 주변을 산책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그림자들을 들추어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감정이 취약해지고 예민함이 가장 고조되는 ‘밤’이라는 시간을 주목했다고 말한다. 사실 밤에는 감정과 감각이 예민해지고 고조된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18-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멜랑콜리가 유럽 문화를 잠식했을 때, 밤은 당시 문학의 중요한 모티프였다. 예컨대,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영이 쓴 시집 『밤의 상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Night Thoughts

Lee, Sung-hui critic & Hite Collection curator

All artifacts are wiggling in the room, where a crescent moon is seen through the window. A vase of a plant reaching to the ceiling, a candle stick, a pot and an unknown bird sit on a table under the light bulb. Through them, a fish is in the swim. A leg of a slanted table is upheld by a pile of books and a cone. Big mice crawl and a snake moves around near a spiked armchair. If one could guess the owner of this room, one easily imagine an artist, the figurative artist.

Switch On, one of Mira Park's works, is about a night landscape, where she stays awake all night. The landscape is the melancholy sea of thoughts. Her thoughts caused by an awakening maximize exquisite feelings, senses and imagination. The artist explains that she becomes a city stroller walking around, searches for dark shadows and records them. She particularly focuses on time, a night time when an emotion becomes weak and sensitivity hits peak. It is known that at a night emotion and sensitivity become strong and peak. In particular, when a notion of melancholy in Romanticism during the 18th through 19th century prevailed in European literature, the notion was a significant motif in literature. For instance, in a British poet Edward Young's poetry, Night Thoughts, he states



겹치고 돌린
패널에 아크릴 283 × 422cm, 2019



쌓여가는 위로들
패널에 아크릴 249 × 276cm, 2019

“밤, 흑단의 왕좌에서 일어난 암흑의 여신! 캄캄한 위엄 속에서,
이제 잠든 세계를 향해
그녀의 왕홀을 뻗는다.
침묵, 완전한 죽음!
그리고 암흑, 완전한 심연! 눈도, 듣는 귀도, 사물도 보이지 않는다.
창조는 잠이 들었다.
삶의 평범한 맥박조차 정지한 채, 자연도 멈추어 있다.
끔찍한 일시정지! 그녀의 끝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녀의 예언이 곧 가득차게 하라.
운명! 장막을 내리라.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Night, sable goddess! from her ebon throne,
In rayless majesty, now stretches forth
Her leaden sceptre o' er a slumbering world.
Silence, how dead! and darkness, how profound!
Nor eye, nor listening ear, an object finds;
Creation sleeps. 'Tis as the general pulse 23
Of life stood still, and nature made a pause;
An awful pause! prophetic of her end.
And let her prophecy be soon fulfill'd;
Fate! drop the curtain; I can lose no more.

에드워드 영의 시는 당시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의 시에 나타난 생생한 이미지들의 분출, 감정의 격렬한 표현, 밤, 죽음, 무덤과 같은 모티프는 멜랑콜리, 운명, 매혹적인 죽음과 같은 낭만주의의 테마의 시초가 되었다.
박미라의 밤 역시 멜랑콜리하다.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찬 그의 그림은 가느다란 선으로 촘촘하게 메꾸어진 섬세한 드로잉들만큼이나 불면의 밤을 채워나간 작가의 상념들을 상기시킨다. 여러 대의 선풍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누워있는 인물은 마치 땅에 사지가 붙들린 듯 널브러져 있다. 바람이 그의 얼굴에 닿기는 할까? 들불이 붙은 듯 일렁이는 풀들이 불안하다. 그 풀들 사이로 개미들이 나타나 인물의 몸을 뒤덮을지도 모른다. 사실 작가는 개미들이 피부 위로 스멀스멀 기어오를 것만 같은 느낌에 대해서 말한 적 있다. 밤은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는 시간이다. 저 일렁이는 풀들이 피부의 털일지도 모른다.

Young became very successful at that time. Overt images emerged from his poetry, intense expressions of emotions, night, death and graveyards became the precursor of the subjects of Romanticism, such as melancholy, fate and attractive death.
Mira Park's night is melancholy. Drawings with plenty metaphors and symbols are fully filled with dense fine lines. These drawings remind her audiences of her sleepless nights charged with the artist's thoughts. A human being surrounded by several working electric fans is randomly lying on the ground as if he were tied into the ground. Can the wind touch his face? The agitating hay seems to be anxious as if it were caught on fire. Ants from the hay may swamp the man. Actually, the artist once told about her creepy feelings as if the ants had crawled all over her body. A night is the moment that every senses are fully awake. Swaying hay may be skin hairs.

작가의 드로잉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는 뿔과 구멍이다. 먼저 뿔은 사슴과 같은 동물의 뿔이 되기도 하고, 물고기의 촉수가 되기도 하고, 곤충의 다리가 되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되기도 하고, 안락의자에 솟은 송곳이 되기도 한다. 또 사람의 손이자 장갑의 형태로도 등장한다. 총체적으로 이 뿔의 형태는 드로잉 안에서 동물, 식물, 사물을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모티프다. 동시에 예민함이 고조되어 있는 촉각을 암시한다. 저 장갑의 손끝을 보라. 음습한 기운이 손가락을 감싸는 느낌이 상상되지 않는가? 박미라가 그린 뿔은 한밤중에 극도로 고조되어 있는 예민함 그 자체다. 한편, 작가의 드로잉에서 구멍은 한결같이 진한 검정색으로 표현되는데, 시각적으로는 납작한 평면 작업에 깊이 감이라는 환영을 부여하고, 동시에 흑백으로 이뤄진 드로잉 그라데이션에 강약의 톤을 완성한다. 내용적으로는 창문이나 연못, 밤하늘 등 다른 세계로의 연결통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앙상한 나무들이 빼곡한 숲 한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이를 그린 <연결된 시작>(2018)은 제목에서부터 다른 세계로의 연결에 대한 힌트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 검은 색에 대해서 “검은색 풍경은 빈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의미와 이야기들이 꽉 채워진 공간을 상징한다. 색을 뺀다는 것은 비워 놓는 것임과 동시에 공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화려한 칼라를 배제한 채 모노톤의 드로잉만으로 작업하는 박미라에게 검정색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는 기술적으로는 펜의 강약 조절, 선의 굵기나 간격뿐만 아니라 선을 채우지 않는 부분, 즉 흰색을 어디에 적용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까지 포함하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드로잉 화면 위의 정서는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 긴장 관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스위치 온> 작업을 보면, 벽난로와 식탁 러너, 그리고 카페트가 유난히 희다. 전체 공간에 드리워진 통일된 명암이 있더라도 이 사물들을 밝은 색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화면은 시선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기물들은 배경 속으로 묻개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한눈이라도 판다면, 그 사이 꿈틀거리며 움직일 것만 같아 보인다. 그 자체로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을 연상케 한다.

한편, 펜을 이용한 세필 드로잉으로 밀도를 채우면서 대형 작업을 제작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박미라는 캔버스 또는 벽화 드로잉이나 애니메이션 프로젝션을 통해서 작업 스케일의 한계를 극복해내고 있다. 때문에 작가가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종이만을 작업의 지지체로 고집하지 않고, 합판이나 시멘트와 같은 거친 소재 위에도 드로잉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 거친 지지체들이 작가의 밤의 상념에 멜랑콜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격렬한 모티프들을 불러 일으키길 희망해본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The leitmotif of the artist' drawings is horns and holes. The horns can be deer's horn, fish's tentacle, insect's leg, tree's branch, or a gimlet on a chair. They appear as hands or gloves of humans. These horn shapes are motives that can be seen at animals, plants and objects. This also implies heightened sensors. Look at the fingertips of the glove! Can one imagine one's feeling when a dark and damp power captures one's fingers? The artist's horn accounts for her extremely intensified sensitiveness.

On the other hand, holes in her drawings are consistently expressed in thick black. It gives a silhouette that brings a visual depth in a two-dimensional work and at the same time accomplishes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color tones by the black and white drawing degradation. The hole also plays a role of a portal, such as a window, a pond or a night sky, to jump into a different world. For instance, her work, Connected Beginning(2018) portraying a sinkage in thick scrannel trees, symbolizes a link to a different world.

The artist defines a black landscape as not only an empty space but a symbolic space filled with lots of meanings and stories. She also insists that removing color mean not only emptying a space but filling a space. Thus, to Mira Park, who mainly deals with monochrome drawings, how to cope with black is essential. This includes adjusting and controlling margins that carefully require pencils' strength, thickness, gaps and lineless margins. Ultimately, emotion in the drawings heavily depends on the contrast of black and white and their tensions. The artist overcomes the limits of creative scales through works on canvas, fresco or animation projection. It is significant for her to do practice on tough materials such as plywood or cement, rather than papers. One wishes that these sturdy materials can unleash not only her melancholy but another vigorous motive in her thoughts at night.

An Abstract of a Review by, Lee, Sung-hui, critic & Hite Collection curator

시그러운 유령들 Potergeist
드로잉 애니메이션 2분 29초, 2019



Unknown Construction Site
110 × 165 cm, Archival pigment print, 2019



Unknown Construction Site II
110 × 165 cm, Archival pigment print, 2019

“아무 것도 아닌 상태거나 그 무엇도 지시하지 않는 영도의 장소”¹⁾ 중에서 발췌

정현 인하대 교수

작업의 개념적·실천적 모티브로 공사 현장을 지칭하는 영문 “Construction site”를 두고 작가는 공간을 특정하는 구조나 구성물로 해석한다. Construction site는 건설 현장을 비유하되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부재하기에 텅 빈 기호의 장소와 다름없다. 특별한 것도 없는, 어쩌면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현장을 재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설치물은 공사 현장이라는 기표를 강조할 뿐, 실제 공사 대상과 앞으로의 계획은 모호하거나 부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도-구성, 아카이브>에서도 그가 선택한 대상과 장면은 기호학에 의한 언어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그의 사진은 시각 언어로서의 해석이 불투명한 대신 건축물 혹은 정원 같은 대상들은 여전히 익명적이고 비-기호적이지만 유일한 공통점은 무언가를 구축 중/수리 중(Under Construction)이라는 상태란 사실만을 지시한다. 여기 사진들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송전탑, 가설재로 가려진 건축 현장, 자연

The Place of Zero Point That Is in the State of Nothing or Refers to Nothing

Jung, hyun critic & professor

Sinyong Park interprets “construction site”, an English term referring to an area or piece of land on which construction works are being carried out, as a structure or element specifying a space, regarding it as his work’s conceptual, practical motif. As this term is used as an analogy of a construction site but actually has no meaning, it is as good as a place of vacant symbols. His work seems to represent a construction site commonly found in big cities throughout the world, but this installation merely puts emphasis on the signifier of a construction site but has no object of construction or plan to carry out. The object and scene he chose in *Daebu-Construction, Archive* are also interestingly impossible to be interpreted in semiotics. Thus, his photographs are vaguely couched in visual language but his architectural structures or gardens are still anonymous and non-semiotic. Instead,

1) 박신용, 『대부-구성, 아카이브』, richtig technik, 2020, p.115~117.

풍경, 가설건축물 등을 보여준다. 어떤 것들은 대상의 목적과 기능이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그 외의 것들은 혼한 풍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각각의 대상들을 지각하는 것과 달리 사진 전체의 주제나 의도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서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의외의 연결고리가 나타난다. 예컨대 이 사진들은 장소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요소들이다. 그런데 이 요소들이 무엇을 만들거나 어떠한 경관을 보여줄지를 예상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각 요소들은 주변과 대화를 나누거나 연결될 수 있는 계획 내지는 원리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구성, 아카이브>는 실제 개입을 위한 조사 단계의 사진들이지만 분명 작가는 바다마을 대부도를 장악한 끊임없는 개발, 끝없는 성장이라는 발전 이데올로기의 공허함을 목적이 불분명한 건축 현장에서 지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의 작업 중 <Untitled>(2018)는 장소의 기능을 가로막거나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폐목재를 채워놓았다. 이러한 설치는 외관의 기호를 해체하여 장소의 정체성을 해체하려는 일종의 사보타주(sabotage, 훼방)처럼 보였다. 최근 들어서 장소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을 장소특정적 미술로 장르화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는데, 과연 박신용의 작업도 이 같은 존재 양식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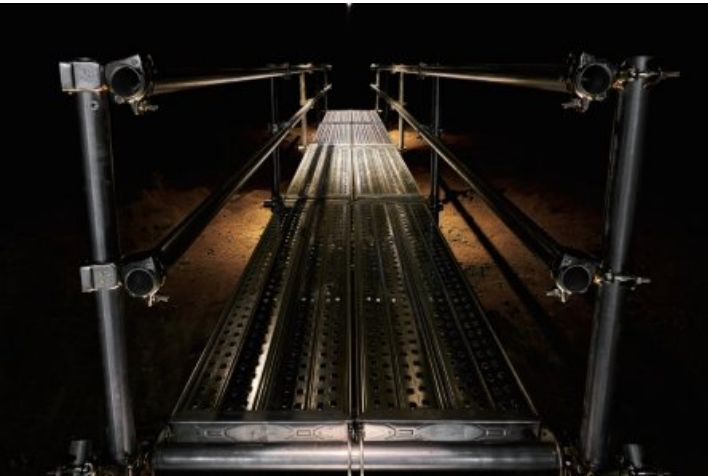
요컨대 장소특정적 미술은 무엇보다 공공미술, 기념비, 공공조각, 환경미술은 물론이고 공공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난립하는 개념들이 가진 저마다의 한계와 가치를 갈음하는 하나의 개념,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 저자인 권미원은 근본적으로 장소특정적 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의 현상학적 존재론은 교환가치로 유통되는 자본주의 미학에 대한 저항하려는 의지로 출현하였다고 말한다. 보편적이고 공리적인 장소가 아닌 협소하고 지극히 불안정한 각 장소만의 고유한 특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장소특정적 미술은 모더니즘 이후에 발생한 미학의 혼란 상황에서 새로운 매체, 질료, 방식을 모색하는 실험의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장소특정적 미술은 안과 밖, 지역과 지역, 자연과 문명을 자율적으로 횡단하는 유목적인 활동까지를 포함한다. 장소특정적 미술은 미술제도, 세계화 이후의 현실, 미술의 공공성과 공동체 등 90년대 중반 이후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방향성과 동반하고 있다. 물론 예술의 공적 서비스 활동으로 왜곡된 공공미술제도는 장소특정적 미술의 부정적 측면이란 점도 빼놓을 수 없겠다. 일련의 해석들은 박신용이 전개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장소특정적 미학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업은 장소의 정체성을 해체하거나 일시적으로 장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공공장소에 비-공공적인 개입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탈리아 칼비노(Italo Calvino)의 “보이지 않는 도시”(La Città invisibili)는 제목 그대로 도시의 비가시성을 주목하였다. 즉 칼비노가 생각하는 도시는 기억과 경험 그리고 우연에 의하여 생성되는 무언가로 바라본다. 이른바 통계를 기준으로 다수의 편리함과 합리성, 특히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이 보는 미래의 삶은 마치 영국 드라마 블랙미러의 한 에피소드처럼 모든 활동이 재화로 환원되고 보장된 미래를 위한 준비단계로만 존재하는 세계로 그린다. 칼비노는 삶에서 스스로의 환상을 꺼내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주어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드는 삶을 찾으라고 말이다. 박신용의 작업은 현재를 영도로 환원하려는 속셈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경기창작센터의 단체전에서 그는 바닥에 모래를 깔고 비계로 일종의 전망대 구조물을 제작했다. 건다 보면 결국 되돌아와야 하는 막힌 길(Dead End)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당황하게 된다. 분명히 그는 무언가를 구축 중이거나 수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이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refer to a state in which something is under construction. These photographs showcase transmission towers cutting across the sea, a construction site covered by temporary materials, natural scenery, and temporary structures. Some seem to give prominence to the purpose and function of an object and others look like common scenes. While each object is easily perceived, the entire theme and intent of each photograph is not easily grasped. However, an unexpected link appears if we change our point of view. For instance, his photographs feature small and large elements forming a place. All the same, these elements do not enable us to predict what they form or show. This is because each element does not share any plan or principle through which they have a link to their surroundings. *Daebu-Construction, Archive* consists of photographs taken in the process of a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actual intervention, but the artist probably perceived the vacantness of the ideology of development such as tireless development and endless growth that was pervasive in Daebudo and its seaside villages. For example, *Untitled* (2018) he worked on in Germany disturbs or weakens the function of a place, filling it with wood wastes. This installation looked like an act of sabotage to deconstruct a place's identity by dissolving the symbol of its outer appearance. Recently, site-based works particularly tend to be regarded as a specific genre. If so, can Park's work be included in this mode of being?

called site-specific art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a concept and criterion encompassing the limit and value of notions jumbled up close together in a variety of genres from public art, monuments, public sculpture, and environment art to public design. Author Miwon Kwon states that site-specific art has elementally emerged as a will to stand up against capitalist aesthetics in which phenomenological ontology in modernist art circulates as an exchange value. Site-specific art includes the process of experiments to explore new media, materials, and means in a confused situation of aesthetics. Accordingly, site-specific art encompasses even nomadic activities such as autonomously travers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region and region, and nature and civilization. Site-specific art has been accompanies with the new tendencies of art since the mid-1990s, such as art institutions, reality after globalization, publicness of art, and communities. Of course, we cannot put aside the public art institution distorted by public art service activities as the negative side of site-specific art. All the same, his work seems to try non-public intervention in public spaces by temporarily deconstructing any site-specificity or blurring a place's identity. In *Invisible Cities* (La Città invisibili) Italo Calvino pays attention to a city's invisibility as its title suggests. That is to say, Calvino sees a city as something formed by memories, experiences, and accident. He seems to whisper to take out our own fantasies from our lives and to make our own lives, not given ones. Park's work seems to mask its true intention to reduce the present to a zero point. He made a kind of observatory structure with scaffolding after spreading sand on the floor in a group exhibition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We become perplexed at the fact that there's not much to see at the dead end from which we have to come back. He is apparently forging or mending something. What we expect is what will come up next in his work.

A Review by Jung, hyun, critic & professor



Untitled
675 × 1385 × 305 cm,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9

구멍난 벽 Hole in the Wall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9



얼굴묘지 Face Cemetery
석고, 안료, 미니 가슴기 가변설치, 2019

A Dialogue

정진우 큐레이터

“저는 [공간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환상성]을 연구하며, [인간의 욕망]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문장은 박진희 작가의 작가노트에 있던 말이다. 박진희 작가와는 이번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작가를 처음 만나기에 앞서, 작가노트에 있던 말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정적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었다. ‘공간과의 만남’은 무엇인지, ‘환상성’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환상성’은 ‘환상’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서.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내용으로는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포트폴리오에 담긴 다양한 작업들 -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그리고 영국, 우크라이나, 한국에서의 작업들은 서로 너무 다르게 보여, 작가노트의 저 문장은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박진희 작가와 몇 차례 만나면서, 처음에 갖게 되었던 낯설과 의문점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해나가고, 대상과 방법론을 점차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일 것이다. 박진희 작가를 만나면서 가끔 어떤 문제(혹은 주제)를 너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제시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 오래전부터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레지던시 혹은 공모에 지원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프로젝트 기획서를 만들고, 그 기획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예산과 공간에 맞춰서 작업해 온 습관으로 인해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제약 같은 것이 생긴 듯하다. 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A Dialogue

Chung, Jin-woo curator

“I am studying illusionability and exploring human desires on the subject, Encountering a Space.”

The above statement is in her artist note. Before meeting her, I, as an advisor,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the messages in her assertion. I have manifold questions about what she implies with the expression, “encountering a space,” how this connects with *illusionability* a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llusion and *illusionability*. I have checked her portfolio and I am still wondering. The works done in different places since 2016 in the portfolio are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Now, the above sentence appears to be very unfamiliar to me.

As meeting her several times, I have had chances to verify unfamiliarity and doubts. Enhancing the depth of thinking and actualizing objects and methods are necessary to all artists. I get an impression that she strives to specifically and directly regulate and suggest certain problems (or subjects). Perhaps, she has been accustomed to certain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diverse circumstances. This might bother her demeanors. This disturbance comes from not only outer influences but her inner thoughts. She is working on a subject, “what does it mean by being faceless?” A faceless man appears as a blue



도자귀 Ear Pot
도자기, 수슬연습용 실리곤 귀 가변설치, 2019



참견하는 코 Nosy Nose
도자기, 수조, 철재, 물, 호스, 집게 가변설치, 2019

제약 같은 것은 외적인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박진희 작가의 내적인 부분에서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박진희는 ‘얼굴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얼굴이 없는 사람은 작가의 이전 작업 중에서, 천으로 온몸을 감싼 블루맨이나 2016년 우크라이나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작업에서도 나타났었다. 보이지 않는 제약, 혹은 억압은 우크라이나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퍼포먼스 - 계란 위를 걷고, 두 기둥을 실로 연결하다가 마지막에 끊어버리는 - 에서도, 메두사에 대한 신화를 여성성과 연결시킨 최근의 개인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서로 너무 많이 다르게 보였던 박진희의 작업들은, 그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들을 듣고 나서 좀 더 명확하게 연결고리가 찾아졌다.

‘한번도 상대방의 말을 전부 다 알아듣고 이해하면서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작가의 말은 억압받고 소외받아 왔던 한 주체의 긴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들려주었다.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영국 국제학교’를 나오고, 영국에서 다시 대학을 다닌 박진희는 아마 다양한 그의 작업들 만큼이나 많은 편견과 오해, 언어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작가로서 살아가는 일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벗어나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를 만들어왔던 이전의 작업들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변화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지와 노력이, ‘얼굴이 없는 것의 의미’에 대한 박진희의 작업과 그리고 그다음 작업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기다려보고자 한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man entirely covered with clothing in her previous works and her works done in artist-in-residence in Ukraine in 2016. Invisible limits and suppression were shown in her performance, “Walking on an Egg, Connects Two Pillars with a String and Cut it at last,” at the Ukraine museum of fine art. It overtly appears at her solo exhibition that the myth of Medusa links to femininity. Her points become my *epiphany* after I have heard her private life experiences, although her works seem to be so different each other. She symbolically talks about the long story of a person, who has undergone suppression and isolation, as stating “during my life I’ve never fully understood others’ speech.” In China, she went to a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and had a college degree from a British university in England. She might have had difficulties from prejudice, misunderstandings and linguistic barriers. After her graduation from a university, she also has put herself in difficult situations as an artist in Korea. On the other hand, just as she has created works of art to show something under the given situation beyond manifold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 her willingness and endeavor to bring forth changes under a new circumstance make me expect her next works of art conveying “the meaning of being faceless.”

A Dialogue with the Artist by Chung, Jin-woo, curator



RGB
브라운관 티비 3대 45 × 50 × 135cm, 2019

너의 '도'는 나의 '도'와
수집한 목소리가 포함된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9



Float or Sink
수집한 부표와 소리, 추, 물, 유리 수조, 스피커유닛, 가변크기, 2019



검치는 시간
수집한 목소리가 포함된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9

자연과 인공의 변증법적 관계성

안진국 미술비평

서혜민은 작곡과 출신으로 음악의 구조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다. 그래서 그는 음악의 익숙한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과 이 구조를 깨서 낯설게 하는 방법을 동시에 알고 있다. 작가는 작업에서 소리를 작곡의 구조로 불러온다. 이럴 때 '자연의 소리'와 '음악의 구조'라는 익숙함이 음악의 구조에 착 달라붙지 못해 생경한 소리로 변한 자연의 소리가 들려주는 낯섬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작가는 이런 익숙함과 낯섬을 경계에서 '사운드'(소리나 음악과 구분하기 위해 사운드로 표기한다)를 만든다. 사운드는 익숙한 물리적 특성이나 공간 속에 "예상치 못한 타이밍, 불편한 질감, 극한의 반복, 흐트러진 공간감, 부조화의 조화 등 새로운 물과 호흡"(작업노트)을 제시하며 새로운 소리의 체제를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작업이 지닌, 자연소리와 인공 음악의 접붙여진 관계성이 돌출시킨다. 그의 작업에서는 소리의 발현, 소리의 전달, 소리에 대한 반응이 독립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의 초기 작업은 소리의 시청각적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소리를 직접적으로 가시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는 소리를 발현하거나 전달하는 기계적 매체를 전면에 등장시켜 소리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려 했으며(<noFilm>[2017], <SWITCHBOARD>[2017] 등),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의 느낌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를 스크린에 영상함으로써 소리와 시각의 동기화를 시도하였다(<갇힌 소리>[2018] 등).

Dialectic Relationship of Nature and Artificiality

Ahn, Jin-kook critic

The artist, Hye-min Seo, has a music background an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usical structures. She is fully aware of how to maintain accustomed structures in music and at the same time to *defamiliarize* these structures. The artist brings forth the sound of her works into the structures of composition. In doing so, her audiences, who familiarize the sound of nature and a structure of music, sense unfamiliarity from the sound of nature varied by a strange sound unfit to a usual music structure. The artist creates *Son* (an expression deviated from literal terms, "sound" and "music") on the border between "accustomed" and "defamiliarized." *Son* makes a new sound system as suggesting new rules and breath(work notes) such as unexpected timing, uncomfortable textures, excessive repetitions, disturbed spatiality and the balance of mismatch within familiar physical characteristics or spaces. In doing so, this manifests the hybridized relationship of the sound of nature and artificial music in her works.

In her works, the revelation, transmission and reaction of sound reveal themselves independently or all at once. In her early works, she strived to directly visualize the sound through the optical aspects of it. On the other hand, as showing a mechanical medium to reveal or transmit the sound at the front, she accounts for the reality of the sound(noFilm(2017) and SWITCHBOARD(2017). As she also projects images responding to the feelings of the sound on the screen, she attempts to synchronize the sound and visuals(Entrapped Sound, 2018).



Wear the mask and Watch the screen
싱글채널비디오 스테레오사운드, 가변크기, 10분 42초, 2019



딱딱한 파도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9

이후 작가는 소리의 발현자(발현체)에 관심을 가진 듯하다. 그는 숯에서 얻을 수 있는 소리를 채취하는 <'Breath' for Live and Tape>(2018)를 선보인다. 이 시기에 작가는 환경과 관련된 여러 작업을 했던 것을 보아도 작가가 환경, 넓게 보면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스트(yeast)의 발효 과정을 보여주거나(<HYPHEN>[2018]), 미세먼지로 인해 시정각이 무뎠다는 것을 느끼게 하거나(<Wear the mask and Watch the screen>[2018]), 미세먼지가 바다, 산, 도시, 공장 지대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드러내는 작업(<PM2.5 SERIES>[2018~]) 등을 이 시기 선보였다. 작가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숯, 바다, 산, 도시, 공장 지대뿐만 아니라, 소리의 전달자로서 온도와 습도(환경), 미세먼지(인공)까지 소리의 구성인자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진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관심은 고스란히 '관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는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전달자의 관계에 따라 소리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드러내는가 하면, 동시에 이 자연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인간 사회의 관계망을 상징적으로 구현해낸다. 이스트 발효 과정을 통해 사회를 형성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유비적으로 드러낸 <HYPHEN>이나, 댓글에 대한 반응을 거품과 가글링(Gargling) 소리로 동기화해 사회적인 관계성 문제를 조명한 <댓글 전쟁>(2018)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이러한 작가의 관계성에 대한 사유는 현재 자연의 발현자와 인공적으로 형성된 전달자를 거쳐, 그것에 반응하는 수신자까지 그 사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바로 <딱딱한 파도(Plastic wave)>(2019)가 이러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업에서 해양생태를 파괴하는 스티로폼과 어망이 파도 소리를 내는 상황은 자연과 인공의 미묘한 지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성향의 해양생태 문제는 수조에 담긴 플라스틱 부표와 사운드의 진동을 결합한 <Float or Sink>(2019)를 통해 다시 한번 작업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서혜민의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관계성'이다. 그는 소리를 구성하는 발신자, 전달자, 수신자의 역학관계가 작업에서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도록 관계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 관계성은 변증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서혜민은 커다란 모험 중이다. 과연 그는 이 모험에서 보물섬을 찾을 것인가? 그럴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An Abstract of a Review by Ahn, Jin-kook, critic

Foghorn
사운드, 영상, 8'34", 프로젝트
sound, single-channel video, 8'34", 2019



서혜순 작가의 새 작업 “포그혼”(2019)에서 발견되는 사운드가 가지는 유연성에 대해

변지수 독립큐레이터

영상과 사운드가 이루는 촘촘한 결

개념 미술가이자 “사운드 아트” 잡지의 편집자인 윌리엄 펄롱(William Purlong)은, “최근 예술에서의 사운드”라는 글에서 “사운드는 뚜렷한 구별이 되는 카테고리를 성립시키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카테고리가 제한을 주고, 일정 부분의 가치를 무시하게 하며, 작업 환경에 있어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이는 역으로 사운드에 있어 이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가 말하는 사운드가 가지는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은,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에 주목하며, 이를 일깨움으로써, 또 다른 구성 요소와 전략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서혜순 작가의 신작 “포그혼”(8'29", 2019)에는 갯벌 영상과 무적(霧笛)의 소리가 함께 이루는 촘촘한 결이 돋보인다. 서 작가는 펄롱이 말하는 사운드가 가진 가능성을 심본 활용하고, 하나의 전략으로써 유연하게 사용한다. 영상에 담긴 선감 갯벌은 서 작가가 현재 거주하며, 작업해 오고 있는 경기 창작 레지던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카메라는 밀물과 썰물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물결의 움직임, 해무에 쌓여 미스터리한 표정을, 혹은 바닷물이 밀려나간 후, 사뭇 생경한 표정을 짓는 갯벌을 아주 느린 호흡으로 담는다. 더욱이 영상에 담긴 갯벌은 분주한 일손이나 사람의 흔적이 없는 장소로, 작은 생명체들과 새들이 그 주된 거주자들로써 모습을 드러낸다.



Foghorn
사운드, 영상, 8'34", 프로젝트
sound, single-channel video, 8'34", 2019

Regarding the flexibility of Sound Found in Foghorn

Byun, Ji-sue critic

Dense waves from the mixture of single channel video and sound

William Purlong, an editor of Sound Art and a conceptual artist, writes an article about “Sound in the Recent Arts” and concludes that the clear category of a sound is failed. But, the categorization sets up limits, ignores certain degrees of values and hinders working conditions. Ironically, this can be a strong point of sound. The positive aspects of sound, he points out, strategically work with other elements as focusing on other senses, rather than visual, and waking them up. In a new work by Hye-Soon Seo, Foghorn(8'29a", 2019) there are dense layers caused by the mixture of visual images of a muddy seashore with the absence of the registration of sound. The artist maximizes the benefits of Purlong's sound and strategically uses it in flexible ways. The muddy seashore is located near her artist-in-residence facility. Her camera consistently, yet slowly captures the movements of a rising and a low tides, mysterious scenes covered by sea fog and the strange views of the shore without water. It is a no-man's land, and small creatures and birds are the main dwellers of it.



...20cm... : 층, 파편 ... 20cm ... : Layers, Fragments
3채널사운드, 스피커유닛, 오디오케이블, 앰프, 6.8m x 8.2m (가변크기)
3-channel sound, 5'6"(loop), speakers unit, audio cable, amplifier, 6.8m x 8.2m (dimensions variable), 2019

소리와 일정 이미지의 콜라주

“콜라주, 병치, 축소와 부가, 대조, 추상적 혹은 사실적 표현 등과 같은 모든 기술은 사운드 작업을 하는 예술가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또한 듣는 이의 심상에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는 가능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필롱은 이처럼 사운드 예술에서의 작업 방식이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가 많은 부분에서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포그혼”에서 작가는 무적 소리가 지나는 본래의 성질인 안개에 대한 배를 위한 경고의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갯벌의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의 이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치환하는 시도를 한다. 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때로는 홀로 화면을 지배하는 확성기가 이 “가져다 붙인” 무적의 소리와 만나는 부분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예술가가 최대한 의제어를 가짐을 의미한다.

필롱은 1970년대 중반을 사운드가 본격적으로 예술에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로 꼽는다. 그는 그 이유로 예술가들이 녹음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사운드를 매체로 하는 작업에 온전히 임할 수 있었음을 꼽는다. 또한 그는 70년대 이전의 예술 작업에 있어 사운드가 대부분 라이브 이벤트를 녹음하는 것에 한정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작가들로부터 녹음 과정, 그 자체가 가지는 창조적인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하였다는 지적을 한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70년대를 기점으로 사운드가 예술에서 가지는 위치의 차이를 명백히 한다. “포그혼”에서 들려오는 뱃고동 소리는 웹상에 올려진 소리를 작가적 의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작가는 소리의 피치를 조정함으로써, 마치 “명상의 공간을 만들면서 훼손된 자연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부각시켰다. 녹음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난 소리, 혹은 실험 음악에서 더 나아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가 허용된 폭넓은 소리는 현대 사운드 아티스트 세대에 있어, 소리에의 접근성과 창조적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동시에, 이는 현대를 바라보게 하는, 더 큰 창이 된다.

Collage by Sound and Certain Images

A sound artist evenly adapts many techniques such as collage, juxtaposition, reduction and addition, contrast, abstract or realistic expressions. This includes possibilities to develop visual images in listeners' minds. Purlong reminds that the sound art shares the same methods with those of conventional arts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s. In her work, Foghorn, the artist pays attention to an initial function, the sound of alarm, and reflects her attempt to warn humans of the destruction of an environment. This becomes overt when a speaker scene comes along together, the scene that dominates the screen and the sound of the absence of registration.

This means that the artist possesses maximum controls.

Purlong regards that the mid 1970s was the period when sound became part of the arts. The reason why he thinks so is that artists can access to the recording technology and entirely work with sound as the medium of an art. Before 1970s, sound in art works was limited to recording a live event. He points out that this limit makes artists reluctant to use sound in creation of artists' works. His assertion has accounted for the status changes of sound in the arts since 1970s.

배경음을 통한 실험적인 시도

“포그혼”의 소리는 바다의 이미지와 함께, 혹은 이미지와 따로 떨어져서 듣는 이에게 사유의 공간을 형성한다. 복도라는 외부 공간에 홀로 설치된 사운드는 배경음이 공간에 부여하는 “색조”적 역할을 연상시킨다. 소리의 “색조”는 음악가이자, 예술가인 브라이언 엔노(Brian Eno)에 의해 화자 되었는데, 이는 데이비드 톱(David Toop)에 의해 “오션스 오브 사운드”에서 언급되었다. 톱은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배경 음악의 역할에 대한 엔노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어느 공상과학 소설의 저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상상력의 중심부에는 현재-일상적 현실의 응집이 존재한다. 배경 음악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 대부분은 여가를 추구하는, 아주 섬세한 종족의 분류, 주로 전통적인 분류에 의한 것이다 : 하이테크 레스토랑은 1955년도와 1965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재즈 음악을 틀며, 나무와 포스터 바는 소위 “뿌리” 그리고, “세계적인” 음악을, 펄은 70년대 팝송을, 인디언 레스토랑은 발리우드 영화음악을(...)” 엔노는 배경음이 우리 일상에서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며, 그 목적과 구분 방식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그는 다음과 같이 “아마추어 향수 제조자”. “이러한 모든 활성화 요소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 이는 무장해제된 상태이자, 걱정스러운, 혹은 마음을 뺏긴 노예의 상태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 점점 더 관심과 활동의 주된 대상이 부재하는, 표류 중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있는 것이다. (...) 나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아마추어 향수 제조자가 되어, 수많은 재료로 가득한 거대한 도서관을 향해 호기심 가득 찬 손길을 뻗는 가운데, 각자가 자신의 용도에 적합한 조합을 실험해 보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 경험을 모으는 - 더 나은 추측을 형성하는 가능성을 어떠한 확실성에 대한 요구도 없이 말이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 1) 칼렙 켈리(Caleb Kelly) 발행, “사운드(Sound)”, 2005, 67쪽, - 윌리엄 필롱(William Furlong), “최근 예술에서의 사운드”, 1994.
- 2) 구성, 조직, 혹은 섬유의 배열 형식·방향으로써 결, 직조가 촘촘한 천, 혹은 촘촘한 결은 “close textured”라는 단어로 작은 구멍이 없는 촘촘한 빵의 형태를 나타내는 제빵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 3) 칼렙 켈리 발행, 2005, 68쪽.
- 4) 칼렙 켈리 발행, 2005, 69-70 쪽. 크리스토프 콕스는 7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운드 아트가 예술작업과 미술 전시, 미술관과 갤러리, 대학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짧게 요약하여 보여준다. “크리스토프 콕스: 음악에서 사운드로: 소닉 아트에 있어서 시간으로써의 존재”를 참조.
- 5)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포그혼” 작업의 두 개의 다른 설치 방식(전시장 안의 영상과 사운드 동시 설치와 복도의 사운드 설치)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방식이 아니었음을 밝히기도, 그 결과로써, 공간이 지닌 특성에 의한 사운드의 반향에 대한 만족을 표하기도 했다.
- 6) 데이비드 톱, 사운드의 해양, 2018, 13쪽.
- 7) 데이비드 톱, 2018, 14쪽.

An experimental attempt through a background sound.

The sound of a Foghorn provides a private space to its listeners, who hear the sound with and without seeing an image. The sound solely installed in a concourse reminds of the role of a color tone that a background sound offers to the space. The term, the tone of sound, becomes known to the public by a musician and an artist Brian Eno. This expression is mentioned in Oceans of Sound by David Toop. He accounts for the roles of background music prevailed in current everyday life as he quotes Eno, “like an author of a sci-fi fiction, in the center of his imagination there is a concentration of current-daily reality. Background musics exist everywhere. Most of them are conventionally categorized by the purpose of leisure and very delicate classifications. A high-tech restaurant plays a Jazz music in order to create the moods of 1955 or 1965. A wood and poster bar plays Root and world music. Pubs plays Pops in 70s. Indian restaurant plays Bollywood OST music.” As Eno criticizes that the selection of background musics are not random but intentional in connection with purposes and classifications, he insists serious considerations. Further, he asserts, “an amateur perfume maker. If it lacked serious considerations about these vitalizing aspects, it can be a disarmed condition, the condition of being worried, thoughtless or enslaved...in short, we...simply live day by day without main objects of our interests and activities and directivity. I therefore have an excessive pleasure to see that we all become amateur perfume makers, vigorously reach out to a huge library filled with enormous ingredients and observe experiments to come up with proper combinations.-compiling experiences-possibilities to result in better assumptions-without asking certain reliabilities.

An Abstract of a Review by Byun, Ji-sue, critic

...20cm | 55cm | 20cm... : 역행 ... 20cm | 55cm | 20cm ... : Reverse
사운드, 46개의스피커바, 오디오케이블, 앰프, 11m x 8.2m (가변크기)
sound, 5'6"(loop) 46 speaker bars, audio cable, amplifier, 11m x 8.2m (dimensions variable), 2019





알음다움1
162.2 × 130.3cm, Acrylic on Canvas, 2019



어떤 이의 자리
90.9 × 72.7cm, Acrylic on Canvas, 2019



Two Plus One
116.8 × 80.3cm, Acrylic on Canvas, 2019

비 – 장소를 걷는 순례자

이양현 미술비평

동굴에서 시작되어 픽셀로 이어지는 회화의 역사는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미술의 장소로서 여전히 캔버스와 물감이라는 물적 지지체, 형식주의의 모더니즘, 그 린다는 수행적인 행위 안에 위치하는가.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회화는 끝없이 변주하며 확장하는, 정답 없는 질문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주체의 심연 혹은 끝없이 유동하는 풍경과 때로는 매우 닮아있다. 동시에 회화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종의 3차원이 결국 2차원으로 환원되는 일종의 지도처럼 보이지 않는가. 어두운 미궁에서 벗어나거나 순례의 방향을 지시하며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지도 말이다.

A Pilgrim Walking in Rain-Place

Lee, Yang-hun critic

Where does a painting history go, the history starting from a cave and moving to pixels? Is the painting, as the most essential place for visual arts, still located in material supporters named as canvas and paints, a formalist modernism or a performative action named as drawing? At least one thing seems to be clear. The painting exists in the form of requiring persistent changes, expanding and having no definite answers. So, the painting sometimes looks like an abyss of a subject without limits or a landscape in consistent changes. Maybe the painting can be a lead to get into the abyss. It looks like a map to bring back two-dimension from three-dimension, does not it? It is the map that tells an artist about the direction of pilgrimage to get out of a maze and leads to his destination.



알음다움2
162.2 × 130.3cm, Acrylic on Canvas, 2019

성필하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 강박적인 반복과 강렬한 색채로 주체의 징후적 상태를 그려왔다. 아마도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존재자 혹은 특정한 구조적 소외로 빚금 처진 주체의 자리. <난생> 시리즈(2017)는 영구적인 불안정성과 반성적 무기력증, 전례 없는 냉소주의를 표면화면서 동시대의 정서적 초상을 그려내는 듯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복잡하게 얽힌 다이어그램으로 실존적 주체로 향하는 길을 낸다. 강렬한 보색 대비를 이루는 패턴과 질감은 대타자로 지탱되는 환상, 욕동의 그래프, 정동의 강세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연결망으로, 우리는 그 패턴들 사이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무엇을 욕망하고 또한 좌절하는지, 그 불안의 근원에 대해 감각하게 된다. 부재의 장소를 지시하던 그의 회화는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바깥에 놓인 세계의 이미지가 주관적인 관여로 매개되는 외부의 대상, 단순히 풍경으로 환원할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한 순례자의 운명. <변두리 풍경> 시리즈는 사람들에게 잊힌 장소로 향하는 여정을 보여주는데, 특히 시리즈의 한 작품에는 이미 비-장소가 되어버린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순례자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이는 이전 작 <Shower>(2018)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내부로 바라보던 시선은 외부로 역전되고 길의 형상은 자신 안에 머무는 대신 풍경 밖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순례는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무언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The artist, Pil-ha Seong, has depicted the indicative conditions of subjects with compressive repetition and intensive colors in his previous works, the subjects, who were unable to accept a world order or that were an outcasted position by certain structural alienation. His series, Oviparity(2017), seem to describe a contemporary emotional portrait as revealing a perpetual instability, a remorseful incapability and sarcasm. But, as scrutinizing his works, the portrait leads to an existential subject as a complicated diagram. As the audiences follow the gaps of the patterns, they are able to detect their ambitions, despair, the sources of their anxiety, illusions supported by substitute patterns and textures made by the contrast of vivid complementary colors, the graph of desire, an index and a linkage showing the strength of an affection. His paintings pointed out the place of absence before and now lead to a different direction. His series of works, Suburban Landscape, reveal a journey to forgotten places. In particular, one of the series depicts a pilgrim on the middle of the road where is no longer considered as "a place." This is an exact opposite to his previous work, Shower(2018). His sight towards an inside becomes reversed. The shape of the road extends to the outside of the landscape, rather than staying within itself. It is uncertain what he will find there. But, it is certain that his journey already started and ultimately he will run into something.

이 고요한 여정 안에서 작가는 무엇을 보고 또한 그려내는가? 《각자의 빈틈》은 순례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그 벌어진 틈 안에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너무 흔한 사물들, 혹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침묵 속에 가려진 존재들이다. 작가는 이들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려낸다. 단 순히 재현이나 강조를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를. <알음다움1, 2>(2019)이나 <주인 없는 자전거>(2019)에서 푸른 녹음과 풍경 사이로 이 비가시적인 존재들은 오직 부재로서 현시할 따름이다. 비-존재는 그 텅 빈 역설로 인해 가시화되면서 화면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다. 마치 그런 방식으로만이 이들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듯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고향을 찾는 순례자는 '상실로서의 작업'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주체 내부에서 길을 잃고 광활한 풍경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맨다. 그러나 가끔 어떤 그림은 그 방향을 끝내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한다. 성필하의 회화 안에서 부재의 형상들이 이정표로 빛나며 어렴풋이 길을 비추고 있다. 또 다시 다른 순례가 이제 막 시작되려하는지도 모른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In his work, A Gap of Individual, the artist overtly suggests what pilgrimage is for. There are somethings in the gaps between one image and another. The somethings are ones accustomed to the audiences or *Dasein* stayed and undetected in the same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artist gazes at *Dasein* and stubbornly describes it, *Dasein* that is not overt by a simple reenactment or emphasis. In his works, Al Eum Al Eum 1, 2(2019) and No Man's Bicycle(2019), the invisible ones can reveal themselves through their absence. Non-existence emits the brightest in the canvas as it becomes vivid by a meaningless paradox, just as this method can show only the truth of the road. In the works of the artist, Pil-ha Seong, absences are directions vaguely illuminating roads. This may imply that another pilgrimage is about to start.

An Abstract of a Review by Lee, Yang-hun, critic

돌아가는 길
162.2 × 112.1cm, Acrylic on Canvas, 2019



성필하 Pilha Seong

섬사람. 숲 쉬는 사람 SUMM-ER
혼합재료, 가변크기, 경기창작센터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Gyeonggi Creation Center, 2019



긴 이야기를 짧게...., Long story short...,
캔버스에 아크릴, 유채, 130x97cm +130x97cm
acrylic and oil on canvas, 130x97cm +130x97cm, 2019

확장되는 매체의 시작, 회화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대표

안상훈 작가는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경향 안에서 자신의 회화를 독립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그는 대상에 대한 표현을 전통의 회화에서 다루어 온 재료, 기법, 대상화 방식을 이어가는 점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회화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전승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회화의 가장 강력한 성격인 '평면성'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거나, 이미지와 텍스트와의 관계 맺음에 관객을 개입시키는 등의 시도를 통하여 회화가 가지고 있는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상훈 작가에게 있어서 회화의 평면성은 공간과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공간 설치로서의 회화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캔버스 작업이 all over painting으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표면에 그려진 이미지 그 너머의 확장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작가는 주어진 공간에 이미지를 채우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평면이 설치될 벽면, 벽면을 연결하고 있는 바닥, 벽과 벽 사이의 건축적 요소,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관람객의 동선 등은 모두 안상훈 작가의 작업 요소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The Beginning of an Expanded Medium, Painting

Kim, In-sun critic

The artist, Sang-hoon Ahn, continues to explore and study in order to put his paintings in an independent position in the 21st century contemporary visual art. It is no doubt that the ways that he deals with materials, techniques and objects exactly follow conventional painting methods. At the same time, he invents methods to expand the coplanarity, one of the strongest characteristics of paintings or suggests the possible expandibility of paintings through his audiences' involvements in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images and texts. To the artist, the coplanarity functions as a factor to composited a space and a structure. Besides a painting as a spatial installation, he uses a method called "all over painting" at a work on a canvas. His works are not different from this trend as he makes an expansion possible beyond the superficial images on the paintings. The artist has done a several works in the way that he has filled up with images in a given frame. The artist exposes a wall displaying a painting, a ground connecting the wall, architectural elements between walls and the flow of audiences as his working elements.



안쓰, 내일의 감각 Ahn's_ The senses of tomorrow
설치 + 사운드, 가변크기(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2019)
installation view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2019), 2019



솔직히 나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To be honest I could not have predicted what would come next
비닐에 페인트, 스프레이, 가변크기 (어긋나는 생장점, 문화비축기지, 2019)
paint, spray on vinyl, dimensions variable (Uneven Growing Point, Culture Oil Tank T1, 2019), 2019

창문을 여니 바람이 불어왔다 外 I saw the wind, etc.,
대부도와 수림문화재단에서 수거된 현수막 위에 수성페인트, 스프레이 + 가벽에
수성페인트, 아크릴판, 스프레이, 전시준비장면 (수림미술상, 수림아트센터, 2019)
mixed media, installation view (Surim Award, Surim Artcenter, 2019), 2019



2018년도에 진행하였던 <모두와 눈 맞추어 축하인사를 건네고 (Embrace the Uncertainty)>는 인천아트플랫폼이라는 건물 구조가 가진 특징을 살려서 관객의 시선을 고려한 이미지 배치를 구상하였다. 특정 구조물 속에서 공간의 해석을 통해 레이어를 발생 시키고 관람객의 동선과 시선을 유도하며 풍경이나 주변의 사물로부터 즉흥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 과정은 퍼포먼스적 행위에 가까워지고, 결과물은 해체되거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안상훈 작가가 회화와 공간에 대한 관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다양한 전시들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작가는 비닐, 텐트천, 현수막 천, 합판 등 전통적 회화의 지체체가 아닌 것들을 활용하고, 전시장에는 회화 작업 동안 물감을 섞어보고 비슷한 색을 비교해보곤 하는 용도의 팔레트 역할을 한 아크릴 판넬 파편이 놓여지기도 하다. 그는 작업과 정에서 생긴 물감 자국, 색상 실험을 위한 과정들, 재료에 대한 연구 등 이 모든 것을 결과물로 수용한다. 이는 회화를 통하여 시간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로도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간성을 반영한 프로젝트가 2017년도에 진행한 <롤링 드로잉>이다. 이는 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작가 LEIMKÜHLER NILS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몇 달 동안 40여 개의 드로잉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이었다. 이후에도 2018년도에 시도한 <윈도우 매일매일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작업 모습을 현장에서 드러내면서 설치 장면이 전시 기간 동안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 2018년도 전시 <My shoes are a bit more colorful>에서 갤러리 조선 공간 속을 가로지르는 비닐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동선에 따라 같은 이미지를 여러 방식으로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등 현장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제시하였다. 그는 2017년도에 <GOOD; PAINTING>프로젝트에서 전시장 사면에 얇은 페인트 비닐을 설치하고 그 위에 회화 작업을 하면서 특정 재료와 방법론이 지닌 회화의 보편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실험하기도 하였다. 작가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속에서 일시적이면서도 해당 환경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앞서 살펴본 텍스트에 대한 반응과도 연결되어 보이는 이러한 감각은 작가에게 좋은 페인팅이란 무엇이며 이에 반하는 나쁜 페인팅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고찰을 끌어낸다. 그는 좋은 회화라면 오래 이려야 한다는 전통성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경향을 형성해 나갔을 것이다. 안상훈 작가의 작업이 퍼포먼스, 설치, 개념미술 등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 작가로 분류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이는 작가가 의도하고 있듯, 회화를 통하여 확장적 동시대적 위치를 획득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His work, Embrace the Uncertainty(2018), is carefully displayed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a structure of Incheon Art Platform and his audiences' eye tracking. He creates layer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 space of a certain structure, leads the flow of his audiences and their eye tracking and creates instant images from a landscape or objects from surroundings. These are close to a performance, and the ramifications are *deconstructed* or recorded. His intention in vigorously expanding the relativity of paintings and spaces becomes much clear at his exhibitions. The artist uses the unconventional mediums, such as vinyl, tent clothing, banner clothing and plywood, in conventional paintings and displays pieces of acrylic plates used as a palette in his exhibitions. He accommodates all ramifications from paint marks, procedures to explore colors and study on materials for his creation. This seems to be his trial to realize temporality through his paintings. The work, Rolling Drawing(2017), is his full-scale work to manifest this temporality. This work is composed of forty drawings that he has created for several months while he has corresponded with Leimkühler Nils, a Berlin based artist. Since then, in 2018 his project, Window Everyday Project, revealed the changes of his installation scenes as he exposed his working conditions on site. He also offers the changes of landscapes hourly on site as he lets his audiences recognize the changes of images along with their paths. He tested the awareness of the conventional standards that certain mediums and methodologies were applied to paintings as he painted on a thin paint vinyl installed on a declined wall in an exhibition, GOOD: Painting in 2017. This sense leads to artist's contemplation about the standards of good and bad paintings. The sense seems to link to reactions towards an atmosphere that the artist can have experience on site and previous texts temporarily operated in a designated circumstance. As he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the conventional thinking of a good painting, the artist constructs his contemporary tendencies. Despite the fact that he actively adapts his works to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 installation and conceptual art, on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he is still classified as a painter. This is a phenomenon that can consistently verify possibilities to achieve an expandible and temporary status through his paintings as he intends.

An Abstract of a Review by Kim, In-sun, critic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Before Your Very Eyes
360 VR 장비, 전망대, EL 테이프 설치
360 VR gear, observatory, EL tape installation, 2019



당신의 눈앞에 (영상 스틸)
Before Your Very Eyes (still image)
360 VR 컴퓨터 그래픽스 비디오, 2분 30초
360 VR computer-generated video, 02:30, 2019

이음새 많은 세계의 탁월한 VR: 이병수의 전시 〈이음새 없는 세계〉 비평

곽영빈 미술비평가/영화학박사

이병수의 신작 전시 '이음새 없는 세계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를 오해하는 첩경 중 하나는 이를 최첨단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물질주의적 사례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전시장 지하의 가장 큰 공간에 배치된 VR 작업인 <당신의 눈앞에 Before Your Very Eyes>(2019)를 전시의 제목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식으로 구현된다. 다시 말해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를 구현한 후자는 '이음새 없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 다거나 물질 없는 비물질적 정보의 세계에 발을 내딛게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오해만큼 이번 전시에서 동떨어진 것도 없다. 어떤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번 전시의 제목은 아이러니한 것인데, 이는 <당신의 눈앞에>에 쓰인 VR 헤드셋에서부터 감지 가능한 것이다. 이 작업이 VR 작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머리에 쓰고, 일종의 착탈식 테이핑을 통해 작동하는 대부분의 HMD(Head-Mounted Device)와 달리, <당신의 눈앞에>가 의존하는 VR 헤드셋은 대단히 기본적인 것이다. 거기엔 그 어떤 스트랩이나 끈도 없다. 전시 전 가진 사전 미팅에서 이는 작가가 고백했듯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단순히 말해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물론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Remarkable VR in the Exhibition,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

Kwak, Young-bin critic

One of the shortcuts to misunderstand the messages of Byungsu Lee's new exhibition,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 is considered as an example of materialism towards cutting edge technology. This thinking reveals itself as the title of the work, Before Your Very Eyes(2019), become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n other words, the later work implementing Virtual Reality seems to lead his audiences to the "Seamless World" or make them step into an information world, the world of non-material. But this kind of misunderstanding has absolutely no relation to the exhibition. In a certain, yet fundamental meaning,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s ironic. This can be identified from a VR headset in the work, Before Your Very Eyes. It is no doubt that the work is made for virtual reality(VR). But, unlike most HMD(Head Mounted Device) with a removable tape, the VR headset used in the work, Before Your Very Eyes, is very basic. There is no strap or string. This is intentional, just as he confessed at a preview meeting before the exhibition, His VR headset is made so in order to remove excessive steps. Of course, this is not that simple.



이중 구속 (영상 스틸)
Double Bind
360 VR 컴퓨터 그래픽스 비디오, 3분 20초
360 VR computer-generated video, 03:20, 2019

여기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수반되는데, 그것은 관객들이 거추장스러울 거라 생각했던 일종의 '장치'를 제거한 이 '장치'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작가가 전시 기간 동안 직접 목격하고 여기에 지인들의 관찰을 종합한 바에 따르면, 적지 않은 수의 관객들은 작품 초반에 계단 구조물에서 내려오곤 했다고 한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작업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수의 관객들은 문제의 플라톤 두상이 등장하기 전, 출렁이는 물결만이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내려와 버렸다. 여기서 역설적으로, 작가가 '거추장스럽다'고 간주해 제거했던 HMD, 아니 '끈'의 구속성이 중요해진다. 결론의 일부를 미리 앞당겨 말해두자면, 이러한 구속성은 예를 들어 똑같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느냐, 아니면 자신의 랩톱이나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보느냐를 가르는 차이와 다르지 않다. 담론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는 이른바 '미디어 고고학 media archeology'의 문제 설정으로서 한때 프리드리히 Kittler와 같은 이들이 디지털을 통해 사라질 것이라 단언했던 미디어의 물질적 장애물들, 아니 장애물로서의 미디어 또는 매체라는 문제 설정을 다시 소환한다. 도입 초기, 그저 관객이 다시 보고 싶어하는 장면으로 쉽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고안되었던 DVD와 영상 클립의 캡터 설정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작가 *auteur*'로서의 영화감독들의 '편집'권과 권위를 뒤흔드는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끈'의 구속성이 중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이러한 물질적 구속성을 분명히 자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중 구속 Double Bind>이다. 여기에서 역시, 준비된 망원경 형태의 장치 안에서는 VR 작업이 상영되지만, 그 '가상적' 이미지는 해당 관람 장치는 물론, 바깥에서 해당 영상을 관람하는 관객의 육체와 정확하게 연동하면서 방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라는 데에 있다. 두 개의 망원경형 VR 관람 장치가 180도로, 즉 두 명의 관객이 함께 할 경우 서

Another irony is here. His audiences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 equipment itself, the equipment gotten rid of seemingly troublesome fun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rtist's and his friends' observations, many audiences step down from the stairs at the beginning stage. Of course, this seems to reflect the reactions of his audiences, who are disinterested in the work. But, many of them think that the VR repeats curling waves over and over till the head of Plato appears. So, the audiences step down. Here, ironically the restriction of a string becomes significant in his VR, the string regarded as troublesome and removed from HMD. Should part of conclusion were mentioned in advance, this restriction is no different from gaps resulting from watching the same movie at a theater, a laptop computer or a smartphone. In a discursive context, this calls back problem settings called media or medium as barriers, the materialistic barriers of media that once Friedrich Kittler asserted its disappearance by digital as problem settings of media archeology. Restriction by an insignificant string becomes important just as in the early stage DVD functioned as a device to easily watch the favorite scenes and a video-clip-chapter-setting basically worked as a means to ignore a director's right to edit and authority as an *auteur*.

However, besides the strap, an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artist overtly considers this kind of a materialistic restriction in his conscious. A work, Double Bind, is the one that condensedly shows the restriction. A VR work plays in a telescope shape equipment. But the virtual image is precisely linked to and disturbed by the device and the audiences' bodies. The problem occurs by not one person but two. Two VRs installed at the each end of the telescope shape device cause viewer's behavior according to the other viewer's action. Because his VR creates tensions with a VR work that can reveal images along

로를 마주 보는 형태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한 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른 한 명 역시 이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서치라이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대상이 보이거나 안 보이는 VR 작업과 흥미로운 긴장관계를 만들어내는데, 현실 공간에 있는 관람객(들)의 육체가 제대로 조응하지 않으면, VR 영상 자체를 제대로 향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전시는 '이음새 없는 세계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는커녕, 세계 여기저기에 불거져 있는 물질적 이음새, 또는 솔기를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물질적 한계에 대한 작가의 자의식은. 해당 VR 영상을 보다 보면 등장하는 문장이자 일종의 농담인 <선을 넘으려면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착용하십시오 Buy and Wear better gear if you want to cross the line>(2019)을 통해 다시금 물질적으로 구현된다. VR 영상 자체가 일종의 low-tech, 즉 최첨단이라기보다는 '보급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가가 이를 5개의 디지털 프린트로 만들어 전시장 1층에 걸어놓았다는 것이다. <당신의 눈앞에>와 같은 전시의 핵심 작업조차 끝까지 보지 못하고 자리를 뜬 관객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해당 작업이 <이중 구속> 안의 VR 영상 중 일부를 디지털 사진의 형태로 출력했다는 것을 파악한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 것인가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는 해당 디지털 프린트들이 아래의 작업들 이후에 배치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즉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 '사진'의 일환으로 전시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with the moves of a search light, if audiences' bodies in a real space were not able to respond accordingly, the audiences are not able to enjoy the scenes from his VR. As stating the above, this makes material seams spreaded everywhere obvious, rather than becoming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

The artist's conscious about material limits is realized through a sentence, as a joke, appeared in the scene, Buy and Wear Better Gear If You Want to Cross the Lines(2019). The scenes of the VR are made with "low-tech," rather than a cutting edge technology. This means that it is not a matter of funding.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artist makes it with five digital printers and displays it at the first floor of the exhibition hall. As considering that not many audiences stay till the end of the scene of the artist's pivotal work, Before Your Very Eyes, one can suspect how many audiences can tell that some of the images of Double Bind are printed as the forms of digital print. The digital prints look as if they were previously displayed as part of photos before, before the moment that the audiences realize the entire context, rather than displaying the digital prints after VR. This is neither because the explanation of the exhibition is ambivalent nor because the intention of the artist is failed. For instance, if an instruction is provided for the audiences as stating, "do not take off your head set till an image appears around the work, Before Your Very Eyes." Then, is not it useful? It is not certain that the audiences will watch the entire scenes. But, at least, in relation to the strap, the materiality of a VR effect disappears. Perhaps, most of the audiences simply think that there are some relations from the title of the exhibition,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 with the scenes from the VR and leave the exhibition without being aware that it is another VR exhibition.

이중 구속 Double Bind
360 VR 장비, 철 구조물, 100 × 50 × 150cm
360 VR gears, steel frame, 100 × 50 × 150cm, 2019





선을 넘으려면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하고 착용하십시오
Buy and Wear better gear if you want to cross the line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 37 × 37cm 5개
digital pigment print, 37 × 37cm 5ea., 2019

나는 이것이 전시의 소개가 모호했기 때문이라거나, 작가의 의도가 실패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의 눈앞에> 근처에 '헤드셋을 쓰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물체가 나타날 것이니 그전에는 벗지 마시라'라는 설명서가 있었다면 어떨까? 그것을 끝까지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때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던 '관'의 유무와 그에 따라 연동하는 'VR 효과의 물질상'이라는 문제는 도드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음새 없는 세계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라는 전시의 제목과 자신이 본 VR 영상을 '이음새 없'이 연결시키고 별다른 감흥 없이, 즉 '또 다른 VR 전시로군'이라는 생각을 되뇌며 자리를 뒀을 것이다. 하지만 이병수의 이 전시는, 역설적으로 VR의 최첨단이 아니라 그것의 '보급형' 테크놀로지의 구현을 통해 VR이 만들어내는 '도약 leap'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당신의 눈앞에>의 정점이라 할 플라톤의 두상이 바다 표면에 떠있다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순간을 생각해보라. 나는 이 지점에서 내가 좀 전에 별다른 생각 없이 올랐던 철제 구조물 계단의 난간을 꼭 잡는 나를 의식했는데, 이는 아주 우스우면서도 두려움을 동반하는 경험이었다. 여기서 전자의 정동은 바로 옆 구석에 배치된 <우울한 렌더링> 영상을 볼 때 강화된다. 이에 반해 후자의 정동은, 만약 내가 쓰고 있던 헤드셋이 일반적인 HMD처럼 스트랩으로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다면 그리 강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소위 '이음새 없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또 헤드셋을 쉽게 떼어낼 수 없는 VR 작업이라면, 관객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을 구조물 높이로 올라가는 설정 자체가 제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병수가 고안한 '착탈식 VR 헤드셋'은 영상 속의 자신과 두상이 물에 잠기는 순간 관객이 구조물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의 느끼게 될 높이를 '몰입형 HMD'보다 역설적으로 더욱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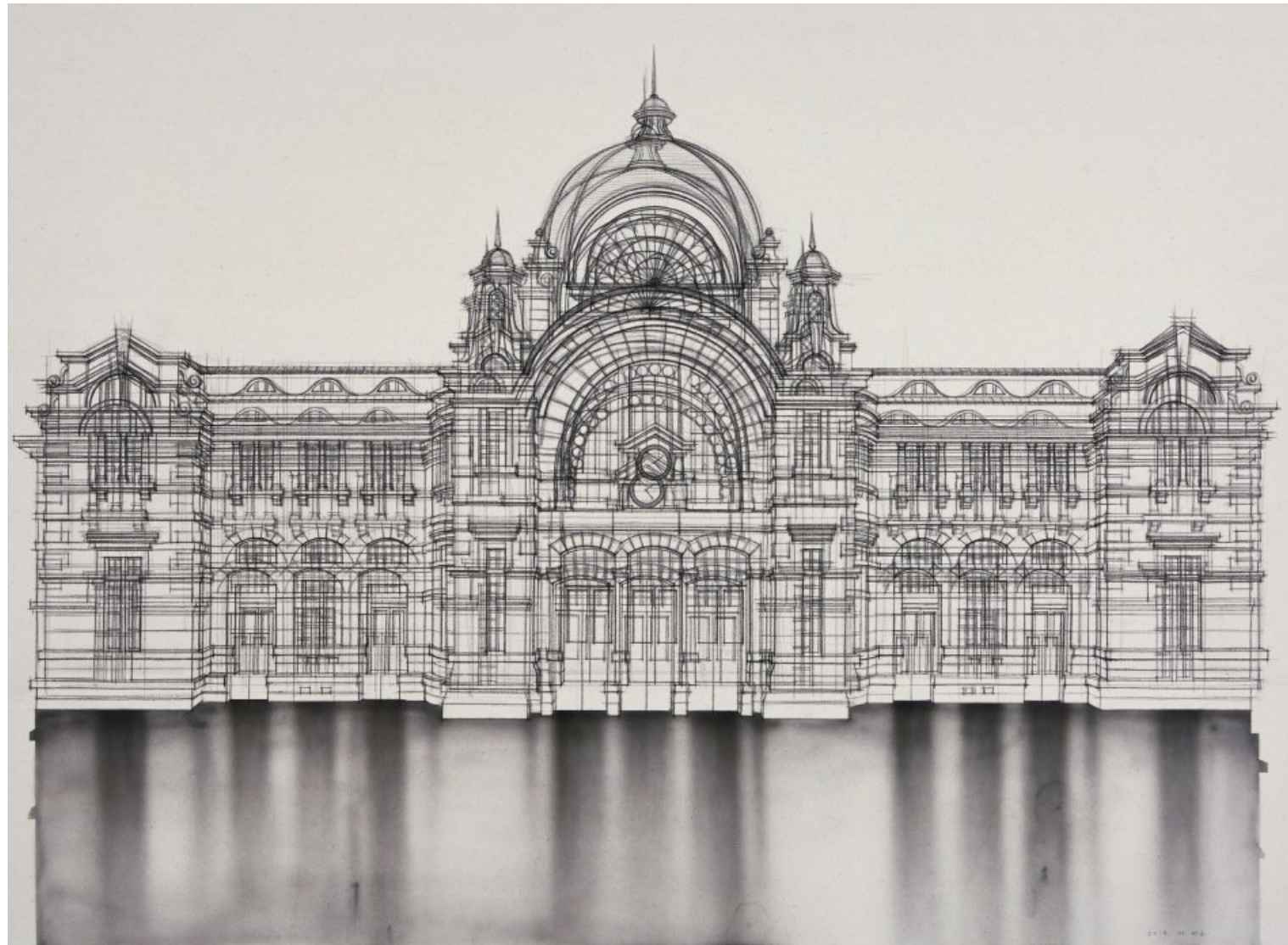
이러한 역설은 전시장 초입에 배치되어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 전시장을 나서는 길에 (다시) 보게 될 <스크린 케이브>(2018)를 통해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게 된다. 오래된 모델의 수상기 안에서 세 명의 버추얼 캐릭터가 스크린의 사각형 안에 갇힌 것처럼 돌아다닌다. 버추얼 한 대상 혹은 존재가 오래된 수상기라는, 물질적인 장애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이 단순한 작업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VR의 효과 자체가 물질적인 이음새의 부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도드라짐을 통해 강화되거나 구현된다는 역설을 효과적으로 웅변한다. 나는 이병수의 이번 전시가 최근 몇 년간 전시장을 관류하며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일련의 VR 전시들을 완전히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다음 전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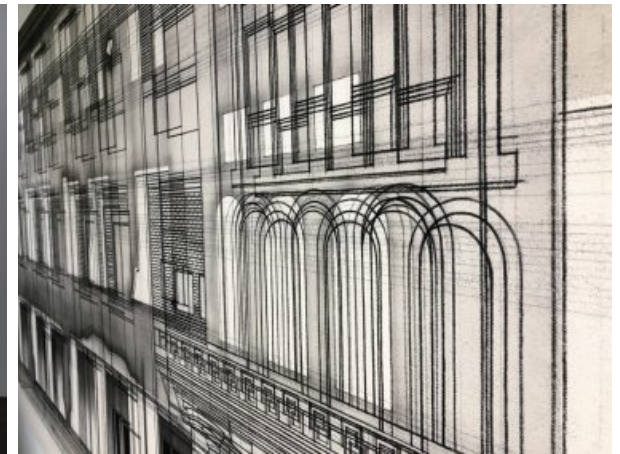
On the other hand, the exhibition of Byungsu Lee manifests its leap, the leap realized by a low-tech VR. Think about the best moment of the work, Before Your Very Eyes, when the head of Plato floats on the surface of the sea and submerges. At this point, I, as a critic, am aware that I grasps a side bar of iron stairs, where I step on without any hesitation just before. This makes me smile and feel scared at the same time. The affection of the sooner becomes intensified when seeing scenes from the work, Gloomy Rendering, on the corner. On the other hand, the emotion of the later cannot be that much strong if a head set were perfectly sealed off by a strap just like a regular HMD. If it were strong enough to create a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 and if it were hard to take off the head set of the VR work, the setting could not be valid, the setting that the audiences can climb up to the high structure and possibly result in a fall during their move. In other words, paradoxically the removable VR head set, invented by the artist, is much more effective than an immersive HMD in sensing the height of a structure. This paradox is fully recognized at the Screen Cave(2018) located near the entrance, yet visited by the audiences on their way out. In an old TV, three virtual characters move around as if they were captured in a square screen. As an object or *Dasein* to be virtualized is isolated in a material barrier called old TV, this simple work effectively stresses that a VR effect not comes from the absence of a materialistic seam but is reinforced or realized by the obviousness of it. The artist Lee's exhibition greatly contributes a big leap to arrive at the next stage to stalled VR exhibitions in recent years. This is why his audiences should wait for his next exhibitions.

An Abstract of a Review by Kwak, Young-bin, critic

monument-서울역3 monument-Seoul Station3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130 x 192cm, 2018



mirage-노동당사 mirage-Labor Party Office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145 x 435cm, 2019



mirage-노동당사 부분

이여운의 건축물 그리기에 대한 단상들

이인범 상명대 조형예술학과 교수

2019년 작 <노동당사>와 <농산물검사소>

최근 화가 이여운의 건축물 그리기 작업은 38선 이북 철원지역에 위치한 북한 <노동당사>(2019), <농산물검사소>(2019)였다. 공동 프로젝트 <신기루-경계 공간을 바라보는 다중의 시선 mirage_multiple gages on liminal space> 즉, “이데올로기적 경계선들의 타당성에 질문을 던지며 문화 예술이 집행되고 보여지는 정치사회적 경계적 메커니즘을 해체 재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두 동료 작가들과 함께한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이 작업들은 ‘한국전쟁의 상징이자 분단의 기호’인 DMZ를 소재로 ‘충돌과 단절을 넘어 소통과 공유,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일제강점기 말에 건축된 <노동당사>나 <농산물검사소> 건물은 해방 후 한동안은 김일성 치하에서 노동당사 같은 권력을 작동시키는 공적인 장소로 사용되었다. 한국전쟁 후 우리 쪽 관할이 된 후 복원되어 보존되고 있는 근대기 건물들이다. 두 작품은 이들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데, 그 결과물은 마치 지질학자나 고고학자들이 깊은 지층을 탐사하고 사물들 접근하듯이 건물에 각인된 그동안의 인간의 삶과 세월의 층위들을 투시하여 중첩시키고 있다. <농산물검사소>의 경우, 최근 복원된 모습, 복원 전의 전쟁시 폭격으로 송송 구멍나 얼룩진 모습, 그리고 이제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인적이 끊긴 채 자연의 복원력으로 풀들로 뒤덮힌 광경 등 시간의 전개에 따라 변해 온 건물 모습들을 동일 화면에 단층 촬영 필름같이 오버랩 시키고 있다. 건물을 그리되 시간의 단층들에 파고들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당사> 역시 다르지 않다.

Fragmented Thought about Drawing a Structure

Lee, In-bum Ph.D., critic & professor

Labor Party Building and Agricultural Quarantine Station

Recent works of the artist Yuwoon Lee are drawings of Labor Party Building(2019) and Agricultural Quarantine Station(2019) located in Cheol-won beyond the 38th Parallel, a place used to be part of the North Korean territory. A joint project, Mirage_Multiple Gages on Liminal Space, is the ramifications of two artists, who raise issues about the validity of ideological boundaries, dismantle and reconstitute political-societal and economical mechanisms that arts and culture are executed and projected. This work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communication-sharing and cooperation-coexistence beyond clash-disconnection through a subject, DMZ, a symbolic word of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Labor Party Building and Agricultural Quarantine Station built in the late Japanese occupation period became public spaces symbolizing power under the communist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Conflict, those buildings belonged to South Korea and reconstructed and preserved as modern historical buildings. The two works seem to approach to the truth, and the outcomes project and superimpose human lives with the layers of years inscribed on the buildings just as a geologist or an archeologist explores deep layers of earth and approaches to objects. Two artists create art works as overlapping several images of the Quarantine Station, the images recently reconstructed, of a shaky structure as the remains of the war and of a abandoned structure covered with vegetation after being a no-man's land. The art work on Labor Party Building is not different from the art work of the station in terms of digging down the layers of time while drawing a building. In case of the Agricultural Quarantine Station, the artist juxtaposes the changes of the building through time with the images of a recently renovated structure, of decayed building with lots of bullet wounds and of a building covered with vegetation after no one visited on

애초에 벽이나 공간들로 틀 지워진 건물의 미학적 조건들, 포탄이 관통한 자국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사체들로서 건물에 다가서는 작가의 시도에서 풍경화들에서 흔히 접하게 마련인 정서적 태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그 겉모습은 실용적으로 쓰이거나 고증하기 위한 조감도 같다. 그런데 우선은 마치 18세기 중엽 달랑베르, 디드로의 『엔사이클로피디아』에 게재된 도구나 연장 같은 인위적 사물들 그림 도판들이 그렇듯이 공간적인 전후 맥락을 소거시켜 순전히 건축물에만 집중케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런데 건물의 물리적 변주를 각기 다른 시간적 역사적 레이어들로 중첩시켜, 급기야 한반도에서 전개된 여러 사건들 즉, 식민피지배, 해방, 이데올로기 분열과 남북 분단, 6·25 한국전쟁, 통치 권력의 격동 같은 민족 공동체가 근대기를 거치며 겪었던 다양한 문화적 기억들을 한자리로 불러낸다.

그 자체로 건축물을 그리는 일

이러한 시도가 작가에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알다시피 이여운 작가의 관심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줄곧 건축물이나 도시 경관 그리기에 쏠려있었다. 태어나 몸담아 살아온 서울. 뿐만이 아니라 도쿄, 뉴욕 같은 동시대의 지구촌 메트로폴리스 풍경들. 아시아, 유럽의 오랜 궁전이나 사찰, 성당, 교회 같은 종교적 상징물들. 시청이나 역사(驛舍), 기념비적인 문, 중앙은행 같은 공공 건축물들, 가옥이나 거리… 이여운의 예술적 이슈는 인간들이 이룩해 온 다양한 건축적 행동들을 향했었다.

이들 건축물이나 도시 풍경이란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자 건립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공물들이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대로라면, 죽을 자들로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진 인간들 이라면 집을 짓는 일은 더더군다나 이 대지에 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건립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무엇이다. 그러한 건축물들을 향하여 한 화가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일은, 따라서 인간이 이룩한 문명 자체에 대해 목상적 태도를 갖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시선을 그토록 오래 낚아채는 힘은 어떤 것이었을까? 끊임없이 중첩된 필획의 먹 선들로 이루어진 화면은 인고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감미로운 색채도 빛도 거세되어 정서적인 등가물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건축물 그리기는 단호하게 마저 보일 정도로 극도로 절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것들 모두가 일체의 변주가 억제된, 정제된 직선들로만 된 조형성과 구조의 탐구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평론가 심상용의 언급은 적절해 보인다. 그래서 그 건축으로 규정된 장소와 공간에서 벌어졌을 이 나라의 근대사의 사건들에 대한 목상으로 다가서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들이 꿈꾸고자 했던 것들을 향한 엄정하고 냉철한 자기 검토 작업 같기도 하다.

처음부터 줄곧 그렇게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다. 애초엔 다만 자신의 소외와 고독이지, 자신을 그렇게 내곤 삶의 조건으로서의 도시나 집 자체가 관심사였던 것 같지는 않다. 도시 건물들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우기 일쑤이다. 그런데 <고독이 당신을 덮칠 때>(2002) 연작들이나 <자학하다>(2003),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2003) 같은 작품들에서 그것들은 단지 무의식적 허상을 지시하는 작가 자신의 그림자를 위한 배경 정도로 채택된다. 그래서 도시적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다룬 자화상 정도로 읽힌다.

the same canvas like a tomography. In terms of Labor party Building, her drawing practices the same idea, drawing the building, yet digging in the layers.

The artists' emotional attitude usually identified in a landscape painting cannot be found when they deal the buildings with the aesthetic conditions initially framed by walls and spaces, cannon ballet wounds and temporal states vanished throughout time. The appearance of the works looks like a blueprint usually used for practical purposes or historical researches. As the artists get rid of spatial contexts around the buildings, their art works become impressive just like the illustrations of man-made objects such as tools and equipments showed an encyclopedia by Talember and Diderot in the 18th century. As the artists overlap the physical variations of the buildings with the individual layer of a different time and history, they call up various cultural memories at once, the memories of many incidents, Japanese occupation, emancipation, ideological disputes,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Korean War and the turbulence of power that Koreans have experienced in the modern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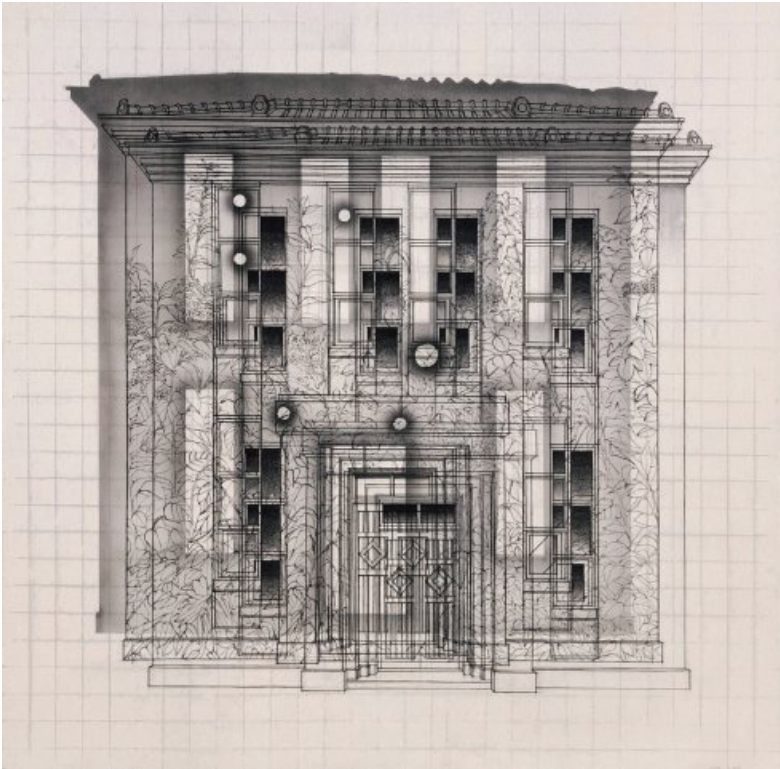
Works to draw the buildings as it appears.

The artist does not suddenly come up with this kind of drawings. As known, the artist Yuwoon Lee has paid attention to buildings and city landscapes since the year of 2000. The artist's artistic issues embrace diverse architectural activities that human beings have accomplished, the activities including contemporary metropolis landscapes of her hometown Seoul, Tokyo, New York, old palaces, religious icons such as temples, cathedrals and churches in Asia and Europe, public buildings such as city halls, train stations, monumental gates, central banks, or houses and streets.

Those buildings and city landscapes are man-made structures that human beings should construct to live. According to Heidegger, building a house is something that human beings, whose lives are destined to death, should construct for temporal dwellings in this land. An artist's consistent attitude towards these buildings is not different from contemplating civilizations that human beings have achieved. Then, what makes the artist devote to the buildings? A canvas filled with consistently overlapped ink strokes shows the process of her endurance. Nevertheless, sweet colors and light are castrated and one cannot find any emotional equivalents there. Her drawings show themselves extremely controlled as they appear to be adamant. At this point, a critic Sang-yong Shim's assertion seems to be adequate, the assertion that "it is all lined up to serve sole purpose to search for the formativeness and exploration of structures strained any variation and controlled lines." This encourages her audiences to consider incidents taken place in the places and spaces in the Korean modern history and seems to be a strict and sober self-assessment about things that human beings have dreamed of.

Her works of art were not persistent from the beginning. Initially, she mainly dealt with her alienation and loneliness. She did not seem to pay attention to a city or a house as living conditions that drove her into the situation. So, Her canvases were full of buildings in a city. But the buildings were taken as a background for her own shadow to simply point out unconscious illusions in her works, When Loneliness Sweeps You(2002), Self Torment(2003) and From What Point Do I Get Wrong(2003). Thus, they were regarded as her self portraits dealing with herself living in a urban life.

On the other hand, she carried on her work to explore her own house and space. Through



mirage 농산물검사소 mirage-Agricultural Products Inspection Center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145 × 145cm, 2019



금산사 미륵전 Mireukjeon of Geumsansa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130 × 162cm, 2014



기념비-경복궁 monument-Gyeongbokgung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81 × 162cm, 2017

기념비-광화문 monument-Gwanghwamun
캔버스천에 수묵 Korean ink on Canvas, 81 × 162cm, 2017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몸담아 사는 집과 공간 그 자체를 탐구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바라본다는 것-먼 풍경, 가까운 풍경>(2002), 그에 앞서 이미 <마음의 시선>(2001)에서부터 <Illusion>(2005)을 거치며 작가의 발걸음은 삶을 담는 그릇인 집들을 향해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소극적 공존>(2007), <그 속에 갇히다>(2007) 연작 그리고 <지하 밀실이 있는 방>(2008), <금암로터리>(2011)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작가의 예술적 이슈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화두에 다가서는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구조적이다. 그래서 이여운의 건축물 그리기는 매우 방법적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신을 포함한 인간 존재에 대한 피하기 힘든 철학적 물음을 그는 호모 파버(homo faber)로서 인간들이 집요하게 삶을 확립하기 위해 구축해 온 건축물들이나 도시 경관들 같은 인공적 세계를 향한 질문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화가로서 건축물들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질문하는 일 그 일은 인간의 구조와 동일시를 통해 건축을 논했던 비트루비우스나 '짓는 일(res aedificatoria)'을 근대적으로 일귀낸 알베르티의 건축론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의 존엄성을 정의하고자 하는 온갖 인위적 시도(ars)의 정점에 위치하는 것이 다름 아닌 집을 그리는 일 아닌가? 하지만 작가는 집 그리기로 거꾸로 우리의 삶을 조건 지우는 이 세상의 건축물들에 예민한 감수성을 발동시켜 가고 있다. 그 긴 여정에서 동시대 건축물에서 떠나 옛 <명륜당>(2011)을 그리며 하나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온갖 자연적 혹은 역사적 시련을 견뎌 낸 옛 건축물들을 그리는 일이란 그 깊이에서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일이다. <가회동 11번지>(2012), <서울역>(2014), <월정사 수광전>(2014), <기념비-경복궁>(2017), <기념비-서울시청>(2018) 그리고 베니스 살롱 오픈 스튜디오 작업으로 '베니스의 돌집들'까지 이어지는 옛 건축물들 그리기 작업들이 그의 작업에 고고학적 깊이를 갖게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들의 삶의 구조를 시간을 거슬러 그 핵심으로 들어가 실천해 내는 작업에 다름 아니었으니 말이다.

her works, from the Sight of a Mind(2001) to Illusion(2005), she changed her focuses on dwellings as a bowl to hold life. The artist's artistic issues were firmed through the procedures of her works, Passive Co-existence(2007) and a series of Incarcerated in It(2007), A Room with a Secret Chamber Underneath(2008) and Geum Am Rotary(2011). Her approach to the topic was very active and systematical. So, her drawings of buildings seem to be very methodical. Inevitable philosophical inquiries about human existence were replaced by questions about a man-made world, such as buildings and city landscapes, that human beings had persistently constructed in order to establish their lives.

Without mentioning Bithurubinius' notion of architecture, the notion that identifies architecture with a human body, or Alberti's architectural theory modernizing *res aedificatoria*, drawing a house is nothing other than a thing on a peak of all *ars* to verify nobility in life, is not it? The artist reversibly becomes sensitive to buildings that load conditions on human life when she draws dwellings. When she draws a former Myeong-ryun-dang(2011), which is far different from her contemporary buildings, during her long career, she encounters a turning point. Drawing old buildings survived through natural and historical ordeals is profoundly different in depth. It is no doubt that her drawings of old buildings, such as Ga-heo-dong 11(2012), Seoul Station(2014), Wol-jeong-sa Su-gwang-jeon(2014), Monument-Gyeongg Bok Palace(2017), Monument-Seoul Metropolitan City Hall(2018) and Stone Houses in Venice(a work for the Open Studio of Venice Salon), intensify archeological depth in her works. She retraces the patterns of human lives, touches the cores of them and displays them through her works.

집 그리기, 그 너머

건축물 그리기라는 종래의 작업들을 조망해 보면, <<신기루>> 프로젝트에 의한 <노동당사>와 <농산물검사소> 같은 작업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몇 가지 점에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들은 종래의 작업들에서 잠복되거나 혹은 유보되었을지도 모르는 작가의 예술의욕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지 슬며시 암시해 주는 것 같아서다.

무엇보다도 작가의 시선이 물리적 조건이나 조형언어로서 만이 아니라 인간사가 펼쳐지는 장소로서 삶 자체이자 문화적 기억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의 존재를 향했던 청년기의 물음들로 귀환하여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묻는 일 아닌가? 문학적 서사를 극도로 배제한 채 삶을 냉철하고 엄정한 조형언어로 환원시키는 작업들은 이제 삶 자체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심화되고 있다. 단순한 이미지 재현이 아니라 구도적 엄정하고 냉철한 구도적 수행으로 이어지던 건축물 그리기가 비로소 삶의 체온을 지니게 되는 듯하다.

이번 작업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일찍이 지필묵에 토대를 둔 수묵 산수화에서 예술적 이념을 가다듬고 기법을 닦으며 시작된 작가로서의 출발점과 관련된다. 예술적 타자나 다를 바 없는 건축물 그리기라는 먼 우회로를 거쳐 이제 작가가 다시 동시대적 언어로서의 한국화의 가능성을 열 여지 말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작품에서 실천되고 있는 성취들은 수묵화의 계보적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못 건축물들에서 삶의 본원적 형태를 탐색하는 거듭된 지적이고 드로잉적인 필획들은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캔버스를 기반으로 새롭게 경계를 넓히는 가운데 허공을 무수히 가르며 자신의 검법을 찾아가는 검사들의 행동을 환기시킨다.

한편, 인위적 세계와 대칭되는 한계 내에서이지만 작가의 시선이 다시 무위의 자연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 징후는 이미 고 건축물들과 나무 등 자연이 뒤얽혀진 생태적 진실에 마주하여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 등을 그린 몇 년 전의 개인전 <정글몽>전(2016. 9. 2~9.23, 갤러리 다온)에서 발견된다. "밀림 속에서 외지인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앙코르와트 또한 신과 인간의 경계, 동물과 식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건축물이다. ...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의 위대함에 전율을 느끼게 된다." (작가 에세이, 전시 카탈로그에서) 자신의 예술적 기원이 다름없는 수묵 산수화야말로 그 인위성의 경계 너머를 꿈꾸던 흔치 않은 방법에 다름 아니었을진대, 그렇다면 이제 다시 자연을 향해 던지는 작가의 물음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 우리의 삶의 장소가 하나부터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인공화되어 가는 이 시대에 건축물들이나 도시 공간을 그린다든 일, 그리고 산수를 향해 시선을 던진다는 일은 무엇이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 일일까?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입니다.

Drawing a house and beyond it

As thinking about previous works called "drawing a building," the artist message conveyed in her art works, Labor Party Building, Agricultural Quarantine Station and Part of Mirage project, become much clear. But, there are somethings new in certain points. They seem to slightly insinuate what the desires of the artist can be, the desires submerged or procrastinated in the previous works, and where they are originated from and will be destined.

Above all, the artist sees the building as not only physical conditions and formative languages but life itself projecting a human history and cultural memories. From this point of view, she returns to questions towards her existence in her adolescence and asks who a human being is. As excessively removing literary descriptions, works converted a life into a sober and strict formative language become intensified as methods to explore the life itself. As she performs not the reenactment of images but compositive asceticism in creating her works, her performance, drawing a building, becomes alive.

One more implication from her works is that her initial intention in being an artist is heavily related to her training of ink landscape painting. At the training, she pulls her artistic ideologies into shape and learns artistic techniques. Through an unpopular genre, drawing buildings, the artist slightly opens a possibility for the Korean painting to survive in the contemporary art realm. Whether it is intentional or not, her achievements practiced on her works should be recognized within the Korean ink painting genealogy. Her works remind one of the behaviors of a knight, who is desperately looking for his own art of sword as searching for the origin of life and expanding the realm of her painting on the base of the Occidental drawing.

On the contrary, within limits contrasting to a man-made world, it is interesting to see the artist's perspectives focusing on an inactive nature. She revealed the signs of her intention in her previous solo exhibition, Dream in a Jungle(2016. 9.2-9.23, Gallery Daon). In this exhibition, she faced ecological truths reflecting nature tangled with old buildings and trees and drew Angkor Wat. As she stated "Angkor Wat reveals itself to a stranger in the jungle. Angkor Wat is a mysterious building that crosses over the boundary between a deity and a human, between animals and vegetation... I feel thrilled from the greatness of nature that upholds everything," an ink landscape painting has been positively an essential method to grow beyond artificiality. Then, where did her inquiry towards nature lead? In the era when human's dwellings were artificially and entirely made, what things were different and same between drawing buildings and urban spaces and gazing at nature?

A Review by Lee, In-bum, Ph.D., critic & professor

동요하는 걸음 Agitated Step
video installation, dimension variable, 2019



무감각의 병리 - 파리 & 브뤼셀
Insensibility Pathology - Paris & Brussels
acrylic on foamex, FRP 325 × 112 × 15cm, 2017

감각의 스펙트럼을 담는 신체적 경험들

박지형 독립 큐레이터

무감각이란 어떤 상태인가? 오늘날 일상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무감각의 상태는 감각이 제거된 부재(absence)의 상태이기보다, 감각적 자극이 편재된 상황에서 지각이 둔화(indifference)된 상태일 확률이 높다. 즉 외부로부터 격리되어 발생하는 징후이기보다 도리어 외부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다. 이웅철은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정체의 상황을 경계하고 작품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스스로 구축해왔다. 초기 작업은 주로 도시 시스템의 반복성을 비판적인 시점에서 관찰한 뒤, 임의의 건축적 모듈을 추출, 변형하여 재조합한 오브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서 작가는 스스로의 행위를 일종의 축조술로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실제 그의 작업에서 건축적인 소재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도시의 구조적 특징을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을 도시 시스템-건축적 재료-해체와 재구성이라는 단편적인 도식에서 조금 더 확장된 시각으로 읽어낼 가능성은 없는 걸까? 필자는 이 지점에서 세계를 향해 열린 몸으로서 수반되는 작가의 신체적 감각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짐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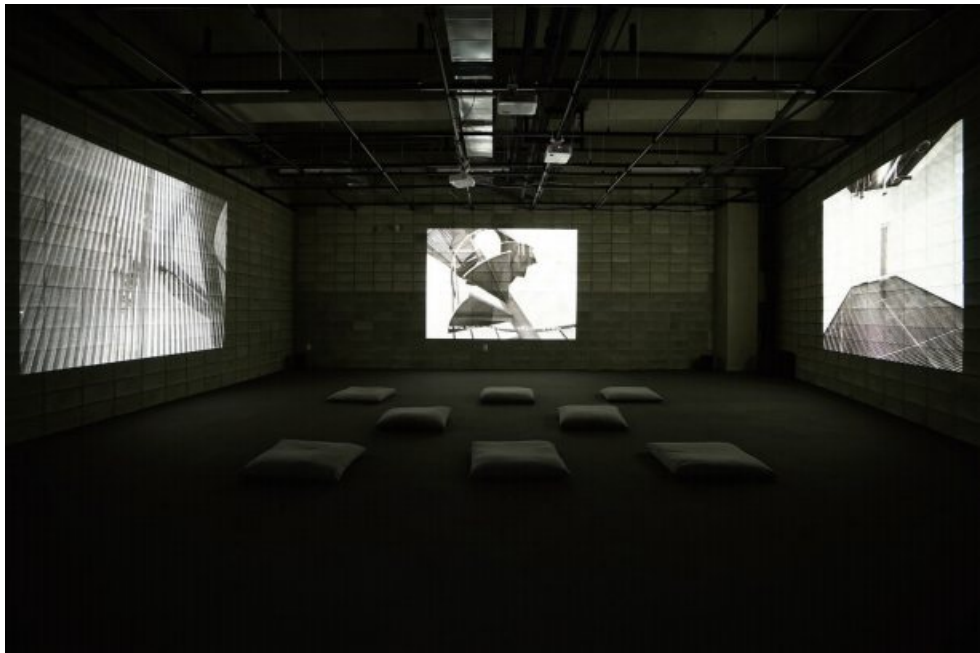
최근 그의 실험들은 일상의 반복적 리듬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도시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서의 모나드를 예민하게 포착하면서도, 그 속의 미묘한 변주들을 감지해내는 작가의 신체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때문에 작업은 논제를 중립적인 언어로 이끌어 가려던 초기의 어조와 달리 한층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소재나 사건을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동요하는 걸음>(2019)과 같은 작업에서 작가는 안산의 탄도항 근처의 갯벌에서 도시의 구조로부터 도출된 단일 모듈의 콘크리트 패널을 징검다리 삼아 걸음을 옮겨간다.

The Physical Experiences Holding the Spectrum of Senses

Park, Ji-hyung independent curator

What is the condition of being senseless? Personal experience of a senseless condition is likely caused by not the absence of sense but an indifferent sense resulting from the maldistribution of sensitive stimulations. In other words, the absence of sense likely comes from not the syndrome of an isolation from an outside but the excessive exposure of outer stimulations. The artist Ung-chul Lee warns of the stagnation from this excessiveness and builds by himself strategies to compromise it through his works. In his early works, as he looked into the repetition of a city system with a critical point of view, extracted and modified uncertain architectural modules, he mainly created objets. Here, the artist seemingly recognizes his creative activity as a kind of construction. It is obvious that he often uses the mediums of architecture in his works. This efficiently represen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city. But, is it possible to interpret his works with an expanded point of view beyond a simple diagram, the diagram reflecting a city system-architecture materials-dismantlement and restructure? At this point, I, as a critic, carefully predicts that the artist's physical sense can be a breakthrough as an entity opened to the world.

Through his experiments, he carefully captures Monad as a unit of a city in order to prevent himself from being entrapped by daily repetitive rhythms and actively deals with his physical experiences to detect delicate variations in the experiments. So, Instead that he copes his subjects with neutral terms in his early works, he tends to



안무; 드로잉과 설계 사이 Choreography; Between Drawing and Design
3 channels video, 11min, 2018



그리팅 Greeting
3 channels video, 8min, 2018



아이스크림-콘크리트 Ice cream-Concrete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2019

느리지만 꾸준하게, 천천히 흔들리며 도시의 조각은 자연의 표면과 접촉한다. 작가는 지속되는 행위를 통해 이질적인 두 환경을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수행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 내재한 단위들의 반복을 넘어 디지털 인터페이스 기반의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가벼운 시각적, 신체적 체험으로 감각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현실에 자리하던 사물과 풍경이 가상의 플랫폼에서 융해되고, 픽셀로 직조된 이미지와의 접촉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 양가적이고도 파편적인 상황을 물리적 구조의 무게감과 접합시키거나 병치한다. 점진적인 인식의 변화는 즉각 매체적 접근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디지털 도구가 손과 눈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경계로 정의된다. 작가는 3D 프린터가 입력한 수치를 출력해내는 과정에서 만드는 오류를 일종의 구조 간의 변주로 간주하고 이들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가벼운 조각을 완성한다. <아이스크림-콘크리트>(2019)는 이렇듯 단일한 유닛의 복제의 과정에서 탄생한 실패한 개체들을 혼합 배열한 작업이다. 웹상에서 찾은 그래픽 무빙 이미지가 덧입혀진 표면의 연쇄는 가상 현실의 표류하는 듯한 유동적 감각을 상징한다.

'수용성이 좋은 신체 감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작가의 말처럼, 이미 도시적 환경에 노출된 개인으로서 우리의 몸은 이미 도시의 시스템을 내재한 또 하나의 모나드적 존재이다. 따라서 장소와 사물, 시스템과 구조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고 그 속에서 무뎠던 감각을 환기할 요인들을 발견해내는 몸의 움직임은 그에게 필연적이자 필수적이다. 몸의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장소, 혹은 인간 대 시스템의 접촉과 순환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때, 이웅철의 축조술은 또 다른 단일한 기념비적 구조를 향해 뻗어나가는 대신 반복 속에서 미묘한 차이들의 감각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언어로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머지않아 그 실마리들을 길어내는 그의 눈과 손, 몸으로부터 도시 곳곳에 침잠해 있는 또 다른 감각지를 새롭게 제안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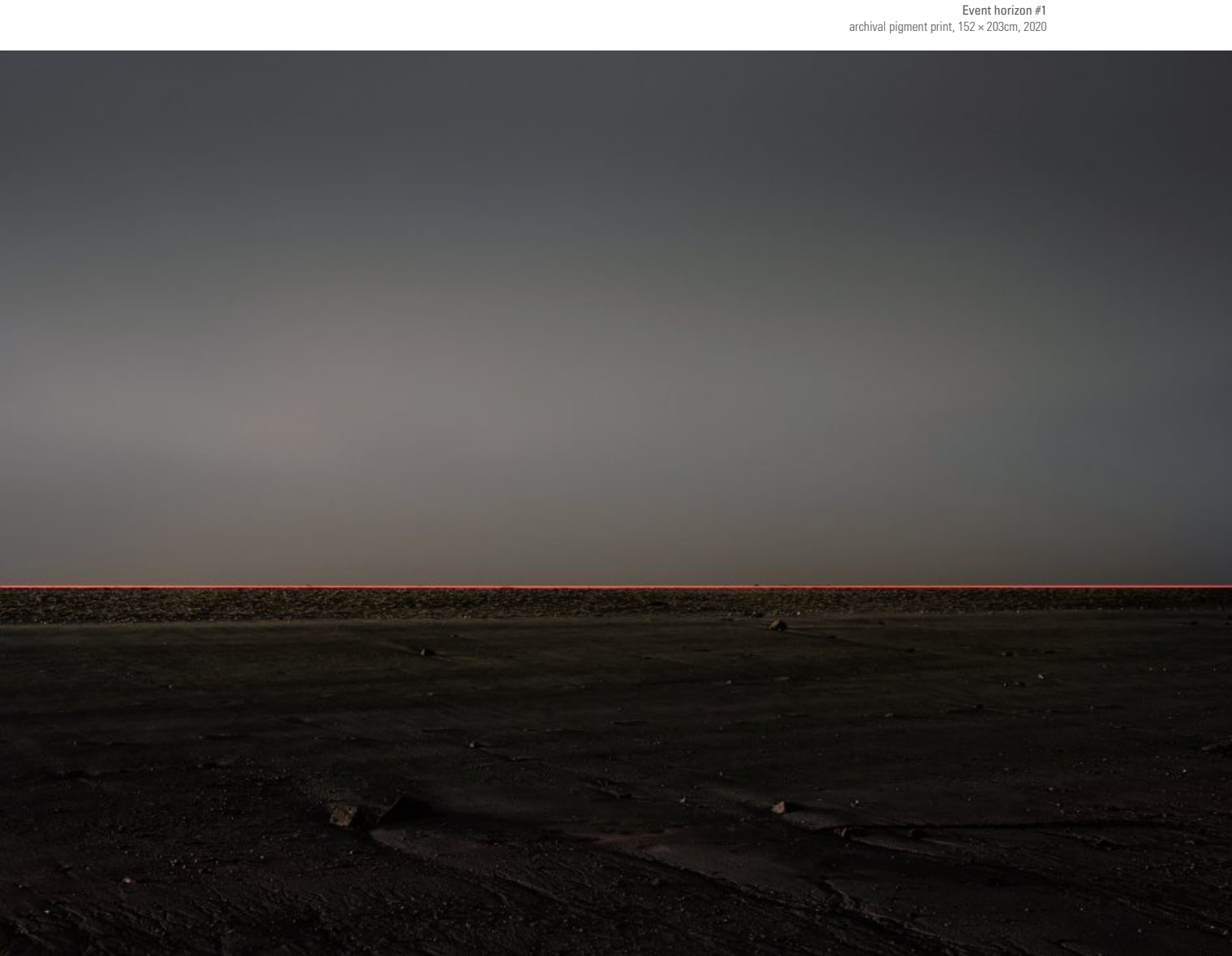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deal his mediums and incidents with personal and specific ways later. In his small works like Restless Walk(2019), the artist starts to walk on a unit of concrete panels as stepping stones, the unit from a city structure at the seashore near Tan island. Fragments of a city tardily, yet persistently and slowly wobble and contact the surface of nature. The artist becomes a performer, who temporarily attempts to combine two disparate environments through his continuous actions.

Moreover, he expands sensual spectrums to light visual and physical experiences based on the system of digital interfaces beyond the duplicates of units embedded into city's physical structures. They fuse or juxtapose ambivalent and fragmented situations with the weight of a structure, the situations that objects and landscapes in reality dissolve in a virtual reality platform and a contact with images weaved with pixels becomes part of everyday life. As gradual changes in perception immediately influence on the approaches of mediums, digital tools become a new boundary expanding the limits of hands and eyes. He considers errors produced during printing the values punched by a 3D printer as a sort of structural variation and accomplishes a light structure as piling them up. Ice Cream-Concrete(2019) is a work of the mixed arrangements of failed individuals born from duplication processes of a unit. The chain of surfaces superimposed graphic moving images found in the web-site represents flexible senses seemingly drafting in a virtual reality.

Just as the artist states, "maintain a good flexible body sense," our body is another Monad equipped with a city system exposed oneself to a city environment. Thus, a body movement is inevitable and essential, the movement that can find elements to refresh dull senses as crossing over between places and objects and between a system and a structure. When one carefully looks into contacts and circulations between a human being and another, a human being a place, or a human being a system, the works of the artist may become a catalyst to obtain a driving force to persistently multiply the senses of subtle differences in the repetitions, rather than stretching out towards a single monumental structure. Sooner or later, one expects that the artist is able to suggest new sensible spots hidden in the city through his eyes, hands and body.

An Abstract of a Review by Park, Ji-hyung, independent curator



Event horizon #1
archival pigment print, 152 × 203cm, 2020



Event horizon #2
archival pigment print, 112 × 149cm, 2020

외지인의 관점에서

윤원화 평론가

사진가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다. 예를 들면 심야에 적외선 카메라로 동물을 촬영하는 것은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애초에 빛으로 비출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또는 그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다. 이재욱의 작업에서, 역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사진가의 문제가 된다. 그의 사진 작업은 역사의 현장을 포착하는 저널리즘 사진과도 다르고, 과거에 생산된 역사적 기록들을 현재에 재구성하는 아카이브 기반 작업과도 다르다. 작가는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통해 역사의 비가시성이라는 수수께끼와 대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역사의 객관적 속성보다도 작가가 역사에 대해 가지는 어떠한 거리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을 다룬 <Red Line> 연작(2018)에서 작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작가는 2017년 제주의 아티스트 거주 프로그램에 1년간 머물면서 처음으로 4.3사건을 하나의 역사적 현실로서 의식하게 되었다. 그 사건은 반세기가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존

From the Perspective of an Outsider

Yoon, Won-hwa critic

How can a photographer project an image for an invisible scene? This is different from making the unseen objects seeable. For example, taking pictures of animals with an infrared camera at night is making them visible. But there are things never seen under light. Or, there are things that exist beyond reach and can be only imagined. In the art works of an artist Jaeuk Lee, a history becomes an imperceptible object and part of his problem. His works are different from the photos taken as photo journalism. They are also separated from those of an archive base that reorganizes historical records taken in the pas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 The artist seems not to overtly show a history but to challenge the invisibility of history through photos. Here, the statement, “a history is unseeable,” is related to not the objectiv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y but the distance that he has towards the history. His point of view towards the history becomes pivotal to carry out his works, a series of Red Line(2018) dealing with the 4.3 Incident taken place in 1948 in Jeju Island, where he joined an artist-in-residence program. During his stay there, he was aware of the incident as a historical reality. The



Red line #1
archival pigment print, 112 x 149cm, 2018



Red line #7
archival pigment print, 112 x 149cm, 2018



Red line #9
archival pigment print, 152 x 203cm, 2018

재하며, 제주 곳곳에 그 물리적 흔적을 뚜렷하게 각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은 작가에게 4.3 사건에 대한 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 사건의 당사자도 관련자도 아닌 외부인이라는 의식을 오히려 첨예하게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욱의 작업에서 역사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재욱의 최근 작업에서 계속해서 희뿌연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붉은 빛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빛깔의 의미는 명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다. 먼저 <Red Line> 연작에서, 작가는 1948년 제주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민간인 영역과 공산당 게릴라 영역을 구획하는 임의의 경계선이 그어졌던 장소들을 재방문했다. 당시 군대는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의 마을 사람들을 공산당 동조세력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학살했다. 작가는 이 비논리적인 경계선을 붉은 색 레이저로 표시하여 촬영했다. 어둠 속에서 장노출로 촬영된 컴컴한 사진 속에서 그 선은 산줄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마을 앞을 지나가기도 한다. 그것은 전후 맥락을 모르고 보더라도 어딘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생사의 경계선이다.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잘 이해할 수도 없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의 움직임과 그 신체적 존재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작용을 표현한다.

하지만 <Red Line>의 고요한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권력의 작용 아래 생사의 기로에선 사람의 감각보다도, 자신이 그 자리와 얼마나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 지 거리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관찰자의 감각에 가깝다. 요컨대 나는 거기에 없었지만, 거기 있을 수도 있었으며, 그 가능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거리 감각은 근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Cord-On> 연작(2019)에서 더욱 두드러

incident was deeply inscribed in the residents of the island and the evidences of the incident could be found everywhere in the island. But, physical proximity seemed to not only unleash sensational and emotional reactions towards the incident but bring forth his conscious to it, the conscious coming from his awareness as not a stakeholder but an outsider of the incident. Thus, in his works, a history is not only invisible but indefinite in meanings. This is consistently expressed with a red light in a hazy darkness in his recent works. The color of the light is neither overt nor coherent as well.

In his series of works, Red Line, he revisited places, where temporal borders were set between a civilian section and that of communist during the martial law in 1948.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thought that residents living beyond the middle of the mountain were the followers of communism and slaughtered them all. The artist expressed this irrational border with a red laser in his photos. The line in a dark image of a photo ran through the mountain and in front of a village. Even without being aware of historical contexts, one could imagin that the line symbolized a life and death border, which brought forth anxiety to his audiences. It was and is an invisible and unacceptable arbitrary standard and became a power to control human beings' behaviors and existences. The calm image in Red Line showed not human senses under a life and death situation but outsider's senses that revealed uncomfortable emotions coming from his incapability to measure the distance from the incident. In other words, he did not exist there and then. Yet he might be there. The feasibility of his presence there remained unresolved. His uncomfot emotion became much overt at his series, Cord-On, the series about recent

진다. 작가는 2016년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세웠던 곳을 <Red Line>과 유사한 이미지로 재구성했다. 밤낮없이 인파가 붐비는 광화문 일대를 마치 과거의 역사적 비극을 말없이 증언하는 제주의 밤 풍경처럼 재현할 때, 작가는 정확히 언제 또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그때 거기 없었지만 거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확실히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유령처럼 이미지 위에 어둠과 붉은 빛을 드리운다. 그것은 '빨갱이 사냥'의 뜨거운 붉은 색보다 오히려 필름을 현상하는 암실의 붉은 조명을 연상시킨다. 어둠을 건어내지 않고 필름에 기록되지 않는 어스름푸레한 암등 아래 이미지가 홀연히 떠오르는 것처럼, 작가는 역사의 유령사진을 제작하고 싶은 것일까?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historical incidents. He reorganized the similar images of Red Line when he dealt with police barricades against demonstrators on Gwanghwamun Gate in 2016. When he modified the crowded images around Gwanghwamun Gate with the images of the 4.3 Incident, one suspected where and when the artist was? In order to depict his presence in the incident ambivalent, he laid the darkness and the red light on ghostlike images. This reminded one of a red light in the darkroom, rather than a hot red symbolizing hunt for Reds. Would the artist like to print untold, yet unseen story of the history, just as images suddenly emerged under a dim light, the light that the brightness was not enough to break the darkness and unrecorded?

An Abstract of a Review by Yoon, Won-hwa, critic

회전 Whirl
부화장치, 달걀, 픽업마이크, 헤드폰, 스피커_2층 전시전경
hatching machine, eggs, pickup microphone, speaker _installation view 2nd level, 2019



현대도시 마천루 증후군의 비극적 서사 – 전혜주의 〈회전〉이 타전하는 징후의 미학

김종길 미술평론가

“내가 너를 하늘로 데려다 주겠다.”

_ 『에타나 서사시』, 「판3」, 번역 및 각색 전혜주, WHIRL, 2019.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두 강 사이’를 뜻하는 메소포타미아[그리스어]. 그 두 강변에 고대 앗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수도 니네베와 바빌론이 세워졌고, 최초에는 그곳 어딘가에 에덴동산이 있었다. 두 강은 현재 이라크를 흐른다. 『에타나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했고 ‘에타나’는 바빌로니아 신화의 영웅이다.¹⁾ 그가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나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떨어졌다는 것이 신화의 줄거리다. 그리스 신화 속 다이달로스와 나우크라테의 아들 이카루스 서사의 원형이겠다. 전혜주는 『에타나 서사시』를 번역, 각색해 <회전(Whirl)>을 구성했다.

(생략)

에타나와 이카루스 신화의 일반적 교훈은 ‘미지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憧憬)’이다. 동경은 ‘이상세계를 그리워하다.’는 속뜻을 가지고 있으니, ‘미지세계’는 현실적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완전한 이상세계의 유토피아를 지시하는 것일 테다. 그런데 우리가 간파해야 할 것은 동경이 아니라 동경의 비극적 결과다. 에타나는 정신을 잃고 떨어졌고, 이카루스는 깃털에 붙인 밀랍이 태양열에 녹아떨어져 죽었다. 둘 다 너무 높이 오르려는 욕망 때문에 죽었다. 높이 오르고자 하는 것, 인간이 꿈꿔서는 안 되는 욕망이리라. 그런데 왜 인간은 욕망하면 안 되는 것일까? 전혜주의 의문은 이 ‘욕망하기’의 비극적 결과에서 시작되는 듯하다. 에타나에 관한 서사는 조금씩 다르다. 공통적인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탄생의 식물’(혹은 출산의 식물)을 구하러 떠난다는 것.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오른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것은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먼지의 집’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엔키두가 꿈에 보았다는 것! 이곳저곳의 내용을 짜깁기하면, **“자식 없음(아들 부재)-태양의 신 우투(사마쉬)에게 기도-독수리를 타고 출산의 식물을 구하러 감-정신을 잃고 떨어졌으나 아들 잉태-이방의 땅을 합함-먼지의 집에 앉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혜주는 『에타나 서사시』의 「판1」~「판4」에서 위와 비슷한 서사구조로 이야기를 펼친다. 아들의 부재는 왕위 계승의 부재다. 권력은 이어지지 못한다. 그 절박함이 그를 위로 솟구치게 했다.

1) 에타나 신화가 새겨진 서판(Tablette portant le texte du Mythe d'Etana)은 BC 1800년경 찰흙을 빚어 만들었고 깨기 문자를 새겼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Tragic Epic to Current Manhattan Syndrome

Gim, Jong-gil critic & curator

I will take you to Heaven

Mesopotamia means between Tigris and Euphrates. Near the rivers there are two cities, Nineveh, a former capitol of Assyria, and Babylon, a former capitol of Babylonia. At the dawn of those civilizations, there is Eden. The two rivers run through Iraq. The epic of Etana origins from Mesopotamia and Etana is a hero in the Babylonian myth. The story of Etana myth is that he soars to the sky on an eagle, feels faint at high altitude and falls. In Greek myth, Icarus, a son of Daedalus and Nauchraté, becomes an origin of an epic. The artist, Hyejoo Jun, interprets and dramatizes the epic and creates Whirl.

The general lesson from the myths of Etana and Icarus is “human’s dreaming of unknown world.” The word, longing, connotes “desire to reach for an ideal world.” So, the expression, “unknown world,” symbolizes a perfect world, the world without contradictions and irrationality, in other words, Utopia. But, what one should penetrates is not longing but a tragic consequence from it. Etana feels faint and falls. The wax on his wings melts and he falls to death. Both of them pass away by their desires to fly too high. Soaring too high is a forbidden desire to a human being. But, why should not a human long for? The artist’s questions start from the tragic ramifications of this ambition. The stories of the epic of Etana are little different in every editions. Somethings in common are that he cannot have a child, takes a journey to obtain a plant of birth and soars to the sky on an eagle. Interestingly, in Gilgamesh Epith, Enkidu sees Etana sitting in the House of Dust in his dream. If assembling a story with pieces from a few sources, the story goes like this, “No Child-Pray to Sun God, Utu-Look for the Plant of Birth on an Eagle-Faint and Fall, yet Pregnant-Annexation of Foreign Soil-Sit in the House of Dust.” The artist develops her narration with a similar epic structure above in the Plate 1 through Plate 4 of Etana Epic. No male child means no succession to a throne. Power never be succeeded. This desperation makes his soaring.



회전 Whirl
진동소파(300 × 300 × 120cm), 진동변환장치, 오디오케이블, 수집된 이미지, 액자_1층 전시전경
sofa(300 × 300 × 120cm), vibration transducer, audio cable, collected images _ installation view 1st level, 2019



회전 Whirl
부화장치_달걀, 온열전구, 모터, 픽업마이크, 헤드폰, 목재, 68 × 45 × 150cm
hatching machine, eggs, motor, pickup microphone, wood, 68 × 45 × 150cm, 2019



회전 Whirl
수집된 이미지, 프린트, 액자 각 21 × 30cm, 오디오케이블
collected images, 21 × 30cm, audio cable, 2019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었다. 벽돌이 기초가 되었다.”

_ 『에타나 서사시』, 「판1」, 번역 및 각색 전혜주, WHIRL, 2019.

‘미지세계에 대한 인간의 동경’은 신화에서 하늘 높이 오르려는 행위로 드러나지만, 전혜주에게 그것은 ‘도시 건설’로 현실화된다. 그는 스페이스 캔의 1층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전을 빼담은 지구라트를 설치했다. ‘높은 곳’을 뜻하는 지구라트는 하늘[神]과 지상[人間]을 잇기 위한 신전이었고, 그 꼭대기는 ‘하얀 집’으로 불린 성소였다(도시의 수호신이 머무는 성소이다. 신전의 일꾼들은 지구라트 바깥에 머물렀다. 지구라트와 그 바깥은 철저하게 계급화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바벨탑과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지구라트의 자식들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지구라트는 이라크 나시리야 근방의 우르(Ur)에 있다. 전시장에는 지구라트에서 영감을 받은 스케치가 걸려있다. 그 외 수메르 왕명록(王名錄), 썬기 점토판, 지구라트와 바벨탑의 상징적 평면도(지구라트는 일반적으로 사면으로 된 구조물이지만 원형으로 된 것들도 엿보인다. 회화로 그려진 바벨탑은 둥근 나선형이다.), 신들의 계보를 보여주는 나무 등이 걸렸다.

A City Is Built. A Brick Becomes a Foundation.

Human's longing for the unknown world is expressed by the expression, "soaring to the sky," in a myth. But, the artist realizes it with founding a city. She installs a Ziggurat resembling a Sumerian shrine of Mesopotamia in the first floor of Space Ken. The word, Ziggurat, symbolizes a height and a shrine to connect heaven and earth. On the peak of it there is a place called the White House, Divine Place(Divine Place is a sanctum for a city guardian diety to dwell. The subjects of the deity stay outside of Ziggurat. The Ziggurat and the outside of it are firmly structured by statues, statues with and without power). Babel Tower and Pyramids are the offsprings of Ziggurat. The best of current Ziggurats is at Ur near Nasiriyah in Iraq. In the exhibition hall, there are sketches influenced by Ziggurat. Besides, Sumerian log of royal command, a wedge clay tablet, a symbolic floor plan of Ziggurat and Babel Tower and a genealogy tree of deities are hung on the walls(Ziggurat used to be a declined structure. But, a drum shaped Ziggurat is exhibited. Babel Tower painting is a spiral form.)



흩어지는 경로 Scattering Path
1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수집된 식물, 갯벌 흙, 가변설치
1CH video, stereo sound, collected plants, bay mud, 2019

관객은 이곳에서 지구라트 조형물에 압도당할 뿐만 아니라 낯선 고대 건축물이 뜻하는 바를 찾아 헤맨다. 아무런 설명 없이 이미지로만 걸린 10개의 액자들에서 눈 밝은 이는 수메르 문명과 켈기문자와 지구라트의 상징을 연결하려 애쓸 것이나, 그것은 하나의 수사적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이성을 집중해서 그 문명의 흔적을 찾거나 켈기문자를 해독하려는 시도는 사실 이곳에선 부질없는 짓이다. 결과적으로.

기원전으로 돌아가는 시간의 바퀴를 정지시키고, 우리는 지구라트에 앉아서 '서울'이라는 메타폴리스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초자본주의 현대도시의 슈퍼타워 마천루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된 인간들을. 그들은 '휴먼시아' '생태도시' '명품도시'로 치장한 아파트 공화국에 열광하며 토건국가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듯 자본을 쏟아 붓고 대출을 당겨서 빚더미 잔치를 벌인다. 아파트값 폭등은 자본권력과 계급을 잉태시켰고 그들의 욕망은 주식의 임계점을 향해 치솟는다. 그것은 마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그려냈듯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솟구치는 탐욕의 실체와 다르지 않다.

“그가 뛰어 내렸다. 그러자 독수리가 그를 향해 뛰어들어 다시 날개에 태웠다”
『에타나 서사시』, 「판4」, 번역 및 각색 전해주, WHIRL, 2019.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1995년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1994년 서울시는 남산을 가리는 외인 아파트를 폭파해 철거했다. 1985년 지상 6층 높이 249.6미터의 63빌딩이 개장했고, 2017년 지상 123층 높이 555미터의 롯데월드타워가 오픈했다. 서울시는 35층 층고제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고도제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들려온다. 붕괴와 철거가 반복되어도 도시는 초고층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해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데미안』). 한 세계를 열고 날아오른 새의 신 아프락사스(Abraxas)! 알의 안팎을 쏘아 세계를 여는 줄탁동시(倅喲同時)! 그

The audiences feel overwhelmed by a statue of Ziggurat and are wondering around to search for the meanings of unfamiliar ancient structures. From ten images framed and hung on the wall, the knowledgeable audiences attempt to find clues to connect the symbols of Sumerian Civilization, Wedge Characters and Ziggurat. But, this is a mere rhetorical device. Consequently, it is in vain that the audiences rationally strive to trace the remains of the civilization or to decipher Wedge Characters here. One should stop the wheel of time to go back to the past, sit on Ziggurat and contemplate a meta-polis named Seoul. Human beings, who are eager to build a super tower Manhattan in a contemporary city of super capitalism, become fanatically enthusiastic about fancy name apartment complexes, seem to build a perfect world, pour their wealth into them and end up with bankruptcy. The soaring price of apartments creates capital power and a capital class, and their greed forces a stock market to hit the breaking point. This is no different from avarice chasing profits as depicted in a novel, A Small Ball Launched by a Dwarf.

He Leaps off. Then, an Eagle Takes Him on Its Wings.

In 1994 Seong Soo Bridge collapsed and Sam-poong department store crumbled into pieces in 1995. In 1994 the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demolished a Foreign Apartment complex to secure the mountain view of Nam-san. In 1985 the 63 Building, a sixty-three story building with 249.6 meter height, was open and in 2017 the Lotte World Tower, a one hundred-twenty-three story building with 555meter height, unlocked the door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a height limit regulation in Seoul, there are still strong demands and disturbances in relation with the height. Demolition and tearing down take place over and over. But human desires towards the highest are still valid. Rather, this becomes intense.



지평시차 Horizontal Parallax
4채널 오디오, 진동스피커, 앰프, 염색된 천, 철망, 알루미늄 프레임, 각 180 × 40 × 140cm
4CH audio, vibration speaker, amplifier, dyed cotton, roof panel, iron mesh, aluminum frame, 180 × 40 × 140cm, 2019

러나 전해주의 알은 그런 '참나[眞我]의 깨달음이 아니다. 그의 <회전>은 반복되는 욕망의 잉태, 탐욕의 순환이다. 부글부글 끓어서 부화하는 마천루의 꿈과 그 꿈의 소멸에 관한 서사다. 그는 「판4」에서, 뛰어내리는 에타나를 독수리가 다시 태우는 장면을 반복시킨다. 에타나는 결코 땅에 닿지 못한다. 그리고 이야기는 미궁이다. 그는 “(파손된 점토판)”을 마지막에 두어 결말을 눈에 빠트린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엔키두가 보았던 ‘먼지의 집’을 떠올리자. 이방의 땅을 합한 목자요, 왕이며, 영웅인 에타나는 왜 먼지의 집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 지구라트는 흙벽돌로 쌓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그것들은 높은 둔덕처럼 남아 있을 뿐이다. 에타나는 아들을 얻어 왕위를 계승했으나 시간은 덧없고, 현재 그의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1층과 2층, 2층과 1층에서 관객은 <회전>이 회오리치는 순환구조를 엿본다. 지구라트에서 천둥이 터지듯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잉태의 외침이고 붕괴와 소멸의 아우성이 다.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축복과 저주의 두 양극/양면성을 가졌으나 그것들은 서로 회전하면서 먼지가 된다. 아프락사스는 양극/양면성을 포괄하는 신성의 이름이기도 하다. 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알을 깬 뒤의 새 세계가 무엇인지 깊게 사유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전해주가 <회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일 터.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A bird struggles to come out of an egg. The egg is a world. One wishing to be born should break through a world. A bird flies to reach a diety. The name of the diety is Abraxas” (Demian). Abraxas, a diety of bird, breaks through a world and soars! Peck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an egg in order to be born! But, the artist’s egg is not the full enlightenment of herself. Her whirl is the product of a consistent desire and a circulation of greed. Her whirl is an epic, the epic about a dream of Manhattan about to erupt, and the extinction of this dream. At the Plat 4, the artist repeats a scene that an eagle takes Etana on his wings when she leaps down. Etana never touches the ground. The story falls into a labyrinth. As she displays a “broken clay plate” at the end, she drives her audiences into a maze.

Let’s recall the “House of Dust” which Enkidu sees in Gilgamesh Epith. Why is Etana, a shepherd annexed foreign soil, a king and a hero, sitting in the House of Dust? Ziggurat was made of clay bricks and shown like a hill after a few thousands. Etana succeeds his throne to his son. But, time is meaningless. His land is continuously in war. The audiences observe a circulation system just as a spin whirls. At Ziggurat, the audiences hear a sound just as a thunder bursts and crashes. It is the shout of a conception and the outcry of demolition and extinction. They have both poles and double faces, such as life and death, bright dark and a bless a curse. But they rotate by themselves and become dust. Abraxas is a holy name, who embraces bi-polar and double faces. In order not to become dust, one should contemplate what a new world would be after getting out of an egg. This is what the artist Hyejoo Jun would like to speak about at her exhibition, Whirl.

An Abstract of a Review by Gim, Jong-gil, critic & curator

이상한 계절 Strange Season
에어컨, 공기청정기, 히터, 선풍기,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 실외기,
진짜와 가짜 식물, 인조잔디, 화분, 선반, 벤치, 콘크리트 좌대
Air Conditioner, Air Purifier, Heaters, Fans, Humidifiers, Dehumidifier, Outdoor AC Unit,
Real and Artificial Plants, Artificial Grass, Plant Pots, Shelf, Bench, Concrete Pedestal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2019



Brand-New COSMOGRAMME

천미림 독립 큐레이터

정재희의 작업은 기술에 관한 아주 현실적인 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에게 있어 기술은 개별로서는 확인될 수 없는 비물질적 대상이며 인간의 행위와 얽혀있는 특정한 현상이나 상태로만 인식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작가는 순간적인 물입의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과 결합되는 기술적 결과물에 주목하면서 시간의 스펙트럼 위에서 주체와 객체 사이를 오가며 변주되는 관계의 마디들을 포착한다. 이때 인간과 사물 사이 접촉 지점의 인본주의적 해석은 부정되며 대상적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복된다. 쉽게 말하면 이는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놓여있는 물적 대상의 세계를 단지 발견하는 것에 가깝다. 그는 다분히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명한 의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개입을 선택한다. 사물이 열어주는 세계를 알아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관계를 전시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작가가 취하는 태도는 어쩌보면 필연적이다. 이는 꽤나 명확하게 ‘포스트모던’ 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장면으로서의 현재 기술적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모던’하게 다가온다. 그렇기에 정재희의 작업을 최소주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작품의 시각적 효과나 작가적 태도는 이를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전에서 선보인 <이상한 계절>(2019)은 공기청정기, 에어컨, 온풍기 등 실내에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시스템과 자연정화 식물을 교차 배치한 것이다.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 인조식물과 실제 식물은 서로의 길을 지키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 공간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기계들의 움직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분위기의 흐름을 청각과 촉각적 신호를 통해 가시화한다. 관객은 전시를 통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의식화된 일상적 감각을 일깨우고 작업 안으로 들어선다. 이때 작가는 자신과 작업 사이에서 형성되는 필연적 거리감을 물론 전시에서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관객의 오해와 오역들을 오히려 수용한다. 그는 작업적 해석의 주도권을 관객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시에서 발생하는 경험 총체를 작업의 일환으로 편입시킨다. 사물의 배치부터 관객의 동선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재구성된 공간을 통해 작업적 확장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명비평가 루이스 머퍼드(Lewis Mumford)는 기계예술의 좋은 형식으로서 인간과 기계 사이의 감각, 비례, 리듬, 기능의 미묘한 조정을 언급하면서 대상의 예술성이 관객의 의미 경험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¹⁾ 정재희의 작업은 관객의 행위가 개입되면서 작업의 전체가 완성되는 총체예술의 형태를 지닌다. 관객의 경험을 통해서 전시장에 놓인 기계들은 단순한 기술적 결과물이 아닌 구체적인 미적 결과물로서 당위를 갖는다. 이러한 방향성은 매체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작업 대상으로서의 사물이 갖는 매체의 특성을 서사의 재료로서 적극적으로 선취하는 매체 의존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체적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

Brand-New COSMOGRAMME

Cheon, Mee-rim independent curator

Regarding technology, the works of the artist, Jaehee Jung, start with realistic senses. To him, technology is not individually identified, and it is a non-material object. The technology is recognized as certain phenomena or conditions tangled with human reactions. In particular, as the artist provides the experiences of instant immersion and spontaneously focuses on the results of technology combined with human beings, he captures the measures of varied relationships performed between a subject and an object on the spectrum of time. In this moment, a humanism analysis is denied in the contact point between a human being and an object and collapsed into the point of view that sees a human being as an object. Simply speaking, this is more like not the way that a human being sees the world but that the objectified world is merely found, the world that a human being is objectified. The artist chooses the minimal involvement with the basis of precise intentions in the strategic aspects. The artist's attitude is inevitable in converting certain relationships into the experiences of an exhibition, the relationships recognized during the process to realize the world opened by objects. This is obviously the aspect of Post-modern, yet reveals itself as the element of Modern in reenacting current technical conditions as ordinary and natural scenes to human beings. So, it still doubts that the understandings of his works on the basis of *Minimumism* are appropriate. But, at least the visual effects of the works and the artist's attitudes remind the audiences of that *Minimumism*.

In his recent exhibition, *Strange Season*(2019), automated systems to maintain the most suitable temperatures and moisture in the exhibition space, such as air purifiers, air conditioners and heaters, and nature purification plants are displayed crosswise. Hot and cool air, and artificial and natural plants stand next to each other and fulfill their roles. The machines' movements sensitively responding to the spatial changes visualize the streams of invisible air and atmosphere through the signals of acoustic and touch senses. The audiences awaken common senses customized within the atmosphere given through the exhibition and enter into the work. At this point, the artist fully accommodates the inevitable distances between himself and the work and the audiences' misunderstandings and misinterpretations occurred by causality. As handing the authority of interpretation in to his audiences, he incorporates the compilation of their experiences as part of his exhibition. He is looking for the expansion of his exhibition through a newly organized space from the display of exhibit items to the flow of the audiences.

As a culture critic Lewis Mumford states the delicate adjustments of senses, ratios, rhythms and functions as a good convention between art and technology, he emphasizes that the artistic merits of a subject can be obtained by the meaningful experience of audiences. As involving audiences' reaction towards the exhibited items, his exhibition is accomplished in the form of "whole art." Through the audiences' responses, the machines in the exhibition are no longer simple technical ramifications but specific aesthetic outcomes. This tendency reveals itself on the way to deal with mediums. He reveals his attitude heavily depending on mediums in selecting the objects of his works as the resources of his narration. On the other hand, as admitting the limitations of the mediums, he changes his way of thinking and turns these limits to his own advantage.



Present
DSLR 카메라, 삼각대, 아두이노 보드
DSLR Cameras, Tripods, Arduino Boards
185 × 150 × 150cm, 2017



Home Void
스마트 텐트,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랩톱,
진짜와 가짜 다육식물, 여러 사적물품
Smart Tent, Smartphone, Tablet Computer, Laptop,
Real and Artificial Succulents, Various Personal Items
150 × 255 × 345cm, 2018



Unsmart Phone Orchestra
스마트폰, 숫자들이 적힌 악보, 보면대, 보면대 조명
Smartphones, Sheet Music Written as Numbers, Music Stand, Music Stand Light
280 × 280 × 100cm, 2016



Vacuum
진공청소기, 연장호스, 타이머
Vacuum Cleaner, Extension Hoses, Timer
가변크기 Dimensions Variable, 2019

<Unsmart Phone Orchestra>(2016)가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인 전화를 거는 단순한 행위와 우리에게 익숙한 신호인 벨소리나 빛을 이용한다든지, <Present>(2017)가 디지털 카메라의 반복적 셔터음과 플래시 같은 상징적 감각을 통해 급작스러운 기시감을 전달하는 것 모두 통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작가가 취하는 치밀한 의도성에 있다. 대상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짜임새가 여전히 작가의 계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양면성은 정재희의 전시적 경험을 구성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사물의 다양한 기능을 제거하고 남긴 명료한 메시지만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 단순한 것을 모호하게 하거나 일편 비틀어 생각과 공감의 여지를 남기는 것, 직접적인 사물의 제시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기능성과 그것들이 촉발하는 미의 감각들을 강조하는 것 등은 작가의 고유한 어법으로 읽힌다. 이는 일종의 인간-기계 네트워킹을 연상시키긴 하지만 완벽한 사이보그를 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감 안에서 기술을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을 뿐이다. 전시는 기술과 결합된 우리의 생활환경을 갖추어 제안되고 있으며 공간과 경험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작업으로 묶인다. 만약 작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작업적 문법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의 지속적 강조점은 결국 자신의 인식과 물리적 현상을 하나의 동일한 맥락에 놓아두는 것에 있다. 이러한 가치체계의 재편은 주관-객관, 개인-사회, 문명-자연 등 대응점을 시사한다. 서로 다른 개념들이 교차되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이는 것은 물질과 비물질 사이 주체와 객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이 구성되는 작가의 인식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라투르(Bruno Latour)의 코스모그램(cosmogramme)을 연상시킨다.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특정한 문화를 통해 결합되는 모든 존재들의 배열을 의미하는 용어 코스모스(cosmos)의 대안으로서 사용된 이 단어를 통해 라투르는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 사이의 조화, 공존, 대립, 배제의 결합들을 기술하는 법을 강조한다.²⁾ 정재희가 작업 속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형식과 드러내고자 하는 기술적 현상들은 이상의 가치들을 내포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가 맞닿는 시간적 스펙트럼을 현존의 오브제에 압축시키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동반되는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작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 1) 루이스 머퍼드, 『예술과 기술』, 박흥규 역, 도서출판 텍스트, 2011, pp.119-120
- 2) 브뤼노 라투르, 『브뤼노 라투르의 과학인문학 편지』, 이세진 역, 사월의 책, 2012, pp.134-135

In his work, Unsmart Phone Orchestra(2016), using simple actions, such as dialing, which is the main function of a smartphone, or bell sounds and light accustomed to the audiences, and in his work, Present(2017), transmitting the sudden sense of *déjàvu* through symbolic senses recognized by the repetition of a shutter sound and a flash of a digital camera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advantage reversed from limits. At this point, an interesting thing is his decisive intention. Leaving the objects in the most spontaneous condition as possible and at the same time displaying the objects in an orderly fashion as he premeditates ar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to bring forth exhibition experiences to his audiences. It seems to become his own narration in the exhibitions as assembling meanings only with overt messages delivered by the absence of diverse functions of tools, making something clear ambiguous, creating rooms for common understandings with twisted thoughts and emphasizing aesthetic senses unleashed by functionality obtained by the direct proposal of the objects. His works seem to remind his audiences of a networking between a human being and a machine. But, he does not appear to assert a perfect cyborg. He simply, yet interestingly looks into technology within reach. His exhibition is performed according to a current living circumstance heavily connected with technology, and a space and audiences' experiences are bound to become one work in a broad perspective. When the audiences do not have the understandings of the artist beforehand, his "one work" idea seems to be absurd. But, what the artist consistently points out is to put his perceptions and physical phenomena in the same context. This restructure of value systems implies the contrasts between perceptions and phenomena, such as subject vs. object, individual vs. society and civilization vs. nature. As crossing each other binding contrast concepts to a big picture dismantles the boundaries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within materials and non-materials. This can be regarded as the newly organized perception system of the artist. This reminds one of Cosmogramme of Bruno Latour. The artist emphasizes methods to combine harmony, coexistence, opposition and exclusion existing in human beings and non-human beings through Cosmogramme replacing Cosmos, which implies the arrangement of every existence integrated through particular culture in a real life. Methods to reorganize and technical phenomena to realize the relationships of the objects in his works contain ideal values.

One can identify the artist's messages with elements, the elements inevitably taken place within the process to apply time spectrums occurred at a linkage between the past and future into current objets.

An Abstract of a Review by Cheon, Mee-rim Independent curator

의도된 장애 Intended disorder
장지에 채색 31.8 × 41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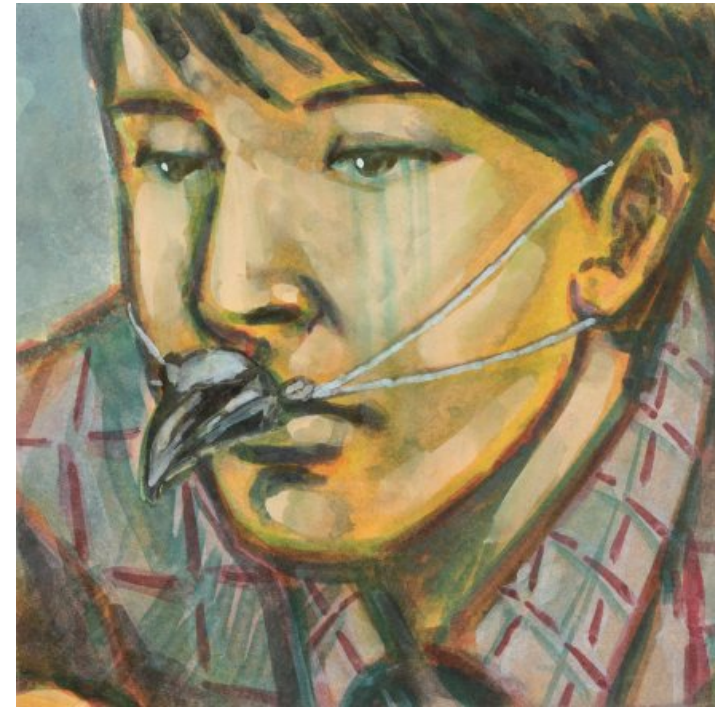


비둘기, 우울하거나 무미건조한, 암울하거나 명랑한 도시우화

고충환 미술비평

비둘기는 도시적인 새다. 크고 작은 광장과 공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상 지하철 플랫폼에도 한길에도 심지어 도로 위에도 비둘기는 어김없이 있다. 처음부터 도시에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산비둘기가 없지 않지만, 웬지 모든 비둘기가 도시에 살기로 작정이라도 한 모양이다. 오히려 길들여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어느새 비둘기는 천덕꾸러기가 돼 있었다.

여기에 핵심이 있고, 작가가 비둘기를 그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비둘기와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비둘기를 통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엄밀하게는 그저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이유도 없이 싫은 비둘기처럼 혼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 탓에 사회가 돌아가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다. 이 선남선녀들을, 필부필부들을 조르주 바타이유는 잉여인간(실제로는 잉여)이라고 부르고, 조르주 아감벤은 벌거벗은 인간(호모사케르)이라고 부른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 제일주의 원칙과 효율성 극대화의 법칙에 의해 견인된다. 그런 만큼 경제성이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사회의 변방으로 밀려난다.



Close up
장지에 채색 15 × 15cm, 2019

Pigeons, an Allegory of a City, a Depressing, Tedious and Grim Anecdote, Or a Jolly Narr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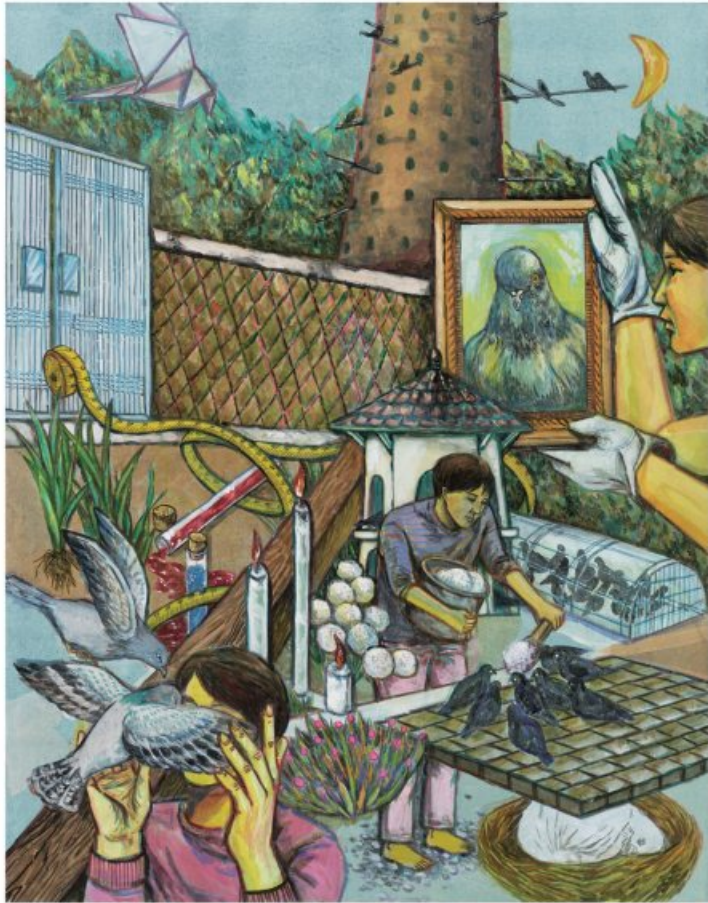
Kho, Chung-hwan art critic

Pigeon is a common sight in cities around the world. They have become, in other words, a permanent fixture in urban landscapes—squares, parks, subway platforms, streets and pavements. But they are not from cities. There are wild pigeons, of course. But it seems almost all the pigeons decided to stay in cities. It also appears that they enjoy getting along with people. The reality, however, turns out to be false. Rather, they are forced to be urbanized. They have no option, and the evolution turned them into despised creatures.

That is where I would find Min Ah Cho's intention to bring pigeons into her works. Cho attempts to identify the pigeons with people in the society. They are too many, just as the cooing birds. They are not unique, not impressive. But they are the people comprising our societies. Georges Bataille defined this public as human surplus. Giorgio Agamben described it as homo sacer naked (of naked life). We are living in the age of capitalism where economic efficiency became bible. On the corner of the society is a collection of anything lack of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홀로서기 Standing alone
장지에 채색 92 × 56cm, 2019



소란 Disturbance
장지에 채색 116.8 × 91cm, 2019

이처럼 작가에게 비둘기는 뺨도 없고 줄도 없는 보통 사람들을 상징한다. 때로 가방 끈마저 짧은 성실하고 묵묵한 건전 시민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유도 없이 싫은 타자며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그네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작가는 비둘기를 내세워 설문을 제안한다. 비둘기에 대한 보편적인 의견을 들을 요량으로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200건의 댓글이 달렸다. 그 내용을 보면 대략 혐오스럽다, 불쌍하다, 귀엽다, 무섭다 정도로 요약된다. 비둘기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묻는 것이지만, 여기에 사회적 약자며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오버랩된다. 외관상 양가감정으로 상반돼 보이지만, 사실은 타자를 향한 일관된 혐오와 배제로 모아진다는 점에서 하나같다. 이를테면 타자는 혐오스러운 대상이다. 사회적 약자는 불쌍한 존재지만, 동시에 니체의 도덕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타자를 향한 동정심과 자선을 단호히 경계한다. 그건 잘해야 그들을 노예의 상태로 묶어두려는 기획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타자는 귀엽다. 욕망의 대상이다(욕망의 모호한 대상).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는 때로 무서운 존재다. 거세된 욕망을 내재화한 존재며, 따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다. 여자하면 상징계의 질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귀환한 실재계의 주민들이다.

Cho identifies the pigeons with the people without connection. The birds could be anyone at the bottom, simply working hard without complaints. The urban birdies could be underdogs of society—nobody cares about them. Cho once attempted to figure out the general idea about the urban birds through SNS, and she found around 200 replies. It could be summarized: "disgusting, pity, cute and scary." Cho asked something about pigeons, and you can peep at how they see second-class citizens: the others. It could be appeared to be mixed feelings, but in fact the opinions are consistently summed up as hatred and exclusion. The others would be seen as something disgusting, for example. Social underdogs could be considered to be something pitiful, but Friedrich Nietzsche warned that we should be wary of compassion and charity done in the name of ethics. It is nothing but a mechanism sustaining the invisible slavery system. The others could be something cute—as a subject of (vague) desire. Along with that, social underdogs could be scary. Suppressed desire would be embodied, and thus it is like a time bomb that you don't know when it is going to explode. The underdogs are real. They are about to break the order.

그동안 주제를 보면 작가의 작업이 보인다.

《숙련과 노하우》(2015~2016), 삶은 서커스의 줄 타는 광대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매사에 기계부품처럼 정확하고 어김없어야 한다(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와 질 들뢰즈의 제도기계). 《오늘의 기억》(2017), 사실은 미래가 없는 세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세대 감정의 역설적 표현이다. 《소란스러운 적막》(2018), 여기서 작가는 정상성으로 포장된 일상성을 뒤로하고 비정상성의 삶의 현장으로 이끈다. 생산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불모의 현실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비껴진 자리에 서》(2019), 작가는 다른 시각으로 보기를 주문한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안중에도 없던 비둘기가 보이고, 안 보이던 타자가 보인다.

이 일련의 주제와 작업들에서 작가는 스스로를 타자로 규정하면서 타자의 시각에서 타자를 본다. 막 30대에 진입한 세대, 삼포세대, 88만원 세대의 성실하고 묵묵한, 기약이 없는, 어쩔 자신도 모른 채 비정상과 불모의 공모자가 된 세대 감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의 눈으로 우화 도시를 보고, 회색처럼 우울한 우의적 삶의 현장을 보여준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An Abstract of a Review by Kho, Chung-hwan, art critic



아늑한 곳 In a cozy place
장지에 채색 56 × 92cm, 2019



dollhouse부터 엄마까지
120 x 180(cm) c-print, 2016



still life
mixed media 80 x 90(cm), 2019

작가와 큐레이터의 (어려운) 대화

성용희 큐레이터

이 글은 조이경 작가와 성용희 큐레이터가 몇 차례 만나 나누는 가벼운 대화를 정리한 글이다. [예술과 관련된 대화가 예술의 중심으로 진중하게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라 포가 형성되기 전에는 핵심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만약 관계가 형성되면 비판적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초면이었고 성격도 사교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작업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는 타입도 아닌 듯했다.] 대화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은 작업의 점진적 발전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조언보다는, 대화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큐레이터와 작가 간의 거리감을 언어화하는 것으로 흘러갔다. [여기서 큐레이터와 작가는 직군의 포괄적인 범주를 뜻하는 것인지, 성용희와 조이경을 국한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내 큐레이팅 활동 분야와 작가의 최근의 작업 스타일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미디어아트나 퍼포밍아트를 주로 다뤘고, 수행적인 작업에 관심이 많으며 회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많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Epiphany

Sung, Yong-hee curator

This is an essay put together the conversations with the artist. It is very hard to reach the core of arts in discussing art. Before Rapport building, it is hard to approach to the essential subject. After getting to know each other, being critical is not easy. Further, we, the artist and a curator, me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seemingly do not have outgoing personalities, and do not easily get along well with discussing her works. Conversation always runs into difficulties. Rather than productive discussions and advices to improve her works of art to the artist, this advising program moves into verbalizing the gaps between us as contemplating what makes our conversation difficult. Here, I, as a curator, am not certain that the terms, artist and curator, indicate an artist and a curator in general or imply the artist, Ikyung Cho, and the curator, Yonghee Seong. This means that my profession does not match her specialty. I have mainly dealt with media art and performing art and am interested in works in action. I frankly tell her that I do not have extensive experience on paintings.



Between New Year's Day and Valentine's Day
144 x 144(cm) c-print, 2019

작가의 최근 작업. 2019년 6월 작가의 개인전을 보면서 첫인사와 대화를 시작했다. 최근 작가의 작업은 기존 영상 작업과는 변화와 차이가 있었다.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이전 영상 작업과 비교한다면 색채와 이미지 중심의 작업 평면작업에 가까웠다. [그것을 회화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회화에 가깝지만, 일반적인 회화의 접근법과 지향점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화는 핵심으로 들어가기 어려워, 주변부를 돈다. 어디의 주변부인지도 구체화하기 어렵다. 어쩌면 이 '어디'의 주변부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이 글에서 중요한 지점일지도.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과신하는 주체는 위험하다. 특히 큐레이터는 더욱더 그렇다. 워크샵, 멘토, 비평,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이 주는 달콤한 유혹, 가려진 폭력, 행정적인 결과물을 우리는 조심해야만 했다. 작품은 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어떤 지점이자, 설명되기에는 충분치 않은 무엇이며, 언제나 초과와 결핍을 드러낸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다. 대화는 반복과 끌라주다.] “우리의 과거도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추억은 억지로 그것을 구하려고 해도 헛수고요, 지성의 온갖 노력에도 소용없다. 과거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서의 영역 밖, 이를테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물질적인 대상 안에 (이 물질적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감각 안에) 숨어 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러한 대상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연에 달려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I, 민희식 옮김, 동서문사, 2010, p.85. 어쨌든 우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그나마 공통의 관심사였던 작가의 초기 작업에 종종 사용되었던 영화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히치콕부터. 작가는 히치콕 영화를 볼 때,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장센이나 소품, 주인공 배우의 스타일 등에 드러나는 감독의 미적 감각에도 관심이 있다고 한다.

실제 작가의 집에 영화 장면을 영상하고 이를 사진을 남기는 것이 2009년 작품 <Psycho> 작업 방식이었다. 바쟁(André Bazin) 쪽에 가깝냐는 내 질문에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 쪽이라고 작가는 대답한다. 이미지를 보관하려는 욕망보다는 시간을 넘어선 기억과 이 기억을 촉발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된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이미지-기억’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결국 한 바퀴를 돌아 이미지는 심리적으로 작동한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14년 2월 24일 오후 8시 25분>도 역시 그러하다. 밖에서 잠을 잘 못 자는 불안은 공간이라는 미장센에 프로젝션 된다. 그리고 사진은 사실주의적 매체가 아닌 기억을 촉발하는 장치, 프루스트적 효과(Proust Effect)가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다. 그날의 대화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내용이자, 환원주의의 위험을 충분히 내포한 질문은 바로 “왜, 무엇 때문에” 일 것이다. 자발적일 수 없는 기억을 꺼내는 것, 불안의 원인과 그 시작을 말하는 것, 작업 후 감정의 변화 등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꽤 흥미롭지만 동시에 상당히 위험하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다행히 멈췄던 것 같다.] <불필요한 위로> 역시 그러하다. 근본적인 이유에서 위로는 불가능하다. 관계는 어긋나있고 위로는 쓸모가 없다. 매체의 특성을 살려 작업하는 방식은 앞 작업과 유사하다. 위로하는 이는 누구이고, 위로받는 이는 누구인가? 호느끼는 여성, 유령 같은 남자. 이 질문들은 연결된다. 앞선 작업뿐만 아니라 <White on Red>, <Marilyn Monroe> 그리고 <Ophelia> <The Wedding Bouquet -a Model, 2016>까지. 그리고 할리우드 또는 영화의 여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공간, 감정과 함께 작가가 이미지에 투사된 것인가? 이미지가 작가에 투영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적절히 회피되거나 모호한 대답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영화의 미장센을 차용하고 (정확히 말해 차용이라기 하긴 애매하지만) 매체의 특성을 살리던 이러한 예전 작업은 심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렇다면 전유, 차용, 끌라주 그리고

I met and talked to the artist for the first time at her solo exhibition on June of 2019. There were some changes and differences between her recent works and previous visual ones. She actively used mediums. But comparing to her previous works, they seemed to be color and image centered paintings. I did not know whether they could be called paintings or not. But consequently they looked like paintings because her approaches to her recent works were not different from the access and directions of a conventional painting. I started to talk with her about interesting movies in common that she used to apply to her previous works. She began to talk about Alfred Hitchcock. She was interested in not only psychological aspects but the director's aesthetic senses reflected on the mise-en-scène, props or styles of main characters in the movies.

The ways to work on Psycho(2009) were that she put a Hitchcock's movie on projection and took photos out of the scenes at her home. I asked again whether her working style was close to one of André Bazin. She said that it was close to the style of Henri - Louis Bergson. Her intention was not things to save images but things to ignite her memories, the memories beyond a time frame. She seemed to be fond of image-memory in a subconscious. Ultimately an image psychologically operated. Her work, At a Hotel in Seoul at 8 : 25 pm on February 24, 2014, was the same as the above. She projected her anxiety caused by a sleepless condition on a spatial mise-en-scène. Her photo was no longer a realistic medium but an apparatus to initiate memories, Proust Effect.

Her work, Unnecessary Consolation, had the same effect. A consolation was basically impossible. The relationship was twisted and a consolation was useless. Her working methods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previous works. Who gave a consolation and who deserved the consolation? This was connected with the questions about a weeping woman and a ghostly man. This included not only previous works but White on Red, Marilyn Monroe, Ophelia and The Wedding Bouquet-a Model, 2016.

Her previous works borrowed the characteristics of mise-en-scène and vivified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 were psychological and extremely personal. Then, were excessive passion, borrowing, *collage* and cinema as mediums successful? This kind of method depending on temporal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dium was attractive. But, how meaningful was it? How did spatiality interact with memories(experiences)? Was it possible to materialize memories and anxiety? The artist could not continue to work on her creation with doubts of those questions. If the artist had not praised and consumed her failures, how could she carry on her creation? I assumed that she had been thinking of what I had been questioning about her works.

When it came to the works of her solo exhibition took place on June, 2019, the differences became bigger. Disconnection from her previous works, the differences in the dialogue between her and her curator and despair resulting from failure to get deep down into a core occur. It became much harder to talk about her works. Her works were unconventional. In order to maintain shapes, she made lumps on a certain medium, took them out and applied them into another canvas. This seemed to be overtly different from her medium, specific practice and exploration that she had done quite awhile in her cinema and photos. Her works done in 2018 were the same as the above. In these works, a human figure appeared. But, in 2019 work, a specific image of a

영화라는 매체는 성공했는가? 시간성과 매체성에 기대는 이러한 방식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유의미한가? 공간성과 기억(경험)은 어떻게 교차하는가? 기억과 불안을 물화하는 것은 가능한가? 작가는 이러한 질문이 들기 시작하면 작업은 계속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실패를 예찬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작가 자신도 오래전부터 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2019년 6월 개인전 작업으로 넘어오면서 괴리감은 더 커진다. 과거 작품에서의 단절, 작가와 큐레이터 사이의 대화에서 간극 그리고 더욱 핵심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좌절이 발생한다. 작품에 관한 이야기는 한층 어려워졌다.

작가는 물감/피그먼트를 전형적인 매체(캔버스) 위에 그리는 것이 아닌,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매체 위에 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그곳에서 떼서 다른 평면 위에 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전 작업, 작가가 꽤 오랫동안 진행해온 영상과 사진 작업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혹은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공감 가는) 매체-특성적 실천/실험과는 확실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8년 작업의 기법은 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 작업 내에 인물(역시나 여성)이 등장했다면, 2019년으로 오면서 구체적인 이미지가 사라진다. 당연히 매개된 서사, 감정, 기억은 사라진다. 일단 보는 이들에게는 말이다. 회화를 모르는 관객은 (심지어 큐레이터인 나마저도) 그 작업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인지 추궁인지 모르는 우리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해 본다.

큐레이터: (이런 방식의) 목적은 어디 있냐?

작가: (작업 과정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다. 결과(물)가 목적이다. 나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작업한다. 결과물의 미적 완성도가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관객들이 작업 의도를 이해하든 하지 않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큐레이터: 완벽한 시각적 이미지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인이 되어가는 건 아닌가?

작가: 한국의 상황에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다.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싫은 (중략) 비슷비슷한 작업을 하는 그 안에서 피곤함을 느낀다. (중략)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못 잡아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 보다.

작가의 솔직한 언급 (노동집약적 과정, 이미지 중심, 예쁘게 나오는 것, 그것도 내가 고안한 독특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에 대한 선호)을 글로 적는 것이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다. 미술계 종사자들이 종종 말하듯 (물론 냉소적으로) 일종의 '미술관 작가'가 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미술관 큐레이터로서 (견방진 이야기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어떤 작가로 작업할지 구상하라고 조언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 조언 프로그램의 미덕일까?]

작가에게 미술은 하루를 보내기 위한 철저한 자기적 작업 (여기에는 다양한 특성 단어가 붙을 수 있다. 자기-연계적, 자기-지시적, 자기-특성적, 자기-구성적, 심지어 자기-만족적 등)이 되어가고 있다. 대화를 마치고 며칠 시간을 가지면서 글을 정리하다 보니, 작가는 사회와 개인적 영역에서 매개이자 장치로 진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진자운동은 시대의 징후일지도 모를 것이다. 프루스트의 긴 소설은 물질에 숨겨진 기억을 말한다. 존재를 넘어서는 심오한 무엇인가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타인에 대한 실천을 강조한 비평적 디자인(critical design) 운동은 그 이후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한 디자인으로 회귀했다고 큐레이터는 작가에게 말했다.]

경기창작센터 어드바이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필된 글의 부분 발췌입니다.

human being disappeared. Of course, mediated descriptions, emotion and memories were gone accordingly. I meant this to her audiences. They, who were not aware of paintings, including me, had difficulties to understand her works.

I asked her, "what is your purpose in doing this way?"

She said, "the outcomes are different(depending on a creative method)." "My solo purpose is an outcome." "I create a work of art in order to obtain what I want to have." "An aesthetic achievement of the outcome reaches to a certain point, where the audiences can experience something regardless of their understanding or unawareness of the intentions of the works" Then, I asked her again, "do you become an expert, who can perfectly deal with visual images and mediums?" She stated, "under the circumstances in Korea, there are some personal difficulties to talk about serious issues, the difficulties that I do not want to reveal. I am tired of doing similar works. I am worrying about an ill choice from something new."

I was not certain that it was appropriate for me to write about her honest statement. She might be on the way to be an artist very different from a gallery artist, who many visual art stakeholders sarcastically address. As a curator, should I suggest that she consider what kind of artist she would like to be and what kind of art works she wish to create in a long term? (Is this a virtue of this advising program?)

A visual art to her becomes her own impeccable work(here, various specific terms can be attached, such as self-related, self-instructed, self-specified, self-organized, even self-satisfied and so on) to spend a whole day. As recalling what I should write about awhile after my dialogue with her, I think that she, as an artist, works as not only a mediator but a mechanism in a societal and personal realm. This may be a sign that a current society requires from an art realm. A long novel by Proust implies memories hidden under the materials. Something deep beyond its existence may not be there. (The curator tells the artist that the critical design movement requiring actions towards others returns to the design for solely oneself.)

A Dialogue with the artist by Sung, Yong-hee, curator



Vertigo(S)
video collage 3분 54초, 2010-13



Ophelia
video installation 20min, 20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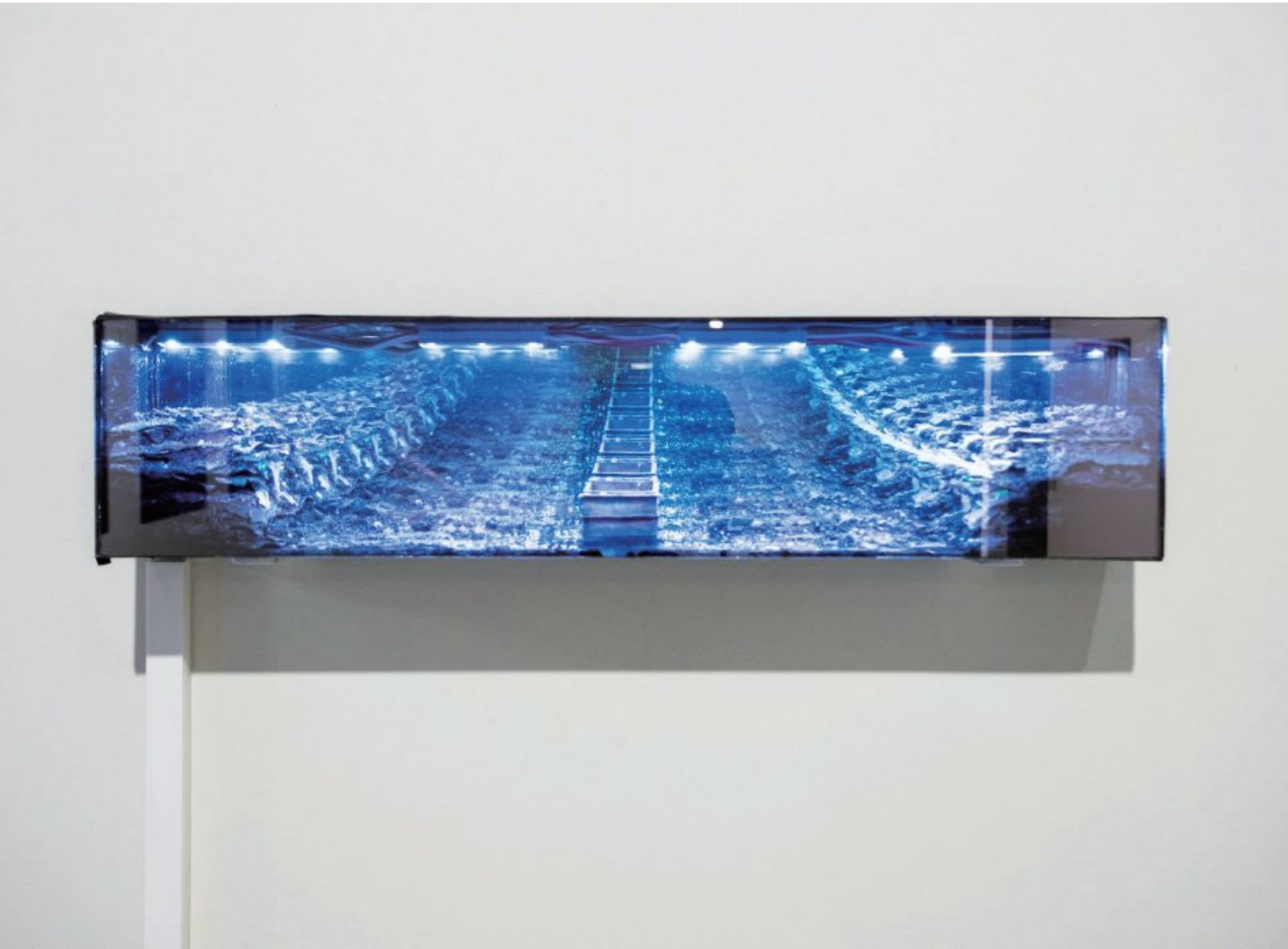
PROJECT

ARTISTS

구소영은 사람과 공간 그리고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에 상생하는 여러 교차점에서 제시된 화두를 발굴한다. 주로 사람과 마주하는 프로젝트와 교육을 매개로 예술적 지점을 제시하며 참여자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을 확장 을 시도한다. 우리는 매일 나와 타인 그리고 공간 사이에서 괴리감과 불편함을 마주하곤 한 다. 이는 현대 사회인들의 불안감 혹은 소통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생태계 안에서 보이지 않 는 불안감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해소화 시켜봄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관계를 실험해 보고 있다.

Goo So Young unveils the topics presented at the intersections of dystopia and utopia, which are widespread in our society, on the theme of people, space and story. It presents artistic points through project and education, mainly concerning people, and attempts to expand the participants' perspectives. We are faced with a sense of discomfort between ourselves and others and space every day. It is experimenting with the inherent relationship by diagnosing and expressing invisible anxiety in the unstable ecosystem of modern society where people are anxious and cannot communicate.

저푸른초원아래
장소특정적 가변설치, 2019



검은정원 참여형 전시 202018



마을의정원
참여형 예술교육 202018



흐르는 몸마음 프로젝트
참여형 프로젝트, 2019



예술기획 프로젝트 202019

나는 사회 속 규칙, 환경을 탐색한다. 사회에서 제공되는 환경과 언어는 공허함의 집합이다.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른 약을 복용하는 모순적 순환이 세상의 주류적 모습이다. 나는 퍼포먼스를 하고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길을 걷다가 퍼포먼스를 실행한다. 길 위의 사물을 정리하고 쓰러져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사물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놓는다. 카트를 타고 내리막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진다. 풍력발전소 프로펠러를 움직이게 하고 입간판의 번쩍거림을 조종한다. 이 행동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I am exploring regulations and the environment in the society. The environment and language offered by the society are the compilation of emptiness. In order to prevent the side effects from taking a pill, taking another pill is a paradoxical circulation and is the reflection of the stream of conscious in the mainstream society. I do a performance and record it visually. On walking on a street, I do perform. I do arrange stuffs on a street, raise the fallen ones and turn the stuffs to the directions towards where I would like to go. I ride a cart to the down hill and crash into the sea. I do manage to turn a propeller of a wind power plant and control the twinkle of street sign boards. I do not remember this.

작은 것은 언제나 큰 것을 집어 삼킨다
단채널 비디오 6분 28초, 2019



회귀본능 전시전경



작은 것은 언제나 큰 것을 집어 삼킨다
단채널 비디오 6분 28초, 2019





내려가는 것은 모두 한데 모인다
단채널 비디오 6분 17초, 2019



온힘을 다해서 달리면 어느 순간 날아오른다
단채널 비디오 5분 25초, 2019

Green Art Road Project
HD 비디오, 사운드, 싱글 채널, 3분
HD Video, sound, single channel, 3min, 2019



김은솔은 인간의 삶과 기술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으며 영상, 피지컬 컴퓨팅, 컴퓨테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낙관적 또는 비관적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그 경계에서 의미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기존의 의식구조를 허무는 탈학습을 실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 내에서 자신과 물리적 혹은 작업적으로 직접 닿아있는 대상들(역사, 재난, 환경의 키워드)을 한층 더 깊게 관찰하고 상응하는 매체로 표현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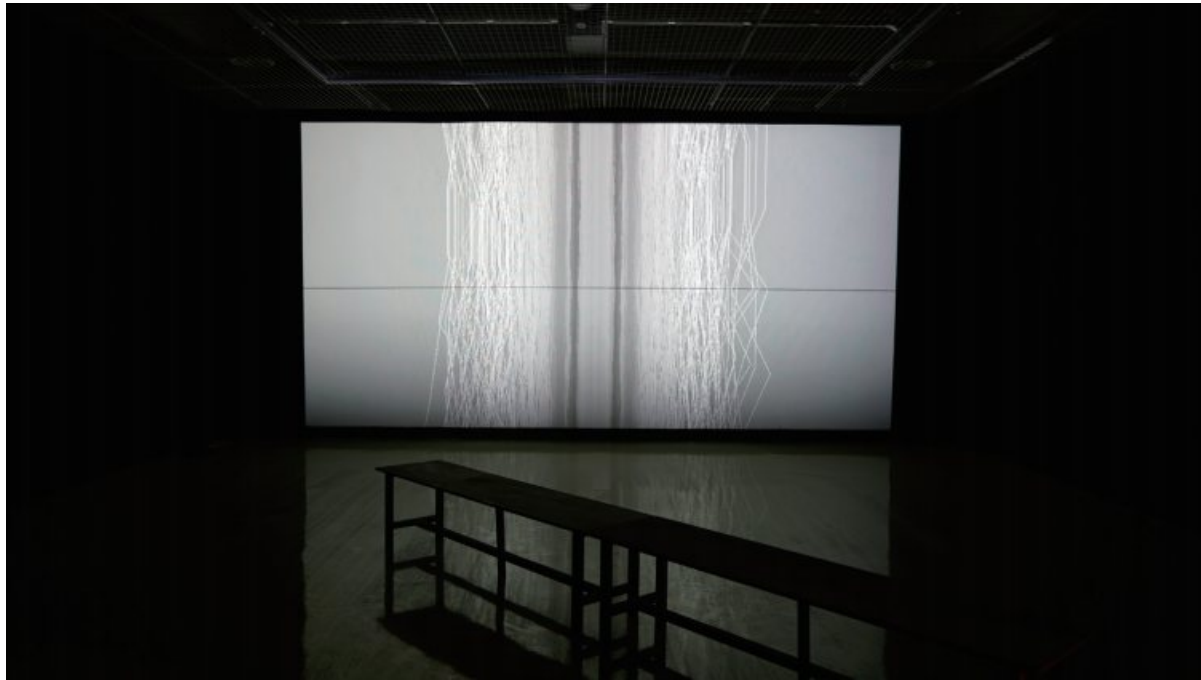
Kim Eun Sol works with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life and technology, and uses various media such as video, physical computing, and computation. Rather than taking an optimistic or pessimistic attitude toward technology, she is asking meaningful questions at the boundary and trying to practice escape-learning that disrupts the existing structure of consciousness. In recent year, she has been focusing on object(history, disaster, environment) that are related to her in a physical and professional sens within the city based on thorough observation and expressing them in the corresponding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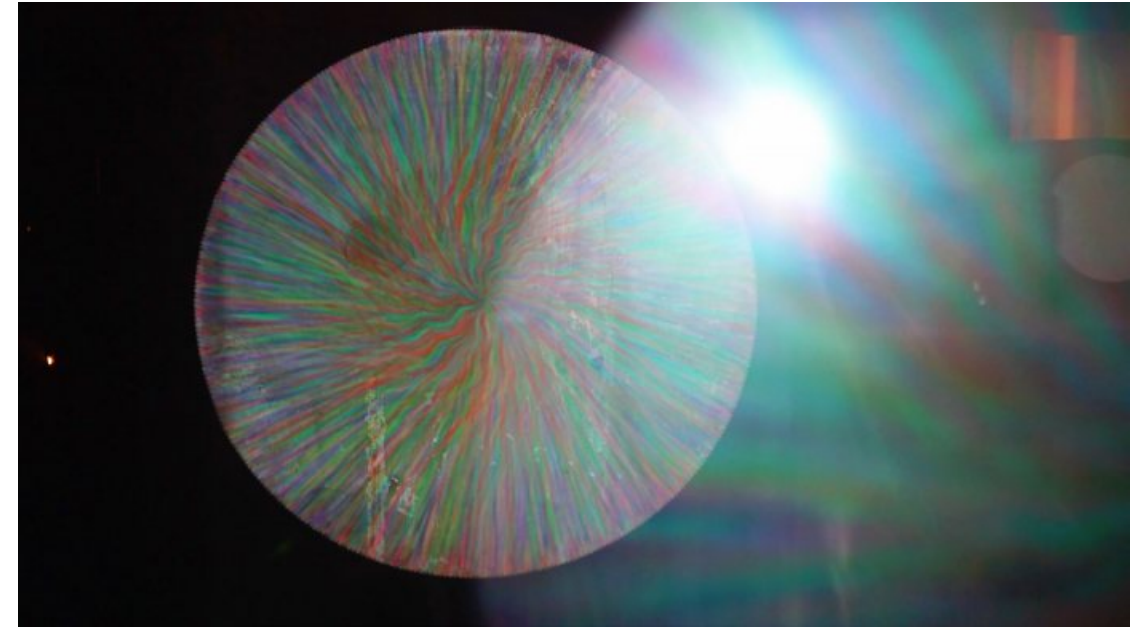
Green Art Road Project
HD 비디오, 사운드, 싱글 채널, 3분
HD Video, sound, single channel, 3min, 2019

김은솔은 사진과 영상, 미디어아트를 전공하였고, 서울사진축제(2011), 주안미디어페스티벌(2013), 금천예술공장(2015) 등 다수의 그룹전 및 스크리닝에 참여 하였으며 서울국제실험영화제 jungwoon AWARD 수상(2011) 및 다빈치크리에티브 공모전 (2015)에 당선되었다. 미디어아트 교육 및 연구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Kim Eun Sol majored in photography, video and media art and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nd screenings such as Seoul Photo Festival (2011), Juan Media Festival (2013), Geumcheon Art Factory (2015). She won Seoul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Festival jungwoon AWARD (2011) and the DaVinci Creative Competition (2015). She is also active in media art education and research.



알파와 오메가 Alpha and Omega
데이터오디오비주얼 설치, HD 비디오, 2채널 사운드, 싱글 채널, 3분
Data Audiovisual Installation. HD Video, two channel sound, single channel, 3min, 2019



흐르는 몸과 마음 : Circle - Flowing body and mind
비디오 설치, HD 비디오, 싱글 채널, 3분
Video Installation. HD Video, single channel, 3min, 2019



흐르는 몸과 마음 : Circle - Flowing body and mind
비디오 설치, HD비디오, 싱글 채널, 3분
Video Installation. HD Video, single channel, 3min, 2019

몽중풍경 드로잉 Dream landscape Drawing
oil on paper, 2019



깎인산 shaped mountain
45.5 × 60.6, oil on canvas, 2019

갈매기다리 seagulls bridge
130.3 × 324.4, oil on canvas, 2019

여행, 또는 일상생활 중 이동을 위한 장소에서 포착한 창밖 풍경의 수집을 토대로 ‘몽중풍경’과 ‘나른한 소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구현한다. 일상에서 이동 수단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주목한 점은 이동성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창문을 바라보는 것과 움직임의 수행성을 가장한 수동적 태도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연속되는 풍경을 지각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한 수행성에 나른한 휴식을 동반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은 감정의 환기를 이끌며 반복되는 일상 속 해방감을 경험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방감의 부재는 공허함으로 연결되었으며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강박으로 변모한다. 순간을 보고 담는 행위는 억압된 현실에서 유예의 시간을 제공한다. 흔들리고 흩어지는 자연은 보다 유동적이었으며 그러한 장면의 지각과 회화로 옮기는 행위 모두 해방감에 초점을 두었다. 감정을 회화로 옮기는 과정은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지움으로써 생성되는 이미지와 명확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통해 구축된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표현의 반복은 편안함과 불안함의 중간지대를 만들어낸다.

I create a new world through my works, Landscape Amid Dream and Drowsy Noise, reflecting the collection of landscapes captured during driving. The things that I pay attention to at a closed space in the car are what I stare at through a car window, which mobility is visually sensed mobility, and become passive as pretending to do an action. When recognizing that landscapes are consistently changing, I feel like accompanying a lazy break within my performance towards my destination and getting free from a mundane life as the moment leads to the refreshment of my emotion. But, the absence of emancipation causes emptiness and becomes my burden to request continuous motions. Action to see and contain instant moments offers procrastination under the repressed reality. Shaking and spreaded nature becomes more flexible. The expression of these senses through paintings is an action to achieve emancipation. In transforming emotions into paintings, the images created by making and erasing vivid images are constructed by the repetition of drawing overt and ambiguous parts. The repetition of these irregular expressions makes a bumper zone between comfortableness and instability.



갈매기 다리 seagulls bridge
130.3 × 324.4, oil on canvas, 2019



나른한 소음 #1 Floating Noise #1
193.9 × 448.4, oil on canvas, 2018



깎인산 shaped mountain
45.5 × 60.6, oil on canvas, 2019

‘몽중풍경’은 쉬어가는 것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는 현대의 풍경을 렘수면 상태에 비유하며 본인의 모호한 감정에서 비롯된 현대의 풍경을 제시한다. ‘나른한 소음’은 이동하는 장소 속에서 지각한 스친 순간들의 재배열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한층 더 편안한 리듬을 형성하고 관람자에게 유동적인 사고와 시선의 교란을 제공한다. 새로 진행 중인 연작은 경기창작센터가 위치해 있는 선감도의 폐쇄된 도로의 풍경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다. 드러나 있으면서도 숨겨진 그곳은 일상의 권태가 스며드는 것 같으면서 또한 해소되는 것만 같은 이질적인 감정이 공존한다. 특정한 다리를 고집하는 수십 마리의 갈매기들, 가운데만 도려낸 깎인 산은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그곳의 생경함에서 오는 긴장을 통하여 현실 속 비경을 시각화한다.

His work, A Landscape Amid Dream, depicts with REM sleep a current landscape caused by his ambivalent feelings towards a break. Drowsy Noise, one of his works, suggests a wide sight space and comfortable rhythms as rearranging the moments of his awareness on move. This also reflects the flexible thinking and sight disturbances of the audiences. The artist works on a new sequential as he privatizes the landscapes of abandoned roads in Seon-gam island, where Gyeonggi Creation Center is located. It is an exposed and at the same time hidden place, where two foreign feelings coexist, the feelings that daily fatigue permeates into and evaporates from the daily life there. How long do so many crows, which are adamant about resting on a certain bridge, stay alive? And, how long has a mountain had a hole in the center? The artist visualizes the unexplored landscape in reality through tensions from its unfamiliarity.

Monument of 2019
암염, 비누, 일랑일랑향 52 × 31 × 90
Monument of 2019 pink salt, soap, Ylang-ylang 52 × 31 × 90, 2019



그로부터 비롯된 거친, 해면
Things came from that: rough, surface of the sea
스폰지, 자갈패블, 석고 57 × 96 × 70
sponge, pebble, plaster 57 × 96 × 70, 2019

악수 후 손에 남은 온기, 포옹 후에 남아있는 잔존감이 말해주듯
우리의 행위들은 서로에게 일정한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접촉 후 남은 잔존감각을 가진 만지고 싶은 덩어리를 만들거나,
사람들의 행위가 지나간 자리를 설치작업으로 기록합니다.

저에게 작업과정은 다양한 지점들의 만남인 동시에 저만의 방향정위법을 익히는
과정이기도합니다. 나와 관계한 다른 대상들(타인, 공간, 시간, 물성 등)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층위를 경험합니다. 제 작업을 통해 접촉의 욕구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현재위치를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몸이나 살로 느끼고 해석되는 부분들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작업들은 여전히 촉각에 집중하면서 작품 자체가 가지는 물성,
공간과의 관계, 재료의 특성을 통해 저의 현재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일기를 쓰듯 물감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고 있는 물감조각, 모서리에 끼워져있는
작은 조각들, 습기에 녹아내리는 조각작품, 본래의 기능에서 멀어져 촉각적 자극의 대상이
된 사물조각들을 통해 작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남의 지점들을 엮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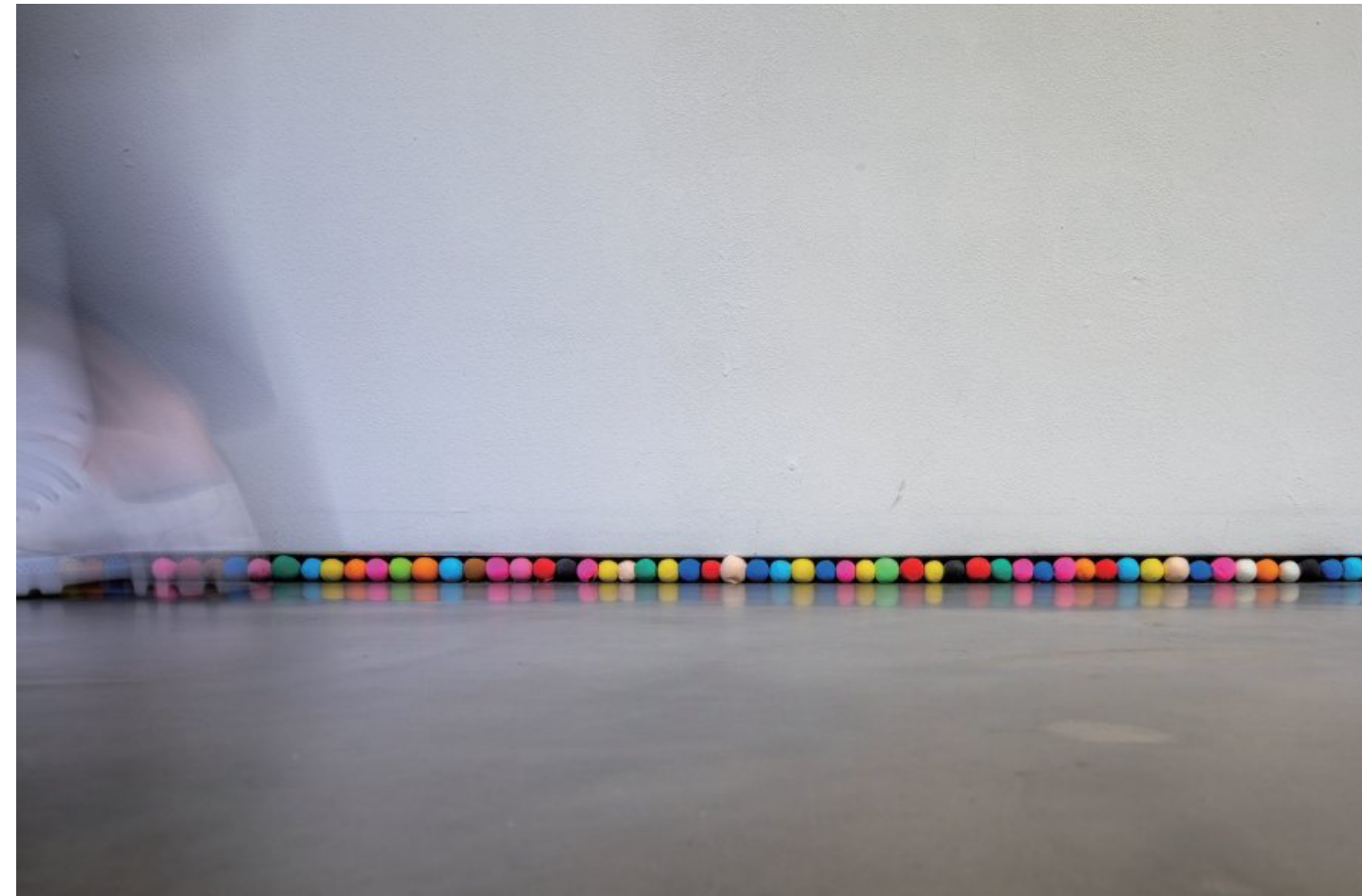
그로부터 비롯된: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Things came from that: Landscaping, Modeling and Diorama
모형스펀지, 코르크 91 × 61 × 135
sponge, cork 91 × 61 × 135, 2019

Our behaviors leave certain traces to each other, just as warmth stays awhile after shaking
hands and feelings continue after hugs. The artist works on making a touchable bundle that
reflects the remains of human contacts or an installation that depicts the traces of human
actions. Her working process is a procedure to meet diverse moments(incidents) and to
recognize her own directional orthotropic method. She experiences manifold layers through
interactions with others and materials. The artist hopes that the audiences sensuously
realize their current positions as recalling desires and memories through her works. Her
works focus on the expressions of emotions and understandings caused by physical
contacts. In her recent works, the artist strives to identify her current status as interacting
herself with the materiality of works, the relations with a spa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Through the fragments of paints that compose the moments of daily life like a diary, small
pieces wedged on the corner, a sculpture melting down by moisture and the pieces of
objects converted into tactile stimulations after losing their original functions, the artist
compiles the contact points in the process of creation.



물감조각 Painted Sculpture
캔버스, 아크릴물감 10 × 10 × 5, 2014년부터 현재
canvas, acrylic 10 × 10 × 5, 2014~ on g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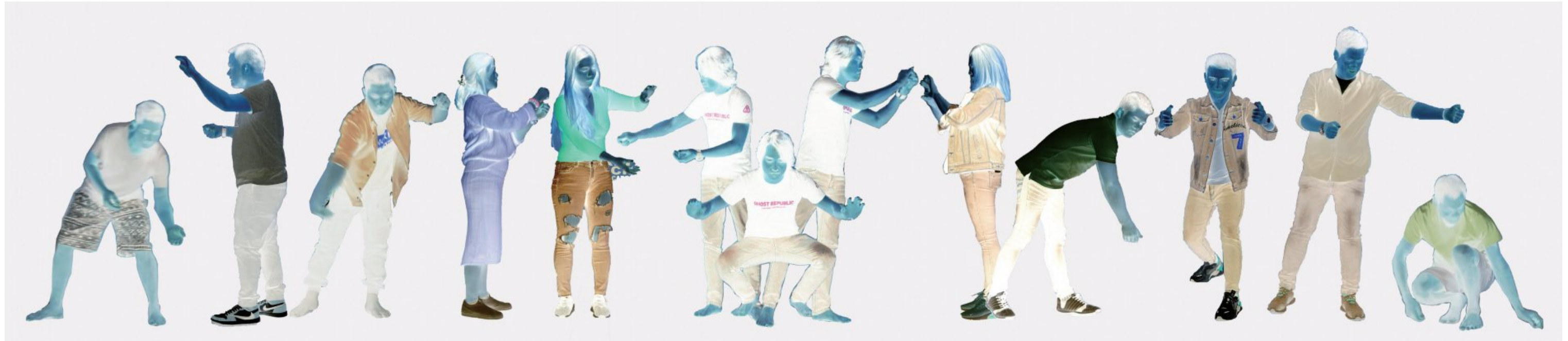


둥근모서리 The Round Edge
컬러클레이 가변설치 clay variable installation, 2019

최근 나의 작업은 도시인의 거주양상의 단상을 특정 장소와 사람 그리고 집이라는 소재를 연결시켜 보여 준다. 나는 현대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도시거주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삶의 공간과 삶의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현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질문을 작품을 통해 던지고 있다.

The artist Sungjin Song's recent works show the interrelations of the platforms of city dwellings reflecting specific places, human beings and houses. The artist has strong interests in city dwellers, who have the life of diaspora in a contemporary term. His works suggest new feasibilities of living spaces and patterns and questions on current living attitudes.

동작들
피그먼트 프린트 150 x 32cm, 2019



과거의 작업들이 주로 홀로 관찰을 통해 진행했다면, 2017년 '자세들'이라는 작업을 통해 프레임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와 개개인의 모습을 수집하며 구체적인 맥락을 영상으로 담았으며, 2018년 작업 '한평조차'에서는 작가 스스로의 움직임이 작업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했다. 또한 이주와 거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2019년부터 진행중인 작업을 위해서 경기도 안산 - 지구인의 정류장, 외국인노동자쉼터, 경남 김해의 미안마도서관, 네팔, 필리핀노동자연합 등 관련된 여러 공동체들과 실제 관계를 맺으면서 협업의 방식으로 진행 이를 통해 이들을 대상화 아닌 주체화하는 작업의 구체적인 구상을 이루고 있다. 어떠한 문제의식에 깊이를 더하는 과정과 더불어 더 천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공간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룰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다. 과거의 작업이 관찰과 문제제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지금은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인 개입과 실천을 통한 작품제작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His past works were done by individual observations. A series of his works, Attitudes(2017), bring dwellers into a frame, collect the features of individuals, tape detailed contexts. In his work, Even Two Square Meters(2018), the actions of the artist become the sources of his creation. In doing so, he becomes part of the local dwellers. Since 2019 he has worked with diverse migrants as not objects but subjects with the help of migration unions in order to make his plan feasible. The artist contemplates how to draw migrants' accordance and to bring forth to implementation as he adds in-depth critical minds and further excavation of the stories to the context. Previous works mainly deal with observations and raising issues. But current works involve in an issue making, active participations and implementations.



동작들
싱글채널비디오 20분 19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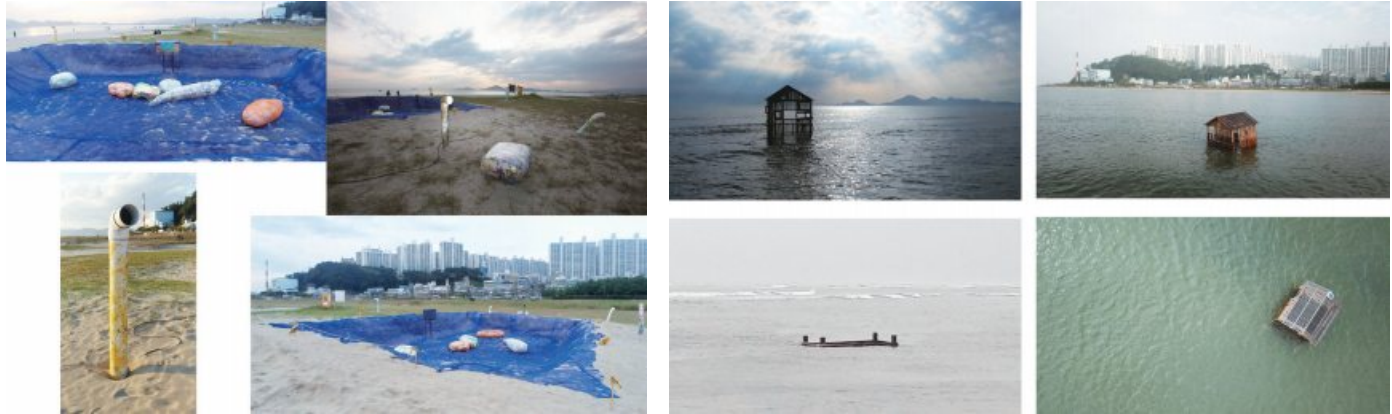
창작가와 활동가의 위치에서의 고민

문제의식을 시각화하는 작업에서 나는 소극적 개입과 스며드는 현장성을 기반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작가와 작품대상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가 협의되거나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창작활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문제제기의 대상을 소비하는 형태의 작업이다. 폭력적이거나 직접적인 드러냄을 통한 이미지를 소비하는 형태의 작업은 피로도과 함께 혐오라는 거부반응을 불러왔다. 이러한 방식을 지양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창작가와 활동가 그리고 대상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느리지만 견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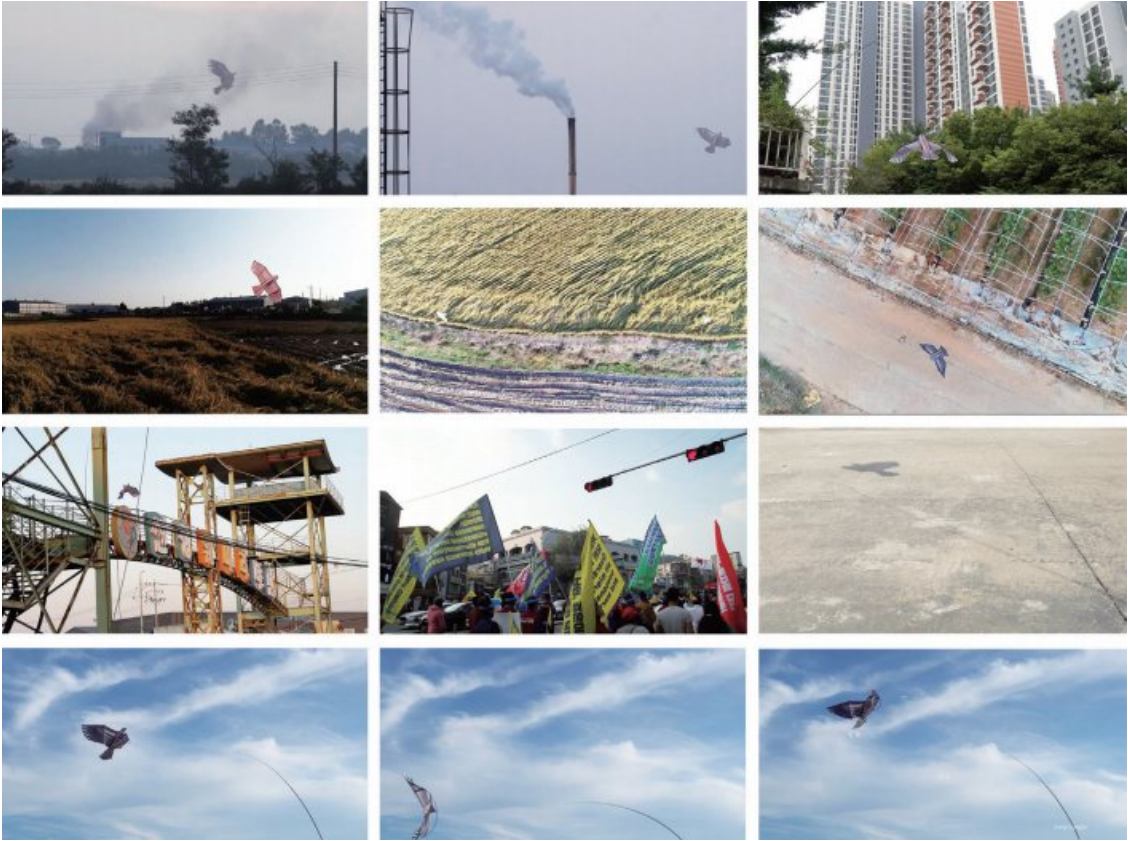
Cogitations between as an artist and as a social activist

In visualizing societal issues, the artist initiates works of art under the passive involvement and current conditions. As closing the gap between him and objects of the art works, he approaches the ways that the artist and the subjects accord to and work together. The attitudes to consume objects that raise issues is the most dangerous factor in active involvement of creation. Works to spend images from a violent and direct revelation have caused fatigue and rejection called hatred. The artist carries out the projects with slow, yet firm methods that an artist, social activist and a subject play their own roles.



있으나 없는 - 너머.
1000 x 1200 x 300cm 이내 가변 혼합설치, 영상, 2019

한평
180 x 220 x 230cm 혼합재료, 2019



양말
싱글채널비디오 11분 03초, 2019

city gong
200 x 140cm, Acrylic On Canvas, 2014



CITY U a.b.c.d.e
woodcut & collagraphy & monotype on B.F.K paper 40 x 28cm(15EA), 2019

이언정, 익숙한 그러나 낯선, 나만의 공간

정지은 미학/철학박사

한때 사람들은 도시 공간을 동경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시 공간은 마치 만국박람회장처럼 무엇이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늘 변화하는 역동적 공간처럼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가 반복되면 두근두근하며 기대했던 바로 그 변화가 권태의 원인이 되고, 새로움이 반복되면 바로 그 새로움이 낡은 것이 된다. 그런데 변한 것은 도시인가, 우리인가?

이언정의 유쾌한 도시는 낯고 권태로워진 도시를 다시금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로 바라볼 수 있는 마법의 안경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이언정의 도시가, 우리 각자가 선사받은 마법의 안경으로 바라본 세계와 똑같은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단 저 유쾌한 도시를 보고 나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도시는 새로운 색을 입기 시작한다.

이언정의 도시는 박람회장처럼 잡다하지만 무질서하지는 않다. 그 안에는 현재의 도시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도시까지 포함한 세상의 온갖 도시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서 있고, 작은 소리들을 낸다. 시선을 멀리 두고 보았을 때 도시는 마치 경비행기를 타고 비스듬하게 바라보는 도시처럼 나타난다. 빛과 그림자는 도시의 어둠과 밝음이라는 숭고적 대비를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프로젝터로 쏘아진 양 빛에 의한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있다. 시선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도시는 작가가 공들여 배치한 소품들로 이 도시가 무언가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Seemingly Familiar, yet Actually Unfamiliar Space, My Own Space

Jeong, Jieun Ph.D., critic

Once human beings admired an urban space because it seemed to be a place, the place portrayed as an active site like the World Exposition, where somethings were new and changes always happened. However, as variations persistently happen, exciting longings for change become a reason for tiredness and repeated newness becomes mundane. Then, is the changed one a city or human be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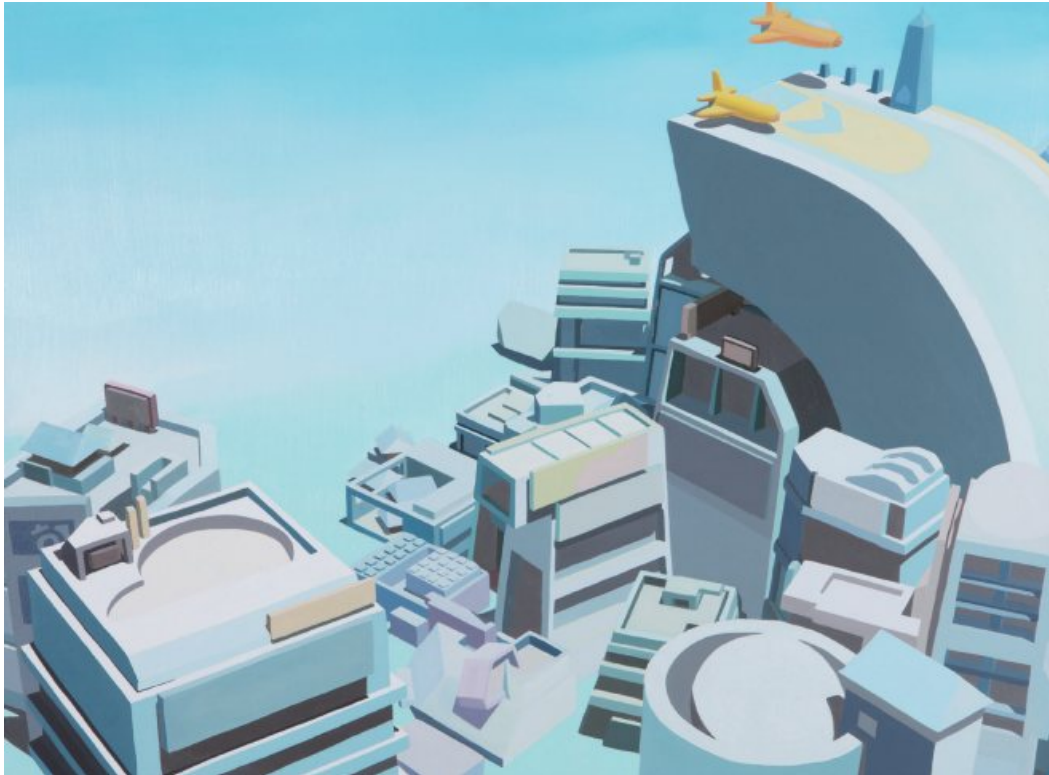
The pleasant city of the artist, Un-jeong Lee, offers a magical glasses to her audiences, the glasses to look into a new city in transformation out of an old and boring city. Her city should not be the same world, where her audiences see through her magical glasses. But after encountering her cheerful city, which the audiences get used to, it gets painted with whole new colors.

The artist's city is not disordered but diversified like a fair. In her variety cities, including the current, the past and the future city, they coexist next to each other and make sound in a low tone. When seeing it from a distance, her city appears itself as a city that one slantly gazes at from a light airplane. The light and shade are for not the expression of the transcendental contrast of city's darkness and brightness but the articulation of the vividness projected by the light. When one looks into her city, one can be aware that the city is the place, where somethings interesting take place through articles carefully displayed the artist.

A Review by Jeong, Jieun Ph.D., critic



CITY Ulsan - The Good Place
woodcut& collagraphy& monotype on korean paper, 72 × 200cm, 2018



City ER
45.5 × 61cm, Acrylic Oil On Canvas, 2016



City P-C
100 × 100cm, Acrylic-Oil On Canvas, 2016

담담한 향해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9



담담한 향해
혼합매체, 가변크기, 2019

물질을 정지된 형상이나 대상이 아닌 반응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은 결과물을 계획하고 만들어지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활동이다. 나를 포함한 풍경에서 발견되는 물질, 환경 등을 수집하고 이들을 미시적인 관점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수집된 오브제들은 손에 쉽게 잡히는 크기와 들 수 있는 무게, 생활에서 쉽게 보이는 친근한 재료들이라는 공통점이있다. 이를 다양한 관점으로 나와 동일한 위치에서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물질의 상징성을 사라지고 형태와 물질성만 남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마치 물질의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를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나를 포함한 이 모든 요소들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집중시키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물질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 '존재 자체'를 바라보게 되고 이 모습은 가장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거시적으로 보면 모든 요소들이 정지된 상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반응하는 사건으로서 읽히게 되는 것이다.

I am doing my art works by understanding that an object is not a stopped figure or target but it is reacting incident. My work is not an intentional behavior made by planning but my daily routine and natural activity in my life. Collecting a distinctive object during my walking is my old habit. These collected objet have their common such that they are easy gripping size and weight in hands and easy-to-be seen in daily life. Once they are interacting each other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same location as me, their symbolic aspects which we had originally known disappear and their shapes and physical properties are only left. Through this procedure, it becomes possible to view object by a person's perspective as if it had no information of the object at all. This exposes its original shapes by concentrating each's relations while we have close relations including myself. This process enables to see objects' existence itself not a reason of existence and it might be most natural and realistic feature. Although it seems to be nothing in terms of widened view, it is read as 'An incident' reacting continuously in terms of microscopicview.



가는 바람, 오아시스
유리, 벽돌 등 가변크기, 2018



빛이 되는 것
단채널비디오, 9분 3초, 2018



빛이 되는 것
플라스틱, 호일, 산호석 등, 가변크기, 2018

더 나은 정신적 풍요로운 삶을 위해
181 x 227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9



그 조각들은 말없이 지나간다
회화콜라주에니메이션, 60sec, 2019

좌초된 욕망의 심리적 풍경으로부터 환영적 헤테로토피아로

조지현 우민아트센터 학예실장

현실과 이상 사이에 갇혔던, 자존과 먹고 사니즘 사이에 갇혔던,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현재로 동기화될 수 없는 이상적 계획과 기대를 재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려야만 한다. 이러한 간극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노력만으로는 전복이 불가능한 新 계급사회를 향해 가속도를 내는 양극화된 사회 자체가 원인일 수도,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기보다는 회피하려는 개인의 학습된 무기력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외부와의 아무런 접촉 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 있던가, 많은 욕망을 타동적으로 거세당해야만 하는 '기대 감소의 시대'라는 파국적 풍경 위에서 우리의 삶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패나 좌절의 모든 이유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다. 역으로 암울한 사회적 여건으로부터 개인의 불행이 촉발되었다는 혐의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이다. 전희경의 회화는 도래하는 파국적 시대의 풍경 앞에 자아의 분열적인 욕망의 에너지가 두께의 외피를 입고 조형적 배치를 통해 회화의 추상적 공간에 수렴된 내면의 풍경 그 자체이다.

전희경 Heekyoung Jeon

From Emotional Landscape of a Strangled Desire to Illusive Heterotopia

Cho, Ji-hyun critic & curator

We, as human beings entrapped between reality and ideal and self-esteem survival, encounter the moments, when we reorganize an ideal plan and its expectations that are unable to synchronize due to individual reasons. In considering the reasons why the gaps in the synchronization are not closing anymore, one of the reasons can be a bi-polarized society itself, the society where only endeavor never turns over a new hierarchy or the individual's incapability learned from reluctance not to face the gap, rather than daring to overcome the barriers in reality. The artist's paintings are the accepted inner landscapes in the abstractive spaces of paintings through formative arrangements, the arrangements covered with a thick outfit of the energy of a divisive desire in front of an imminent destructive era.

작가는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무의식과, 의식의 순차적인 개입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생동하는 내면의 에너지를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적 태도로 우연의 매개로 소환된 붓 터치를 꺼내놓은 뒤에 철저한 계획을 통해 3차원의 두께를 가진 형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계획적인 무목적'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의도된 의식 내에서만 부분적인 자발성만을 이끌어내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이러한 제작 과정의 필요는 멀어지고 이내 불투명해졌다가, 선명해졌다는 반복하는 운동에너지의 관성이 고스란히 관람자에게 감각적으로 전달되는 유사-체험의 효과로서 명증된다.

The artist takes steps of unconscious and conscious involvements in order to finish her works. First, she calls upon brush touches resulting from seemingly accidents as means of existential auto-technique demeanors and manufactures a three-dimensional shape with live inner energy under a precise plan. This manufacturing method is understood as an action of a precise indirection and a will to draw partial spontaneity from intentional conscious. The inertia of kinetic energy from the procedures of the work is a proven effect of similar experience that sensually transfers to her audiences. Her works easily seem to be two-dimensional paintings by the deception of live brush touches. Yet, as carefully looking into the works, they can cause a three-dimensional optical illusion by the layered perspective. They are not three-dimensional sculptures but layered two-dimensional shapes that cause floating illusive spaces. The artist encourages her audiences to recognize a two-dimensional painting as a tree-dimensional one as she attempts to interchange paintings with elements of a sculpture.

쏟아나고 자리잡고 뒤틀리거나 사라져가는
227 × 363cm, 캔버스에 아크릴릭, 2019



〈안온한 세계〉 전시 전경
(구)떡집, 대부도, 안산



〈안온한 세계〉 전시 전경
(구)떡집, 대부도, 안산

그의 회화는 생동하는 붓 터치에 현혹되어 평면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자세히 바라보면 중첩된 레이어가 획득한 원근감에 의해 3차원으로 착시된다. 우리가 흔히 조각으로 인식하는 3차원의 물리적인 조각은 아니나 두께를 가진 납작하고 가벼운 2차원의 조각적 형태들이 부유하는 착시적 공간을 구현한다. 작가는 회화를 조각적으로 교차시키는 시도를 감행하면서 회화라는 2차원의 매체적 조건을 3차원의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시선을 툭툭 끊어내는 물질성이 강조된 역동적인 붓 터치들은 평면성에 기반한 회화라는 매체의 한계 조건을 상기시키며 3차원의 공간으로의 지속적 몰입을 방해한다. 전작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세계를 완료형의 시제로 재현했다면 현재는 임박한 파국적 상황을 예견하는 임시적 절망의 유예 공간을 현재진행형으로 서술하여 작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열망하는 대신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세계를 구축해내고자 한다. 회화적 상상력에 의해 구현된 전회경의 회화는 추상적 시공간은 현실과 분리되어 시간이 이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나 현실 공간의 일부이면서 환영적 공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의 대부분의 핵심 명제를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주체의 좌표 설정은 단순히 시각 경험 뿐이 아니라 작가가 조형적으로 구축한 회화적 공간의 공감각적 심상을 전달하는데에 있어 유의미한 장치로 활용된다. 그녀의 회화는 2차원의 캔버스라는 현실 공간의 일부이면서 환영적 공간이 동시에 공존하는 현실과 환상의 이중적인 구조가 시간과 공간이 중첩된 세계라고 할 수 있다.

Her previous works reenact the gaps between reality and ideal in a perfect participle tense while she strives to construct Heterotopia, a wishful world, the world replacing Utopia as she depicts a temporal deferment dimension of despair and foresees an imminent destructive circumstance. Her works fulfill the pivotal elements of Heterotopia as pointing that time disparately operates in an abstract space-time and the space exists as a doubled dimension, the dimension coexisting part of reality and illusive dimension. Setting up a coordinations of this visual-subject is regarded as a meaningful tool to transmit not only simple experiences but a synaesthesia image of a painting space plastically constructed by the artist. Her paintings are part of reality, a two-dimensional space, and a superimposed world of a double layer structure composed of reality and illusion.

A Review by Cho, Ji-hyun, critic & curator



륜(輪)
나무, 아크릴, 금속, 모터 2000 × 2000 × 1600, 2019



Granbot
wood motor arduino 300 × 200 × 300, 2015



wrong brothers
나무, 금속, 모터 550 × 350 × 600, 2016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물질일지라도 스스로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것을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살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일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시리’와 대화하거나 금속 덩어리인 로봇의 행동에 열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물화론적 사고와 생명 창조에 대한 욕구가 드러난다. 오토마타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무생명체인 나무나 금속 등의 물질이 상상의 옷을 입고 과학의 힘을 빌어 움직임을 갖기 때문이다.

불편한 인형

언제부터인가 두발 자전거를 타고 쟁쟁 달리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는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천진난만 하고 엉뚱한 형상으로 하늘을 날아다닌다. 현실과는 상반된 동화적인 모습과 상황들을 인형으로 기록한다. 작품 속의 인형은 이상적인 자아이자 페르소나로서 단순히 장난감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A Living Creature

Even if it were a lifeless material, it is possibly considered to be a living creature only when it makes a sound and a move. Perhaps this thinking starts from a wishful thought that the creature may be alive. Human beings are fascinated by the interaction with Siri,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motion of a robot. This may reflect the unrecognized animistic thinking and the desire of human creation. Automata reflects this human desire because science brings forth life into lifeless materials.

Uncomfortable Doll

The artist has dreamed of riding a fast moving bicycle for awhile. In her dream, she enjoys challenges and adventure and flies in the sky with naive and unexpected shapes. She records fairy-talelike features and circumstances in the doll. The doll in her work represents her ideal conscious, a persona beyond a mere toy.



Flying Dreams
나무, 모터 2100 × 1700 × 2500mm, 2016



나무 메커니즘에 대한 집착

인형이 자동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기어, 크랭크 등의 기계장치를 나무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나무의 향, 결, 색감이 주는 따스한 느낌이 기계의 차가움에 온기를 불어 넣는 듯하다. 때때로 금속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나무가 작품의 8할을 차지하는 만큼 나무는 작업 과정 내내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기계부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대칭적 형태와 구조의 정밀함이 매력적이기에 기계요소를 애써 감추지 않고 조형 안에 그대로 드러낸다. 단순한 움직임조차도 여러 기계요소를 조합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형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장치를 설계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메커니즘의 구조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분명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키네틱 아트의 한 귀퉁이에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한 만큼 과학기술도 예술의 흐름도 사람들의 요구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나에겐 나만의 시간속도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선불리 적용하기 보다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며 느리지만 천천히 변화할 것이다. 세상 속도에 맞추고 싶지 않은 예술가의 아집으로 오늘도 예술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

정민정 Minjung Jung



로봇조정실
나무, 모터 100 × 80 × 100cm, 2017

Obsession with Wood Mechanism

In order to make a doll automatically operate, the artist creates mechanisms, such as gears and cranks, with pieces of lumber. The warm feelings from the scent, grain and color of timber bring forth warmth to cold machines. From time to time, she uses metal. Yet, as her works are heavily made with pieces of lumber, she has the confidence with wood. As looking into individual parts, symmetrical shapes and structures fascinate her. Thus, she deliberately exposes mechanical parts in her works. Even for a simple move, the artist carefully designs a mechanism in order to make parts smoothly run along with the doll. Sensing the beauty from sophisticated mechanisms accounts for that her work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inimalism.

On the Corner of Kinetic Art

Even when the needs of people are shifted along with the rapid changes of technology and art, the artist hold her own time. As she still reluctantly adapts new technology, remembers the past and envisions the future, she slowly alters herself. Her demeanor reveals her strong ego against this fast changing society. Yet, she is still hanging around an art realm.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4078
Archival Pigment Print, 2019

아카이브: 기계, 자동차 그리고 도시

도시는 변화한다. 생성과 소멸은 도시라 해도 비껴갈 수 없는 운명이지만 너무 빨리 변화한다는 것이,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문제다. 40년간 중고 자동차의 메카였던 이곳 장안평도 흔적 없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의 도움으로 이곳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상가는 한국 중고차 시장의 산증인이었다. 돈으로 가득 채운 가방을 멘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면, 직원이 수십 명이었다던 사장님의 화려한 옛 추억은 사무실의 금빛 상장처럼 액자 안에 박제된 채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다. 목청 높은 호객꾼 아저씨도, 발디딜 틈 없던 지하 식당가의 주인아주머니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 지하 구석엔 고양이들이 긴 하품을 하고 있다.

Artist Statement: Archive: Machines, Cars, and the City

Every city undergoes changes. Creation and extinction are the inevitable destinies of every city; the problem is when they change too rapidly or disappear too soon. I fear that Jangnpyeong, a place that has served as a mecca for used cars over the last 40 years, might disappear without a trace. I have documented scenes of Jangnpyeong I came across by chance with the help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used car dealer district known as Jangnpyeong was the birthplace of Korea's used car market. One boss reminisced about his glorious past: customers with bags filled with money waited in line and he had dozens of employees. Taxidermied like the gold medal framed in his office, his reminiscences describe the glory of the past. The tout who used to raise his voice and the middle aged woman who works at the basement food court are old now. Cats let out long yawns in a corner on the basement floor.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4131
Archival Pigment Print, 2019

중고부품 거리를 걸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중고차의 부속품이었다. 육중하고 기름때 묻은 덩어리는 마치 인체의 드러난 장기 같아 보였다. 기계공들은 메스를 든 의사처럼 기계를 수술하는 듯했다. 수리를 마치고 희생한 부품들은 주변 공간 안에 적절히, 오랜 시간 공들인 돌탑처럼 쌓여갔다.

부품상가 앞에서는 택배차와 오토바이가 쉴 틈 없이 움직인다. 박스가 곳곳에 쌓여 있다. 부품을 수입해가려는 아랍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도 보인다. 그 가운데 하늘을 품은 중정이 돋보이는 부품상가가 있다. 부품상가를 둘러싸고 병풍처럼 유명 건설사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은 꽤나 위압적이다. 부품상가 일대가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측의 민원이 잦다고 하니 씁쓸할 뿐이다.

지역에는 자연스레 그곳의 역사가 스며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장안평에서 보는 건물, 거리 곳곳의 모습은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쌓아 올린 기억들이 그들의 주변에 그대로 남아있다. 앞으로 몇 년 뒤 다가올 정비 사업으로 인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I walked along the used parts district. The first things I noticed were the used car parts. Covered in greasy crud, the massive auto parts resemble exposed body organs. Mechanics seem to be performing an operation on machines like doctors with a scalpel. Parts that have been fixed after the operation are piled up in the surrounding space like a stone pagoda.

Parcel delivery cars and motorcycles come and go. Boxes are heaped up here and there. Arabs and Africans who visit to import auto parts can also be seen. One of the buildings in this district has a striking courtyard that seems to hold the sky. The scene of name-brand apartment buildings encircling the car parts building like a folding screen appears quite compelling. The reality is somewhat unpalatable: apartment residents often file civil complaints because they think the auto parts district defiles the appearance of the streets and causes traffic jams.

Each region has a history which soaks it to the bone. For this reason, both the buildings and street scenes found in Jangnanpyeong can only be seen here. Fortunately, the memories the people of this region have accumulated over several decades are still here in their surroundings. It is important to keep an eye on how this district will transform under the upcoming urban improvement project.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0546
Archival Pigment Print, 2019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0647
Archival Pigment Print, 2019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0597
Archival Pigment Print, 2019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Menganyam Sendi Sendi Diri Forest Version, 2018



Mooi indie 300dpi

현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하며, 내일 곧 죽을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 나는 야외 활동을 매우 좋아한다, 등산이나 바다에서 카약을 타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의 탐험과 2개의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나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같은 이야기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나는 크게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삶의 에코 시스템과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내는데 관심이 있다.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존재들과 다르게, 인간은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이는 좋음과 나쁨이다. 그러므로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인간들의 결정에 대한 영향을 찾기 위해 심리적, 정신적, 환경 및 사회정치학적 쟁점들을 찾고 싶어 한다.

Wise people say “Live as if you are going to live forever and pray as if you are going to die tomorrow.” I love outdoor activities, such as mountaineering and sea kayaking. I did three expeditions and two social projects from 2013 to 2015. I am happy when I am meeting new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listening to their stories. I am curious about the mystery of our existence on Earth. Thus, I am interes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human’s free will to his living ecosystem and society at large. Human lives based on the decision he makes, unlike other beings in this universe who exist to follow their designated path. There are only two choices: good and bad. Therefore, I am inclined to explore psychological, spiritual, environmental and socio-political issues to discover the impact of one’s decision in our pastpresent-future time.



ARTJOG MMXIX Whirlwind of Time

이러한 자유 의지는 인간과 그 자신, 인간과 그가 속한 환경 그리고 인간과 또 다른 인간들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작업 과정에서 장소 특정적 조각, 조사 연구 근거 그리고 개념적 접근을 탐구한다. 관람객의 경험으로써 예술에 특정한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전달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에 대한 폭넓은 영역을 가지기를 원한다.

지금의 나는 인터넷이나 hybrid reality와 같은 3차원 매체를 넘는 대중 공간의 가능성에 관심이 많다. 내 다음 작품은 hybrid reality와 Post-humanism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소설을 통해 미래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 그것은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시 상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This free will involves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with himself, human with his environment and human with another human being. Therefore, I've been exploring a site-specific sculpture, research-based, and conceptual approach in my art making process. I'd prefer to have a wide spectrum of media in order to deliver certain idea eloquently into art as an experience for the audience.

For now, I am interested to see the possibilities of public space beyond 3-dimensional medium such as internet and hybrid reality. My upcoming work will be about the hybrid reality and posthumanism.

What will happen next and what shapes the future through fiction. It will give us a chance to re-imagine how the future will be like.



Malam Kenang Kunang 4, 2015



Menuju Titik Ba 4, 2016



RED POWDER



URBAN MUMMIES

나는 작업에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을 혼합한다. 나는 현시대를 반영한 학제간 접근 방법에 근거하여 맥락을 쌓는다. 내가 예술적 조사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는 매체로서의 인간의 몸이다.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인간의 최근 문화는 인간들에게 사회적 모델들을 제공한다 : 남자는, 여자는,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인간은, 강자 혹은 약자는 어떠한 의미인가? 작가로서 나는 태도에 부과된 패턴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멀어지도록 노력한다. 나의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의 몸은 항상 수사적인 모습 이상의 것이 된다. 그것은 인식의 기본적인 특성들(성별, 개인의 성적 취향, 국적)으로써 현실과 폭넓은 신체 이미지의 가상적인 표현들을 넘어서 강조점들을 집중한다.

생물학적 신체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신체의 이미지에 종속된다.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서 개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신체의 활동들은 커다랗게는 미디어가 그것들을 활용하여 방송하고 강조하는 범위 내에서 기계들과 소통의 기술을 통해 강조된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의 신체는 자연에 속해있으며, 미디어에 의해 준비된 상징적인 모델 내에서 그것의 온전한 이미지를 요구하는 모순적인 오브제이다. 나는 의식의 물성에 관심이 있고, 신체 구조에 대한 주제적 구조의 근원적 의지에 관심이 있으며, 하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성취가 아닌, 인간의 활동의 한 형태가 아닌 그 근원으로써의 신체가 없어도 그런 근본적인 의존은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중요한 탐구는 한 개인이 그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다양한 관계의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보와 소통 기술의 총체적 영향은 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변화를 이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해있다”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과거의 것과 동시대의 것을 섞는다. 나는 비디오 아트에서부터 설치, 조각, 회화까지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한다. 나의 예술적 실험에서 나를 둘러싼 도시 환경의 직접적인 인용이라는 접근법의 사용한다. 나는 거리에서 발견한 조각들 즉 대리석, 화강암, 아스팔트, 자연 안료, 유리, 콘크리트 조각들을 사용한다.



FRAGMENTATION

I'm mixing high art and low art in my works. I'm building a context based on a cross-disciplinary approach to reflect the modern world. One of the biggest interests to my artistic research is the human body as a media. Our contemporary culture through images provides us with models of the social: what it means to be a man, a woman, a successful, a loser, a strong or weak. I, as an artist, deliberately move away from the patterns imposed behaviors. In my artistic studies, the human's body always becomes more than a rhetorical figure. It concentrates accents that go beyond the fictitious representation of reality and the widespread body image as the carrier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perception(gender, sexual orientation, nationality).

The biological body becomes dependent on the images of bodies produced by technical devices, and the bodily practices carried out by a person in his daily life are actualized as instrumental and communication skills only to the extent that the media broadcast and accentuate their use. In this sense, the human body is a paradoxical object, which, despite belonging to nature, acquires its completed image in the symbolization models provided by the media. I am interested in the corporeality of consciousness, the fundamental dependence of the structures of subjectivity on the bodily constitution, “not a single thought, not a single cultural achievement, not a single form of human activity could have taken place without a body as its sourc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human body becomes a condition for understanding the diverse forms of a person's relationship to himself, to another, to the world.

The total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n the daily life of a person leads to a change in th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a person with his own body. And all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ll this belonged to us.” In this contexts I'm mixing archaic and contemporary. I work in different media from video art to installations, sculptures, painting. In my artistic practice I use the approach of the direct quoting of the urban environment surrounding me. I use “pieces of streets”: marble, granite, asphalt, natural pigments, glass, concrete.

여성주의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나에게 중요하다. 내 프로젝트 중 몇 개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조각 설치 작품의 한 부분으로써 비인간적인 면을 대변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여성의 상품화의 개념에 근거한다. 이것은 “너도 여성처럼 느낄 수 있나”라는 프로젝트이다. 그 프로젝트는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치와 사진 연작들이다. 여기서 조각의 조합을 통해 나는 여성의 이미지를 해체시킨다. 그 프로젝트는 CICA, Tsong, 한국, 미국 뉴욕의 Robert Miller Gallery와 러시아 모스크바의 CCA Winzavod에서 전시되었다.

Involvement in the feminist discourse is important for me. Several of my projects are devoted to the image of the female body. It is represented impersonal, as a part of a sculpture installation. These project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objectification of women, affecting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modern society. This is my project CAN YOU FEEL LIKE WOMAN. It consists of two parts: installations and a series of photographs. Here I deconstruct the image of a woman through a sculptural composition. The project was shown at the CICA, Tsong, South Korea, at the Robert Miller Gallery in New York City, NY, USA and CCA WINZAVOD, Moscow, Russia.

CAN YOU FEEL LIKE A WOMEN



THE UNBEREABLE AIRNESS

JUST SHADOWS IN THE CAVE



Rusted Objects - Sugar Refinery
enchanted by the handmade paper
Rust Dye, Natural Dye 2019



창작의 모티브는 삶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서 온다. 나는 시도의 과정과 모험과 자기 성찰에서 창작을 위한 아이디어를 자극하고자 하는 노력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물건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여행자와 같다. 나는 일상의 경험과 일상에서 수집된 물건들 속에서 창작에 대한 생각들을 수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섬유에 대한 나의 관심과 근본 감정은 삶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찾기 위한 기억들을 회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생은 많은 경험들에 의해 연결된 과정이다. 미지의 여정에 발을 들여놓는 오직 한 방법은 모든 여행에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것이다.

The motive of creation comes from the flowing time in life. I am like a traveler following the flowing time to move, collect and record stuff in the different time and space in an attempt to inspire idea for creation in the process of trying, adventure and introspection. I try to collect thoughts of creation from living experiences and by the collected stuff in daily life. My focus and original emotion on the fiber material help me recall memories to find the position of self-existence in life.

Life is the process connected by many travel experiences. The only way of realizing how to step forward on the next unknown path is to walk step by step during every travel.



Rusted Objects - vessel
Silk Organza, Gum Arabic, Rust Dye, Natural Dye
Size depending on the venue space 2016



Unproductive Dyeing Project #1
Natural dyeing on cotton, Plant on frame,
400cm x 80cm 2019



Rusted Objects - Cans
Silk Organza, Gum Arabic, Rust Dye, Natural Dye
Size depending on the venue space start 2015



Forest
Ginkgo and pine bark natural dyeing on bark,
Size variable

GCC
RESIDENCY

PROGRAMS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프로그램

GCC Residency Programs

경기창작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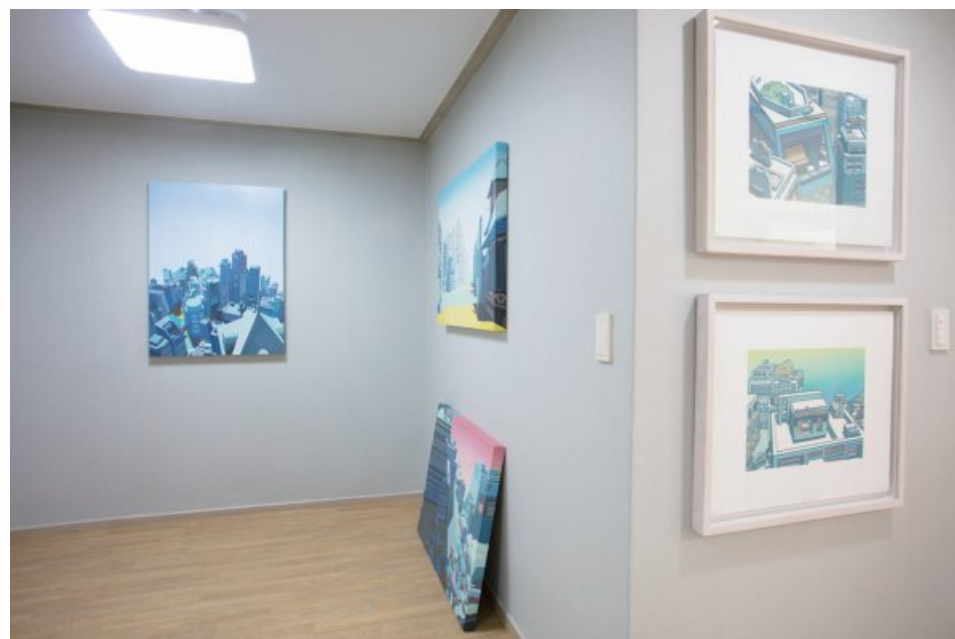
경기창작페스티벌은 년 중 가장 중요한 경기창작센터의 사업으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 작업 공간 개인적인 대화, 다양한 작품과 전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기간에 오픈스튜디오, 전시, 워크샵, 심포지움 및 공연 등이 열리며, 또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 수 있는 흥미로운 경매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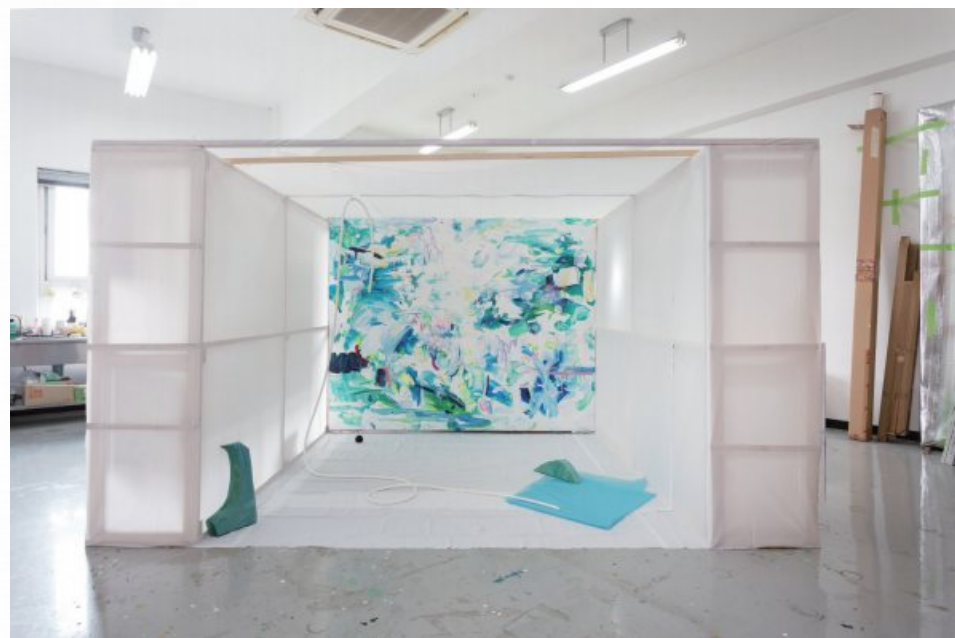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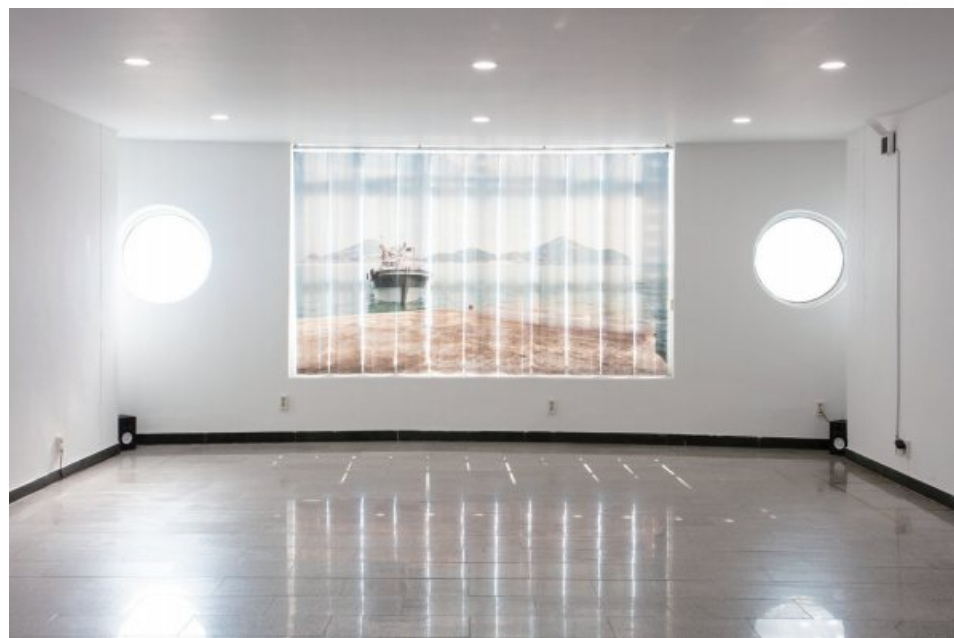
GCC Creation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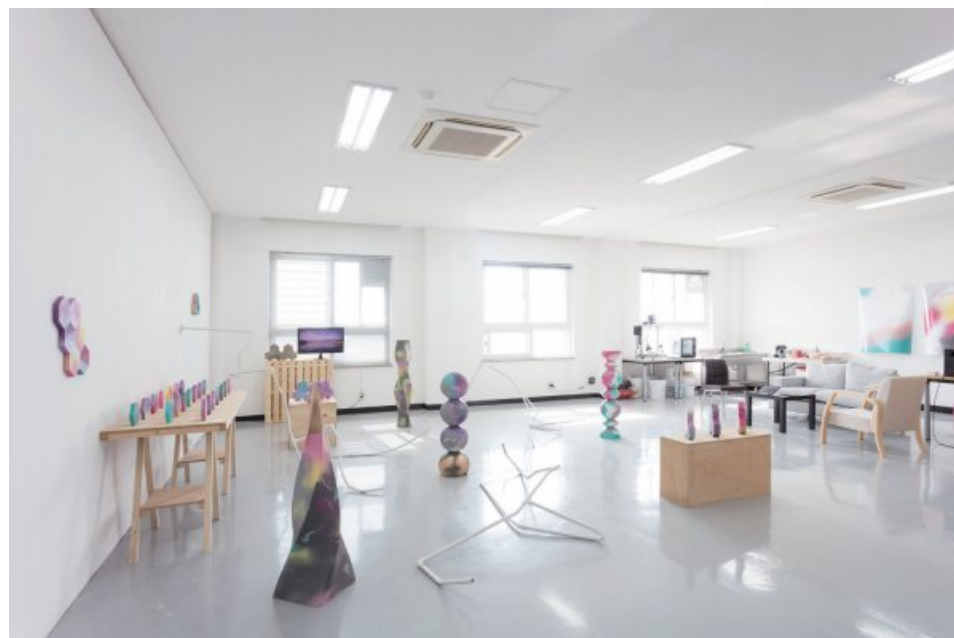
As the most significant event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reation Festival offers diverse opportunities to get to know the artists-in-residence and their art works better. It also provides small events for the audiences to take part in, such as private talks with artists, visit to the artists' studios, workshops and symposium. One interesting event is an auction, which anyone can join and buy the art works of the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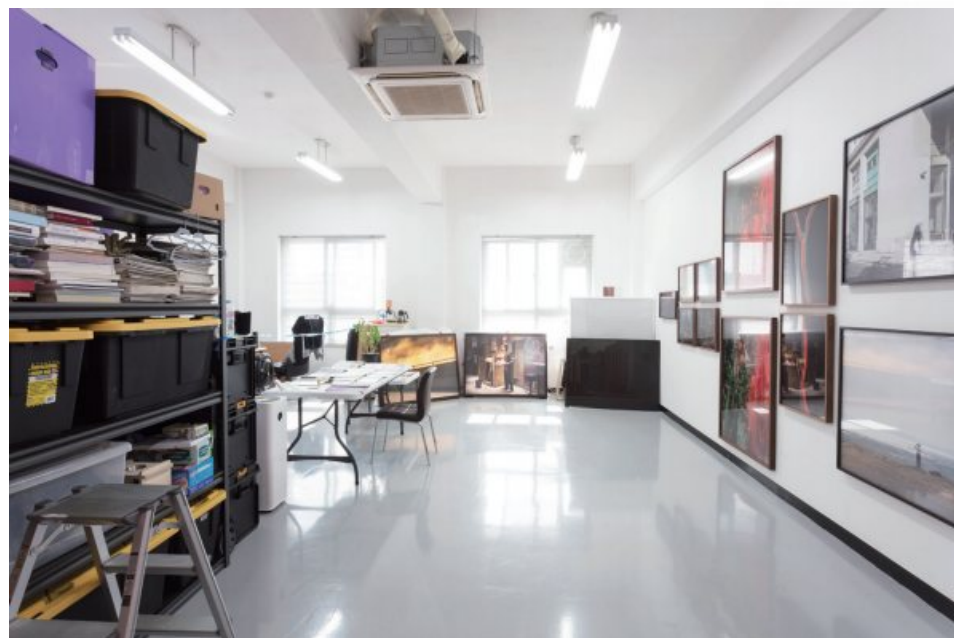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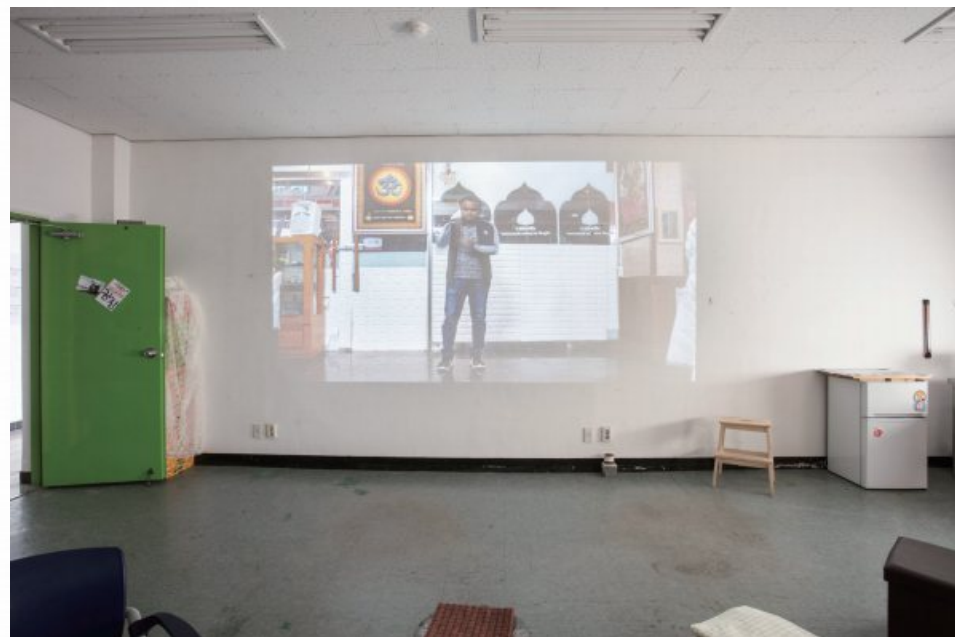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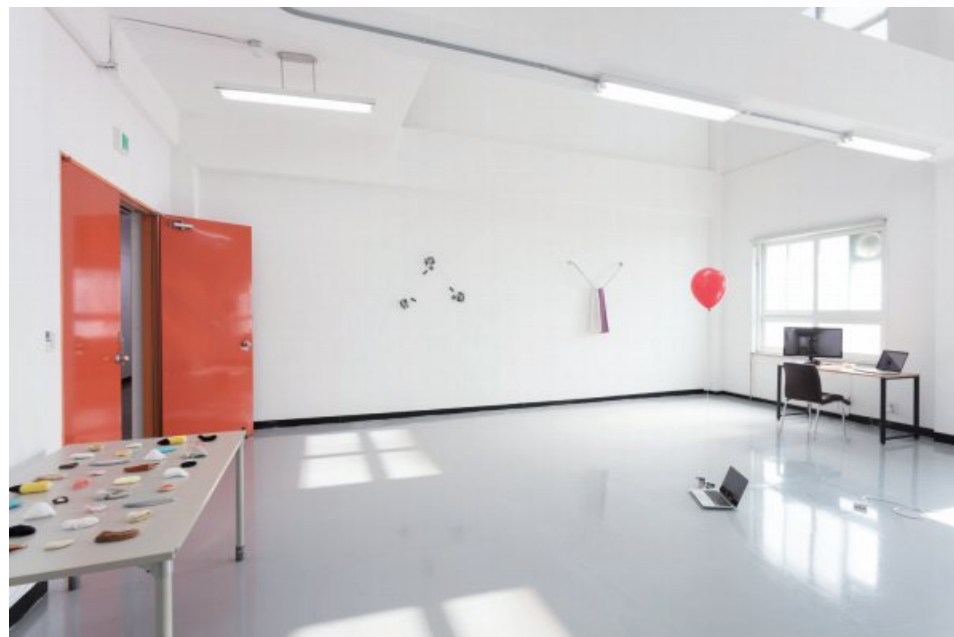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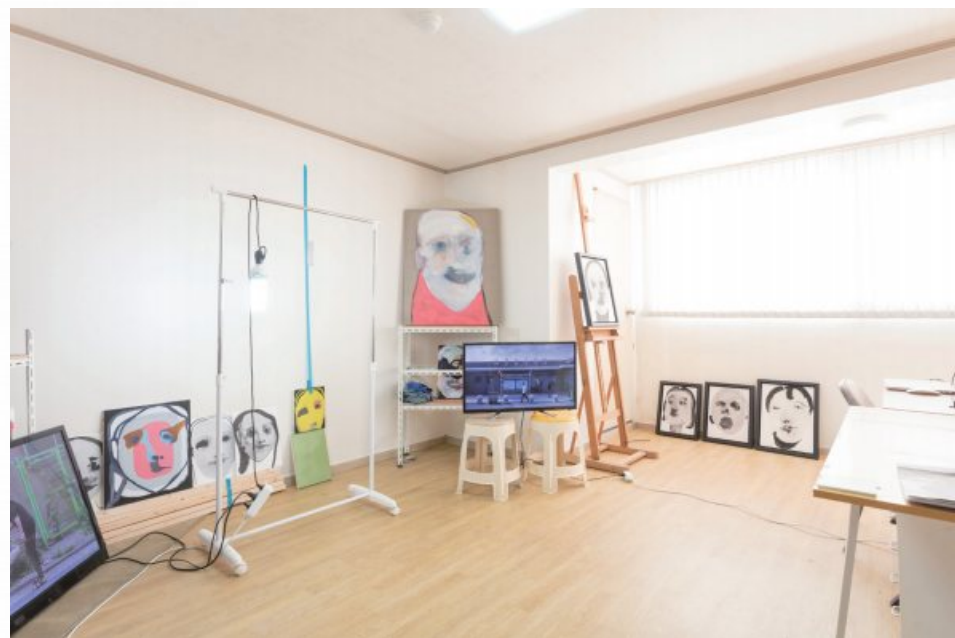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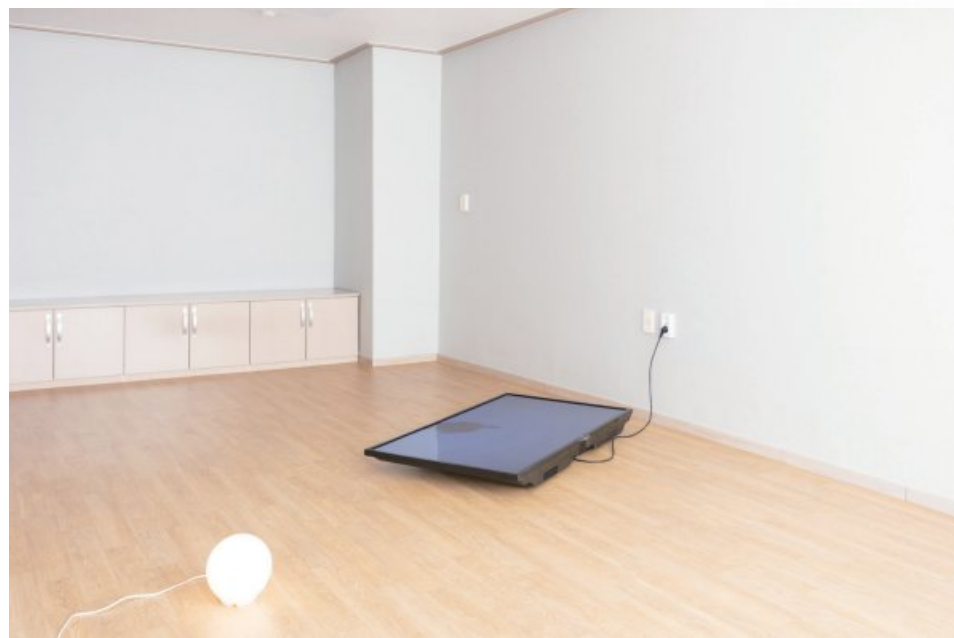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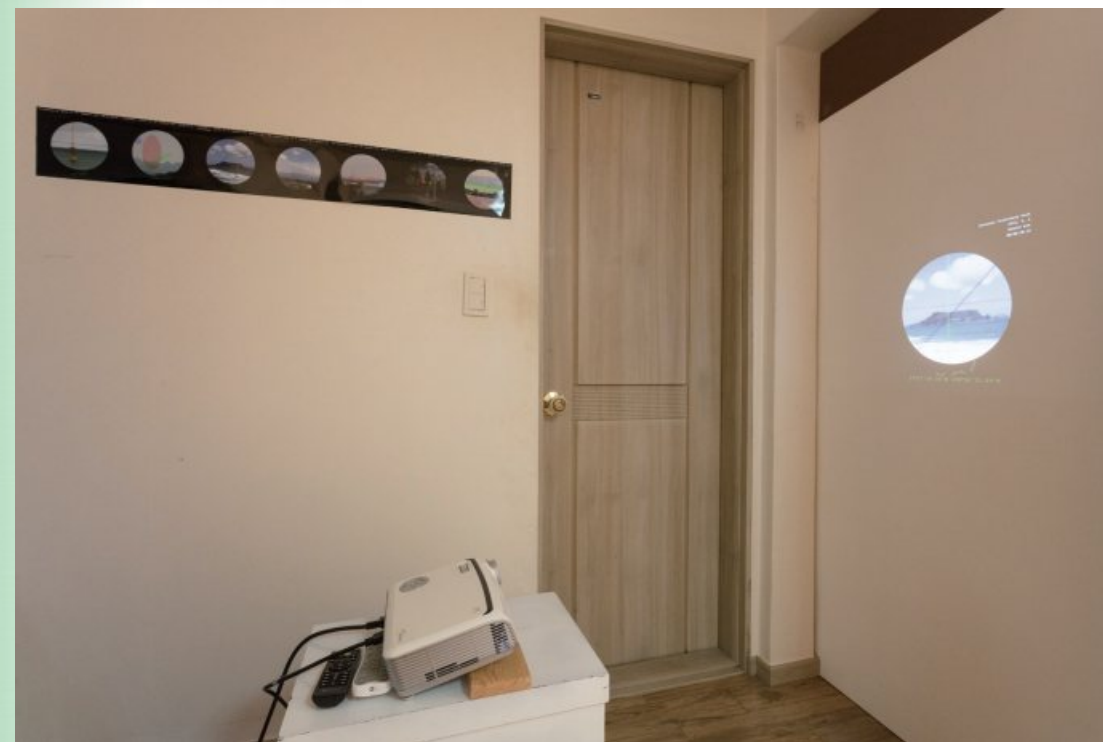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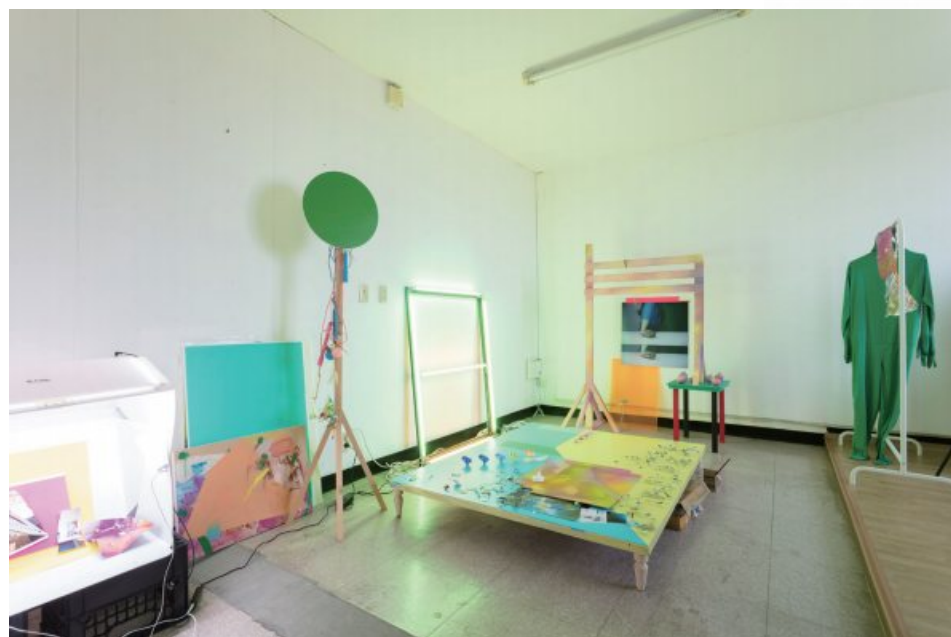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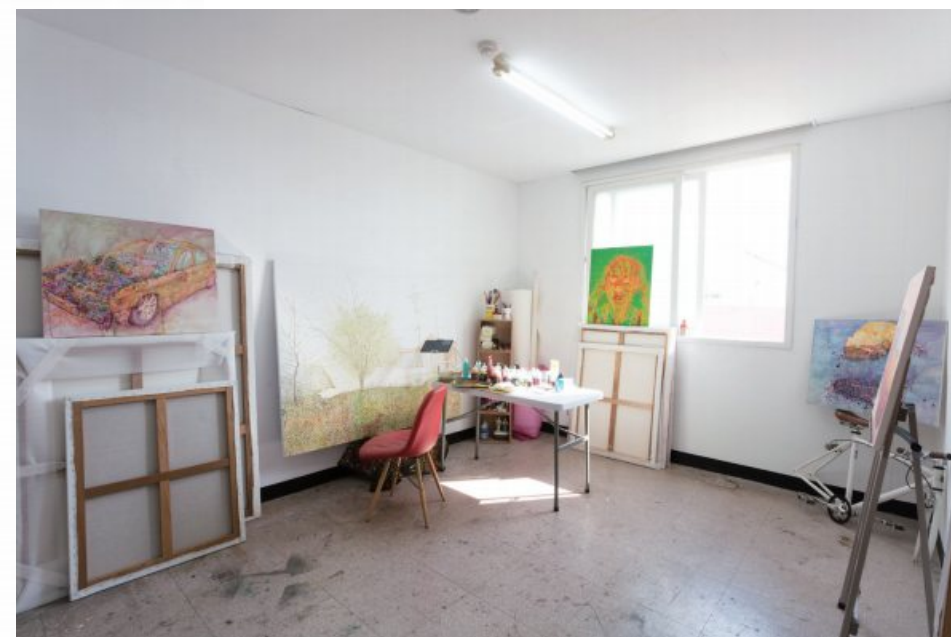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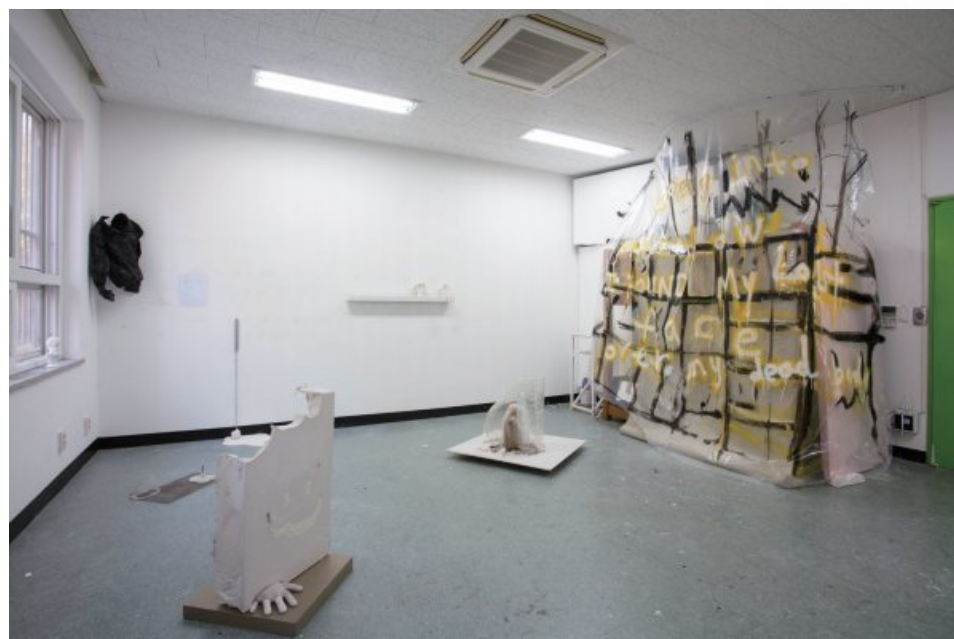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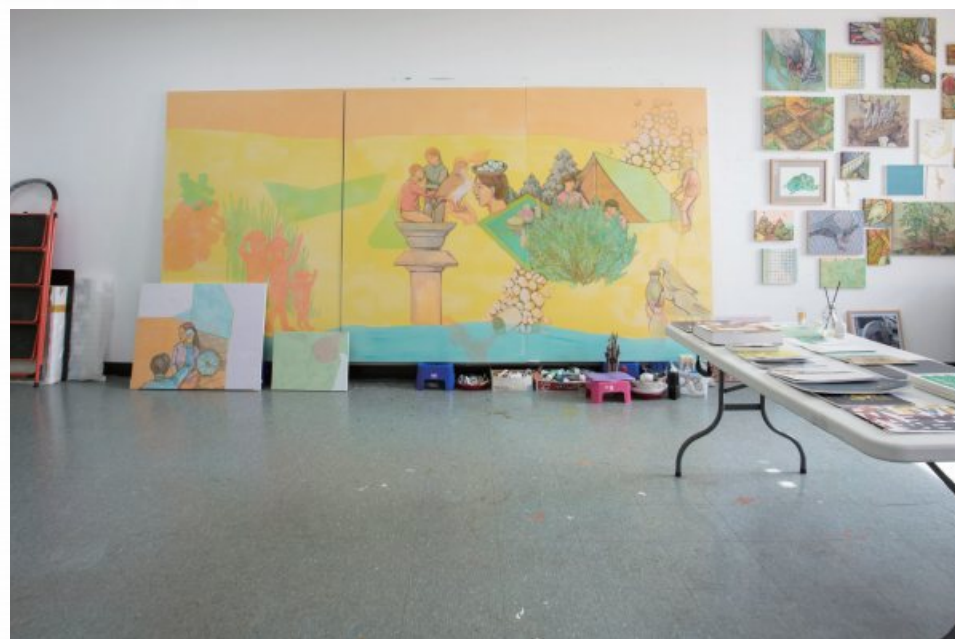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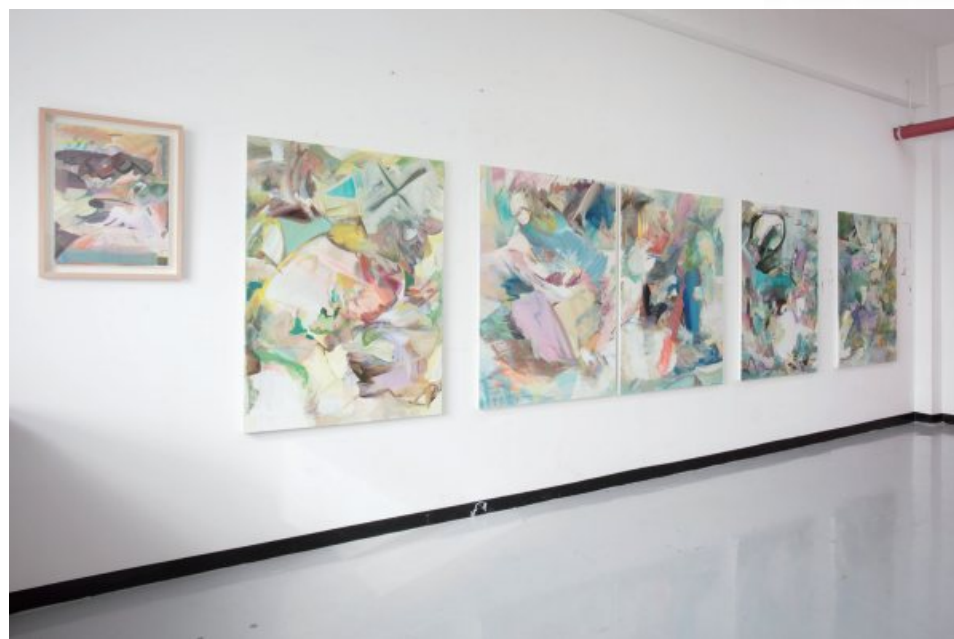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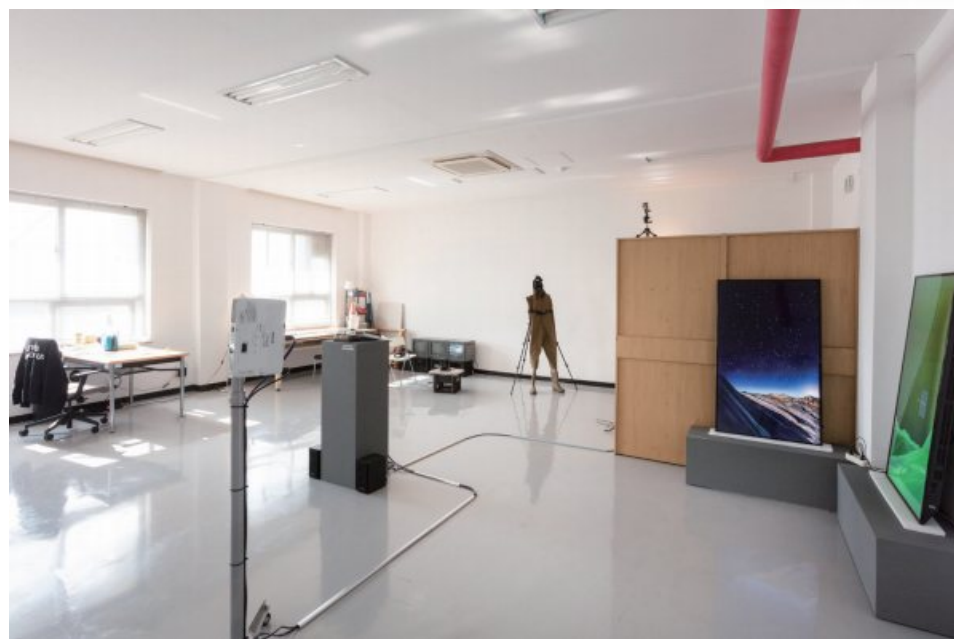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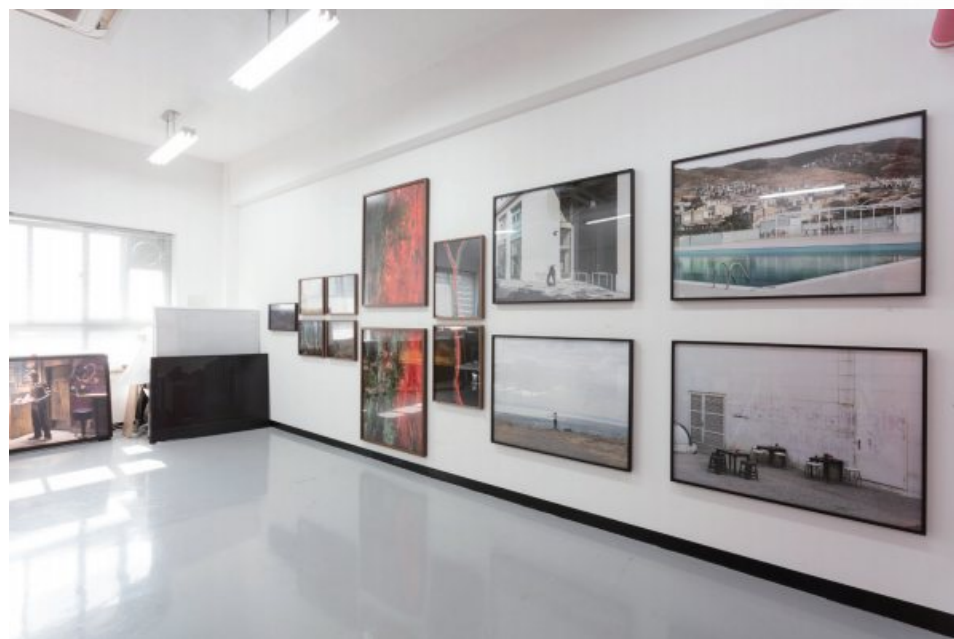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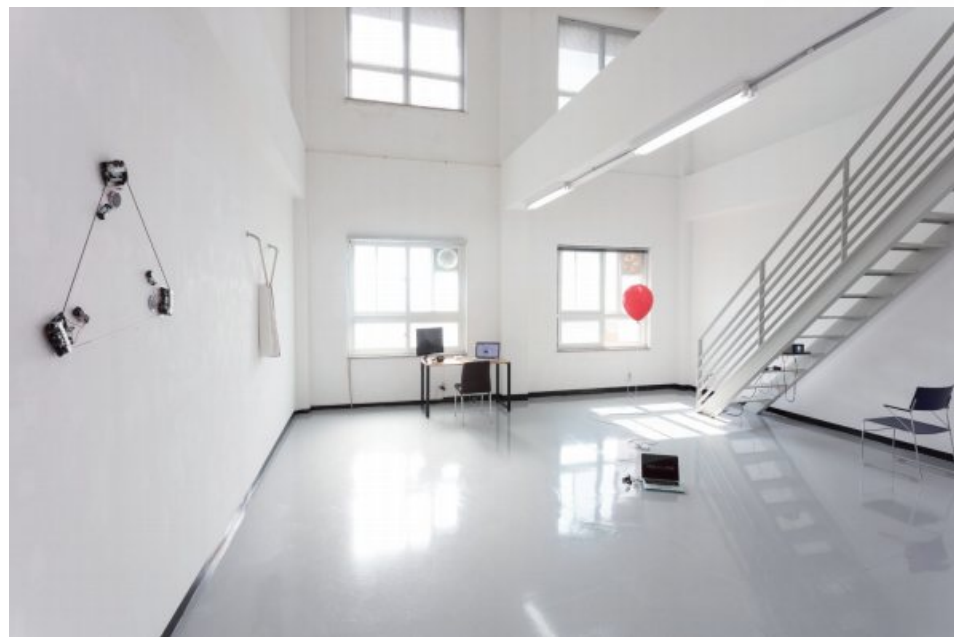












워크숍 및 심포지엄

Workshops & Symposium

워크숍은 작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작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만든 기획 프로그램이다.

심포지엄은 경기창작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예술과 기술의 접목에 대한 현재의 추세를 제시하는 강좌로 21세기에 중요한 화두들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열린다.

The workshops are tailored programs. The center accommodates the artists' needs and creates programs to meet them.

The symposium is a dialogue among experts, artists and staffs to discuss the future of the center's roles, current situations that art and technology are destined to fuse and issues in the art realm in the 21st century.



국제 심포지움



오픈스튜디오 디제잉



경매



시 Bar



공연



라운드테이블

문화탐방

Tour Programs

경기창작센터는 입주 작가들의 창작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경험을 확장하며,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소규모 작가 그룹의 개별적인 탐방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이 된다.

The center carries out diverse cultural tour programs in order to unleash the artists' creativity, expand their experiences, bring forth artistic inspiration to the artists. In particular, when it is necessary, the center provides funds for individual tour programs by small groups of the artists.



뮤지엄 산 답사



전시프로그램

Exhibitions

경기창작센터는 창작 작가들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은 신규 입주 작가 보고전, 기획전 및 쿼텀점프로 구성되어있는데, 신규 입주 작가 보고전은 매년 새로 입주한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 경향 및 향후 작업의 방향을 소개하는 중요한 전시이며, 기획전은 창작 작가들이 모두 참여하여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심도 있는 전시이며, 쿼텀점프는 경기도미술관과 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작가와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실험적 전시이다.

For Creation Artists, there are three exhibitions such as an exhibition for new artists, special exhibition and Quantum Jump. The exhibition for new artists shows the trends and directions of the art works of new coming artists. The special exhibition is planned under full reviews of art works done by artists-in-residence and focuses on showing the best of the art works. Likewise, Quantum Jump is a special and experimental exhibition for only two artists selected among the creation artists through the scrutinization of individual artist's works of art. The exhibitions are part of means to introduce and promote artists-in-residence to critics, curators, museum directors and public.

오픈닝 Op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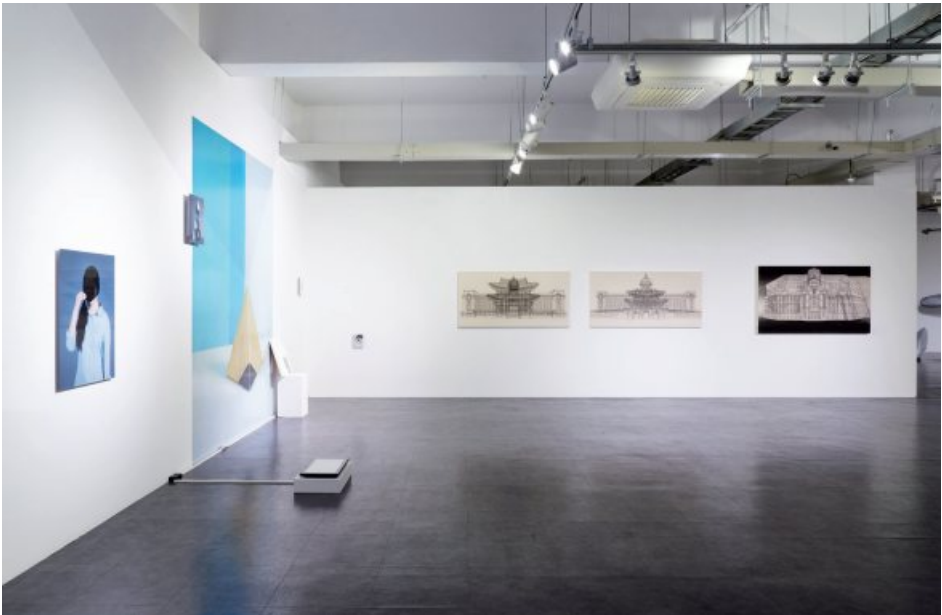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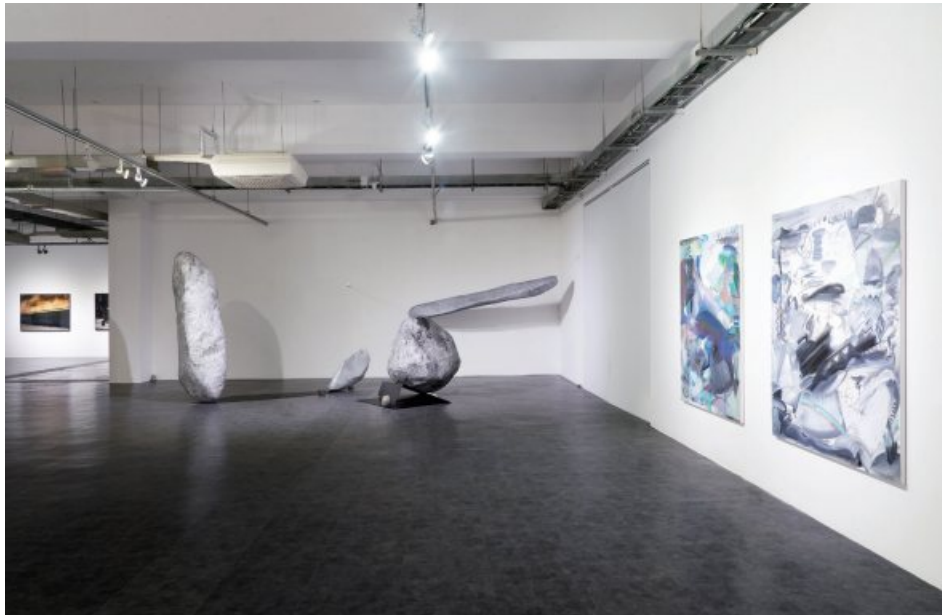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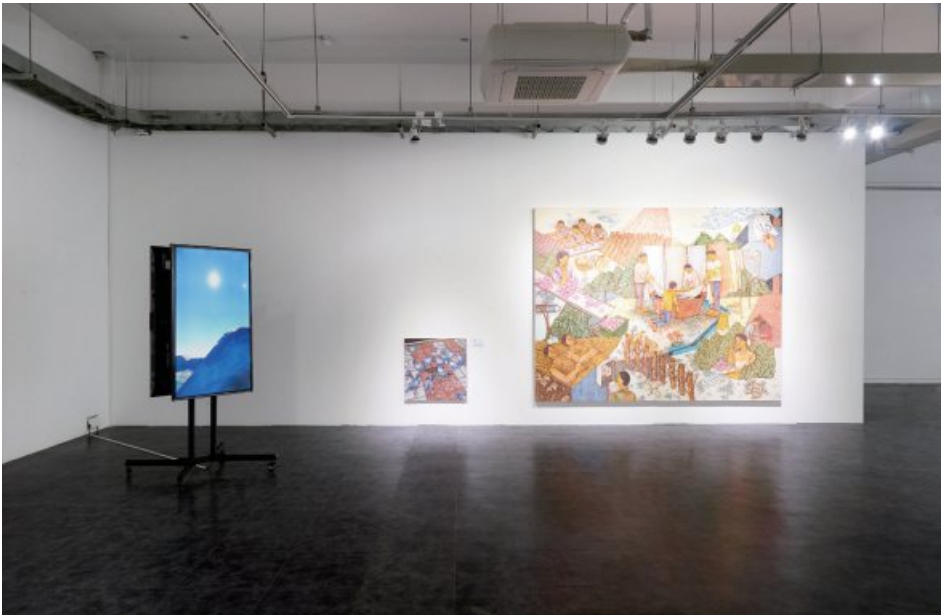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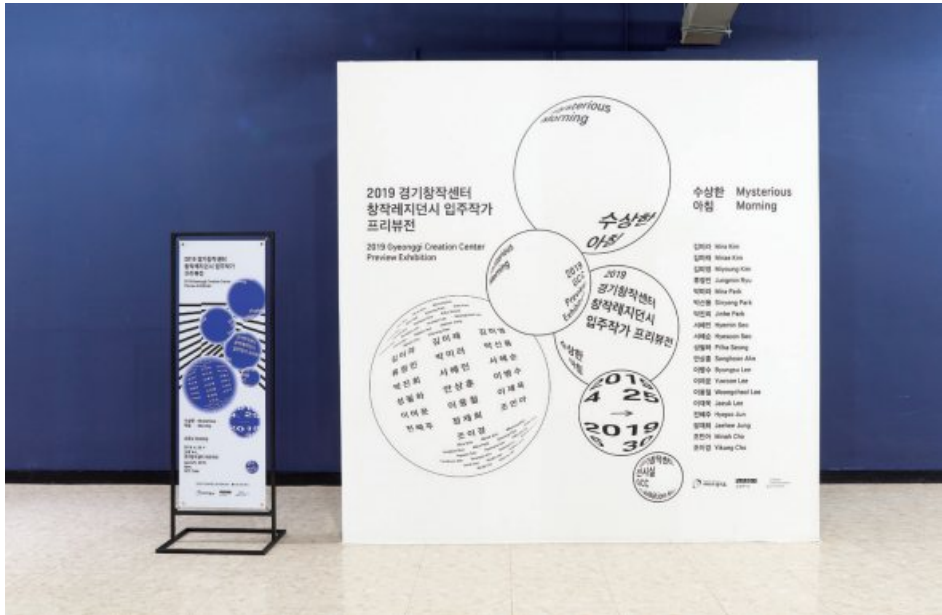


2019 경기창작센터 프리뷰전
수상한 아침

2019 GCC Preview Exhibition
Mysterious Morning

2019. 4. 25.(Thu) - 6. 30.(Sun)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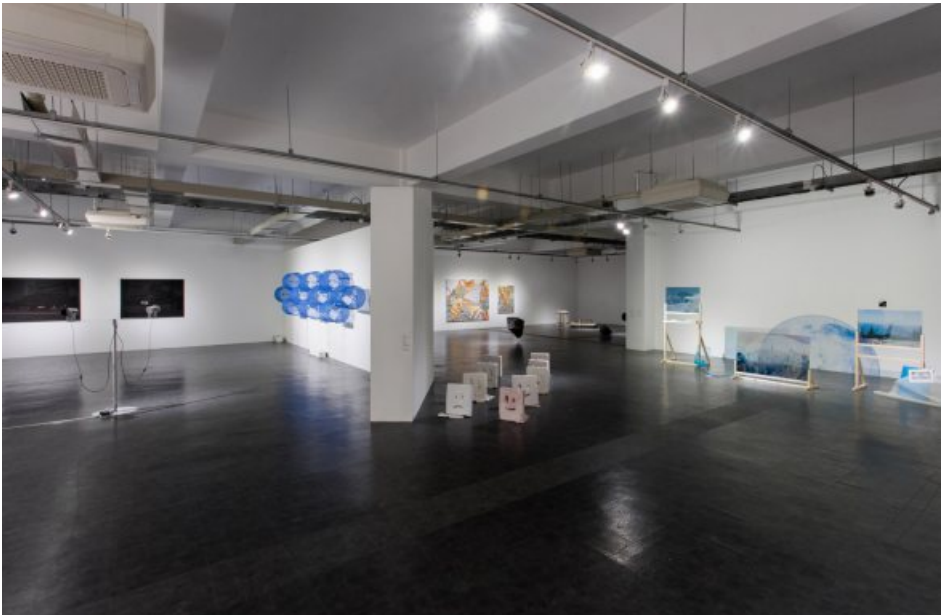


2019 경기창작센터 기획전
유령걸음, 순환하는 밤

2019 GCC Festival Exhibition
The Haunted Walk, The Whispering Night

2019. 10. 25.(Fri) - 2019. 11. 30.(Sat)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GCC RESIDENCY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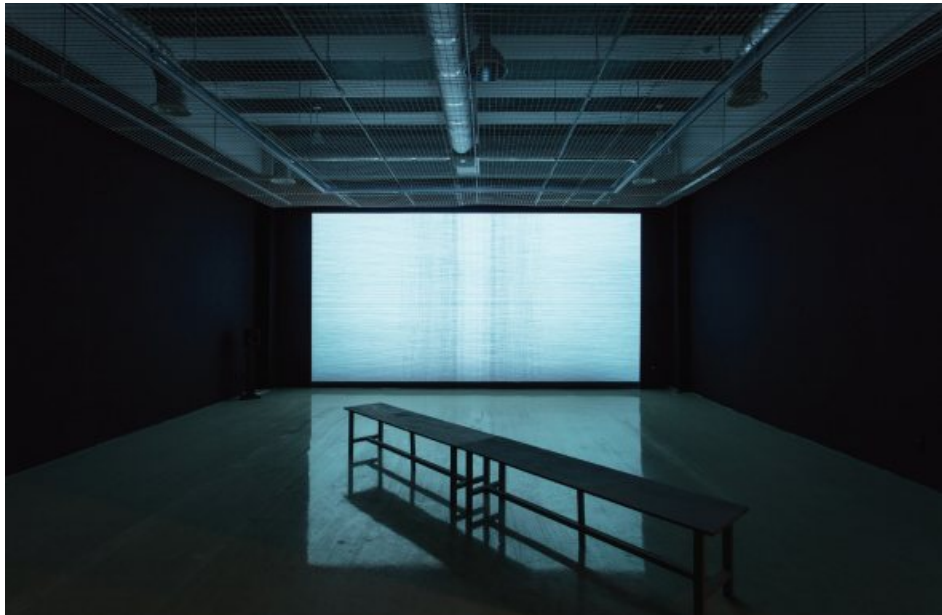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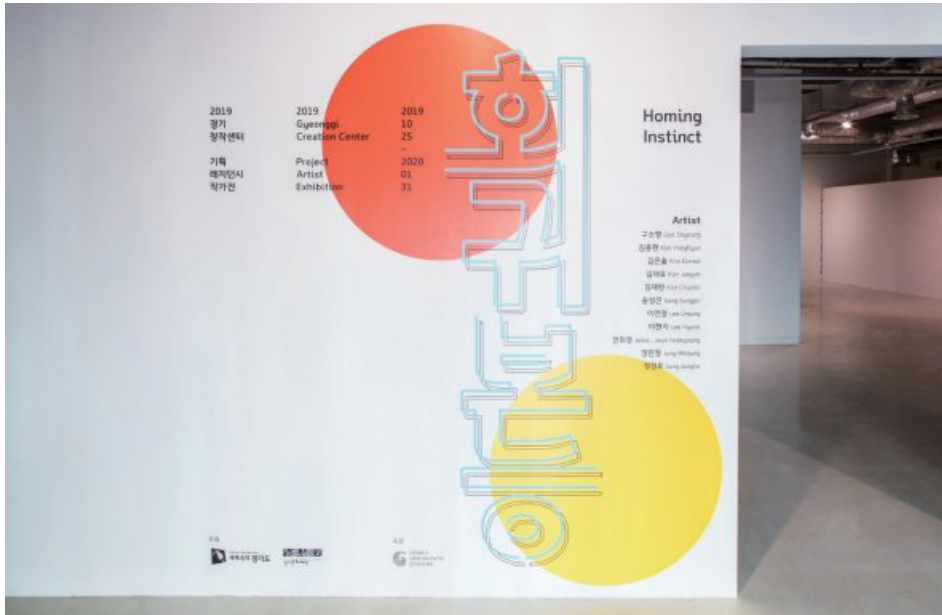


2019 경기창작페스티벌 기획전
회귀본능

2019 GCC Festival Exhibition
Homing Instinct

2019. 10. 25.(Fri) - 2020. 1. 31.(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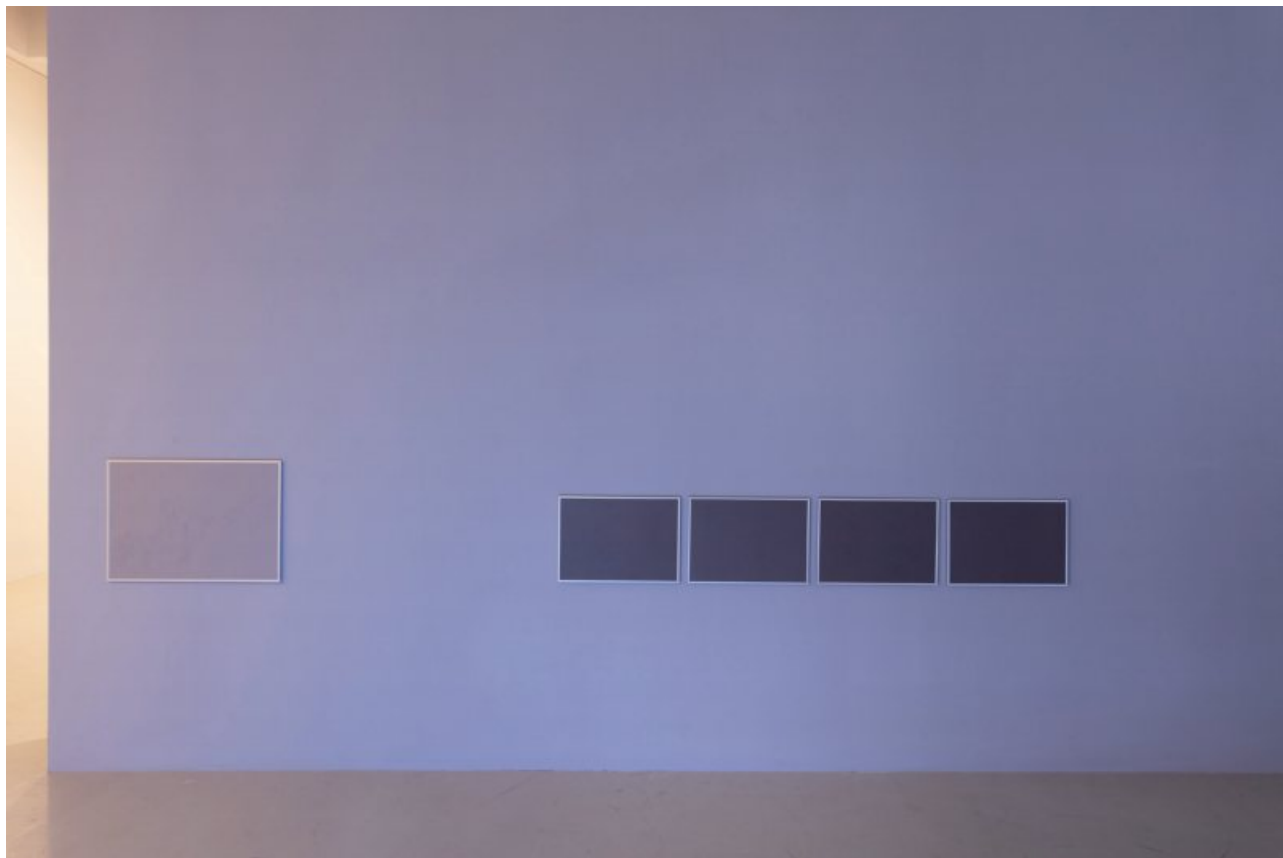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전시전경 Exhibition Views



GCC RESIDENCY PROGRAM



박미라 - 밤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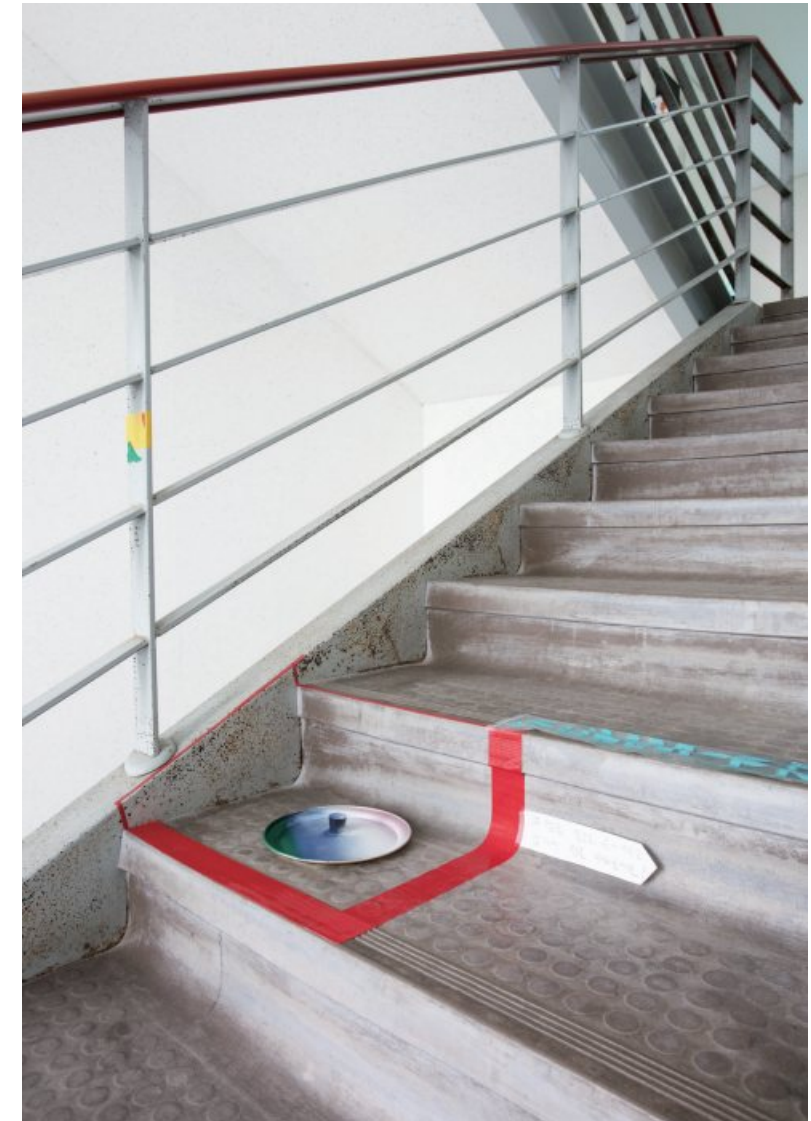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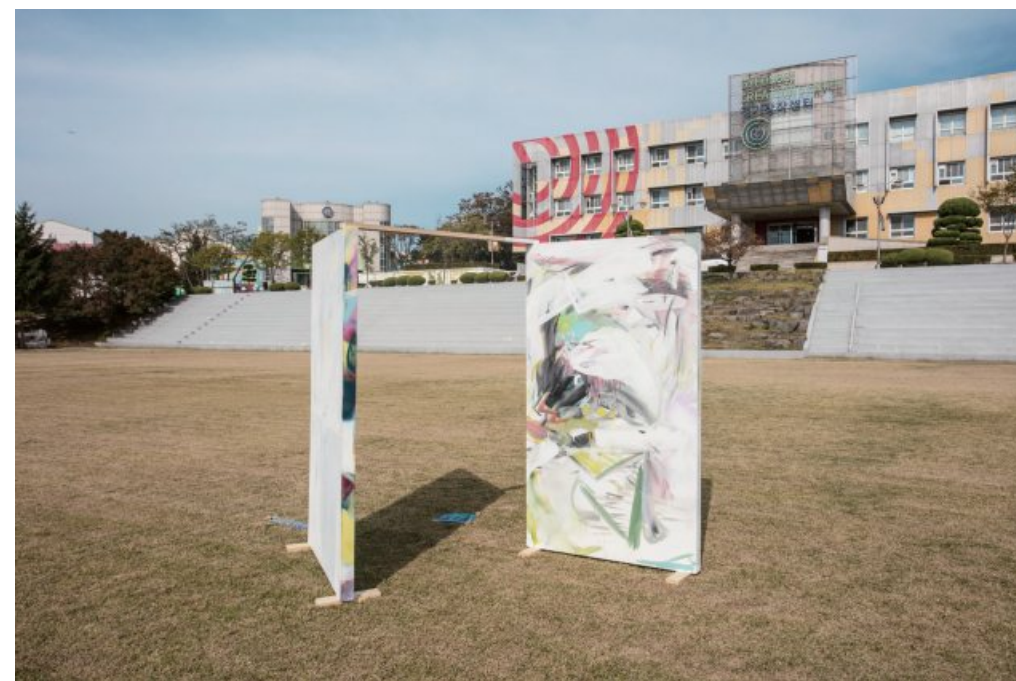
정재희 - 이상한 계절

아트프로젝트 ART Projects

아트 프로젝트는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지원사업으로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 제작과 전시 지원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Art Project is an internal funding scheme to support the artists' experimental works and exhibitions. The center selects only few artists or teams through Open Call.





해외 예술가 교류프로그램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s

경기창작센터는 입주 작가들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의 동시대 예술의 경향을 경험하게하고자 해외 협력 기관들과 예술가 교류를 추진한다.

The center implements international artist exchange program in order to support the overseas activities of the center's artists and get them experienced about contemporary trends in other nations with the center's overseas partners.



GCC
LEARNING

PROGRAM

교육프로그램

GCC Learning Program

경기창작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기창작센터 기획 작가들이 연구하고, 제안하고, 가다듬어서 만든 교육 내용을 작가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즐기고, 토론하며 제작하는 수업이다.

The art educat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is the tailored programs contemplated, suggested and adjusted mainly by education artists-in-residence. Students enjoy, discuss and make their art works with the artists.



구소영 - 마음의 정원

상상풍당 예술나눔 : 창의예술나눔

도시지방에 거주하는 이웃과 문화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예술체험의 기회와 창의력 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angsang Pondang Art Sharing : Creative Art Sharing

The program focuses on the underserved communities. It offers them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rts and culture and to express their creativity.

대남초등학교





전희경 - Big Art



최정수 - Face in Face



구소영 - 어린왕자



김용현, 김채린 - 일상침투작전



이연정 - 즐거운 판화

부산비엔날레팀의 경기창작센터 방문



ARTISTS

CV

김미라 Mira Kim

서울대학교 서양화와 석사
MF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ntmaking, Seoul, Korea
오кина와 현립 예술대학 조형예술연구과 석사
MFA, Okinawa prefectural college of art, fineart, Okinawa, Japan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 페인팅 전공 학사
BA, Painting,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aryland, USA

-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8

<같은 바다에는 두 번 뛰어들 수 없다>,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No man ever steps in the same river twice>, CommunitySpace Litmus, Ansan, Korea
- 2018

<싱글채널비디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Single Channel video>,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 2015

<Ice Breakers>, 오кина와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일본
<Ice Breakers>, Okinawa Contemporary Art Center, Japan

- 2인전 및 주요 단체전 2 persons show 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0

<Hybrid sphere>, KomunitasSalihara, Jakarta, Indonesia
- 2019

<김미라 성필하 2인전 오늘을 기억하는 방법>, 단원미술관, 안산
<The way to remember today>,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 2018

<이아실록>, 제주 예술공간 이아 전시실, 제주
<IAa History>, Art Space IAa, Jeju, Korea
- 2017

<상전벽해>, 성북도원아트플러그, 서울
<The radicality>, SungbukDowon Art Plug, Seoul, Korea
- 2017

<Normanl Abnormal>, 플레이스 막, 서울
<Normanl Abnormal>, Place Mak, Seoul, Korea

-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20

아르코랩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Arcolabs, Jakarata, Indonesia
- 2019

경기창작센터, 안산
Gyu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제주 예술공간 이아, 제주
Jeju Art Space IAa, Jeju, Korea
- 2017

공동창조공간 누에, 완주
Artist residency in <NUE>, Wanju-gun, Korea
- 2016

뉴욕 리그 레지던시, 뉴욕, 미국
Artist Residency in The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at Vyt , New York, USA

- 선정 및 수상 Grants & Awards**
- 2018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선정, 안산
Ansan Art Council Artist Fellowship, Ansan, Korea
- 2015

오кина와 컨템포러리 아트 센터 아시안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선정, 일본
Okinawa Contemporary Art Center Asian Communication Project selected artist, Okinawa, Japan
- 2015

관화사진진흥협회 BELT프로젝트 선정, 개인전 지원, 서울
BELT project (Art competition for edition arts) prize, Seoul, Korea
- 2014

구로문화재단 개인전 지원 선정, 서울
Guro Art and Culture Foundation Artist Fellowship, Seoul, Korea

karmat@naver.com

김미래 Mirae Kim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MFA, school of art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프로젝트 디자인과 학사
BFA, Product design, Hongik University, Sejong, Korea

-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6

<거리의 무법자>,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The outlaw>,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 2015

<검은 산>, 아트스페이스 오, 서울
<Black mountain>, Artspace O, Seoul, Korea
- 2014

<핑>,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Pung>, Artspace Hue, Paju,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순환하는 밤>, 경기창작센터, 안산
<Cyclical Nigh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 노원아트갤러리, 서울
<Nowon Young Artist Exhibition>, Nowon Art Gallery, Seoul, Korea
- 2018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양주
<New drawing Project>, Chang Ucchin Museum, Yangju, Korea
- 2014

<극기 훈련>(2인전), 갤러리 보는, 서울
<Boot camp>(Deal Exhibition), Gallery Bonun, Seoul, Korea
- 2013

<넌 쉽게 말했지만>, (2인전), 성균갤러리, 서울
<That's east for you to say> (Deal Exhibition), Sungkyun Gallery, Seoul, Korea

- 선정 및 수상 Grants & Awards**
- 2019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 선정, 서울
SOMA Drawing Center Archive artist, Seoul, Korea
- 2014

4회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대상,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
4th Seoul Digital University Art Prize, Seoul Digital University, Seoul, Korea

-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5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청주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cqccq00@naver.com

김미영 Miyoung Kim

런던 왕립예술대학교 사진학 석사
MA, Photography, Royal College of Art, London, UK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사진학 학사
BA, Photography,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London, UK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 디자인 석사
MFA, Photographic Design,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Meeting in Time>, 빈자보드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모스크바
<Meeting in Time>, Winzavod Center for Contemporary Art, Moscow, Russia
- 2018

<다보탑, 그 기억의 그림자>,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Daboh Tower, the Memory's Shadow>, Cyart Gallery, Seoul, Korea
- 2016

<그들 사이의 거리>, 다이슨 갤러리, 런던, 영국
<ThereHere>, The Dyson Gallery, London, UK

- 주요 단체전/ 페스티벌 Selected Group Exhibitions/ Festivals**
- 2019

<순환하는 밤> 기획전,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Whisper Nigh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예술의 시대 시대의 예술> GIAF 특별기획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The Art of the Art Generation>, GIAF special exhibition, Museum of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Seoul, Korea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전시실, 안산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아테네 포토페스티벌 2018>, 베나키 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Athens Photo Festival 2018>, Benaki Museum, Athens, Greece
- 2018

<Ongoing dialogue>, 서울예술재단, 서울
<Ongoing dialogue>, Seoul Art Foundation, Seoul, Korea
- 2018

<쇼콘>, 오산시립미술관, 오산
<Show Con>, Osan Museum of Art, Osan, Korea
- 2017-15

<오프 프린트>, 테이트 모던, 런던, 영국
<Offprint London>, Self-published book, Tate Modern, London, UK
- 2017

<컨템포러리 베니스>, 플라잔지니 전당, 베니스, 이태리
<Contemporary Venice>, Palazzo Flangini, Venice, Italy

-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안산
Artist in Residence,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Winzavod Center for Contemporary Art, 모스크바
Artist in Residence, Winzavod Center for Contemporary Art, Moscow, Russia

- 수상 및 기금지원 Awards & Fellowships**
- 2019

경기창작센터 해외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공모 선정 기금지원, 안산
International Art Exchange Suppor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8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 박람회 선정, 서울
Seoul Art Foundation off year Portfolio Reviews, Selected, Seoul, Korea
- 2018

아르코 신진작가 워크숍, 아르코미술관, 서울
The Workshop for emerging artist, Arko Art Cencer, Seoul, Korea
- 2017

라이프 프레이머 편집장 어워드 수상, 런던
Editors' Pick Award, LifeFramer 2017, London, UK

- 매거진/ 출판 Selected Features/ Publications**
- 2020

Feature (print), European Photography 매거진 (No.106), Photo Encounters: From Athens to Bialystok, 독일
Feature (print), European Photography Magazine (No.106), Photo Encounters: From Athens to Bialystok, Berlin, Germany
- 2018

Feature (print and oline), Aesthetica 매거진 2/3월호, 요크, 영국
Feature (print and oline), Aesthetica magazine, February/March issue 81, York, UK

miyoung-kim.com
vivimiyoungkim@gmail.com

류정민 Jungmin Ryu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 순수 미술(프라이에 그래픽), 디플롬
Diplom Studium,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uenste Stuttgart, Fine Art [Freie Graphik], Germany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사진 예술, 학사
Associate Degree,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Photographic Art, Uiwang, Korea

-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20

<스머드는 생각, 사이에 있는 모든 것>, 갤러리 밈, 서울
<Instil thoughts, things in between>, GALLERY MEME, Seoul, Korea
- 2018

<EIN STEIN_생각의 생각>, 갤러리 압생트, 서울
<EIN STEIN_Thinking about Thinking>, Gallery Absinthe, Seoul, Korea
- 2017

<계획된 공간, 우연한 그림자>, 갤러리 인덱스, 서울
<The planned space, Accidental shadow>, GALLERY INDEX, Seoul, Korea
- 2012

<The Path of Error>, 트렁크 갤러리, 서울
<The Path of Error>, TRUNK GALLERY, Seoul, Korea
- 2009

<The Path of Error>, 대안공간 반디, 부산
<The Path of Error>, space bandee, Busan,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순환하는 밤>,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Whispering Nigh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6

<Korea Tomorrow>, 성곡 미술관, 서울
<Korea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 2015

<소마 드로잉_무심(無心)>, 소마 미술관, 서울
<SOMA DRAWING_Mindful Mindless>,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2

<도시산책>,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Urban Promenade>,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 2011

<Hello Tomorrow>, CAIS Gallery, 홍콩
<Hello Tomorrow>, CAIS Gallery, Hong Kong

- 수상 및 경력 Awards & Grants**
- 2018

소마 드로잉센터_ 아카이브 등록 작가, 서울
Archive Artist, SOMA Museum of Art_ Drawing Center, Seoul, Korea
- 2012

서울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창작 지원금_ 개인전, 서울
Art Support Fellowship_solo Exhibitio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08

GVS-Foerderpreis Junge Kuenstler2008_ 올해의 젊은 작가 대상 GAS, 슈투트가르트, 독일
GVS-Foerderpreis Junge Kuenstler2008_1 Place Gas Versorgung sueddeutschland, Stuttgart, Germany
- 2008

Akademiepreis 2008,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교 최우수학생, 독일
Akademiepreis 2008,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uenste Stuttgart, Stuttgart, Germany

jmnyujm@hanmail.net

박미라 Mira Park

경원대학교, 회화와 학사
BFA, Painting,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20 <검은 산책>, A -Lounge gallery, 서울
<Walk in the dark>, A -Lounge gallery, Seoul, Korea (Upcoming)
- 2019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밤물결 >,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The Waves at Night>, Gyeonggi Creation-Center, Ansan, Korea
- 2015 <래빗홀>, 북노마드 a.space, 서울
<The Rabbit Hole>., Booknomad a.space,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GS 강서 타워, 서울
<In the center of the world>, GS Gangseo tower, Seoul, Korea(Upcoming)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 순환하는 밤>, 경기창작센터 전시실, 안산
<The Whisper Night>, Gyeonggi Creation-Center, Ansan, Korea
- 2019 <비밀없는 스텝크스>, 금나래아트홀, 서울
<Sphinx without Secrets>, Geumnarae Art hall, Seoul, Korea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프리뷰전 :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전시실, 안산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Center, Ansan, Korea
- 2018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2018 결과전시 #1: 발화>, gs 강서타워, 서울
<MEET 2018: Mullae Value #1>, GS Gangseo tower, Seoul, Korea
- 2018 <색칠놀이>, 문래예술공장 M30, 서울
<Chromaticity>, Mullae Art Factory M30, Seoul, Korea
- 2018 <경기천년 도큐페스타<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내 입학임산학관, 수원
<GMoMA Special Exhibition GYEONGGI ARCHIVE_NOW>, Sangsang Campus, Suwon, Korea
- 2014 <쇼윈도우 프로젝트_도시의 산책자>, 7 1/2, 라운드어바웃, 서울
<Show Window Project :Being A Flaneur>, 7 1/2, Round About, Seoul, Korea
- 2014 <3인의 목격자>,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Three Witnesses>, Shinhan Gallery Yeoksam,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20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rtist in Residency Program, Ansan, Korea
- 2011-13 금천아트캠프, 서울
Geumcheon Art camp Artist in Residency Program, Seoul,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9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릴레이 2인전 퀀텀점프 선정, 수원
Gyeonggi Creation Center Quantum Jum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시각예술, 서울
Artist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Seoul, Korea
- 2019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EET프로젝트 선정 (Under The Skin), 서울
MEE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8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EET프로젝트 선정 (도시출판 색칠놀이), 서울
MEE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시각예술, 서울
Artist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 and Culture, Seoul, Korea

출판 Publications

- 2020 검은 산책
Walk in the dark
- 2018 색칠놀이
Chromaticity
- 2015 래빗홀
Rabbit Hole

flaneur.mira@gmail.com

박신용 Sinyong Park

베를린 바이센제 예술대학 Spatial Strategies, MA
MA, Spatial Strategies, Weißensee School of Art Berlin, Germany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BFA,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전시 및 프로젝트 Selected Exhibitions & Projects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대부-구성>, 공공 미술 프로젝트, 대부도
<Daebu-Construction>, Outdoor public project, Daebudo, Korea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Opportunity>, Kunsthalle Am Hamburger Platz, 베를린, 독일
<Opportunity>, Kunsthalle am Hamburger Platz, Berlin, Germany
- 2018 <Topological Construction in Public Space>, Concordiagebäude - 3rd floor, 베를린, 독일
<Topological Construction in Public Space>, Concordiagebäude - 3rd floor, Berlin, Germany
- 2017-18 <Construction Tower>, 공공 미술 프로젝트, 베를린, 독일
<Construction Tower>, Outdoor public project, Berlin, Germany
- 2017 <Memory of Childhood>, Concordiagebäude - 3rd floor, 베를린, 독일
<Memory of Childhood>, Concordiagebäude - 3rd floor, Berlin, Germany
- 2017 <Urban Machen>, Böcklerpark, 베를린, 독일
<Urban Machen>, Böcklerpark, Berlin, Germany
- 2017 <Die Straßen>, KHB, 베를린, 독일
<Die Straßen>, KHB, Berlin, Germany
- 2016-17 <Construction Site in Böcklerpark>, 공공 미술 프로젝트, 베를린, 독일
<Construction Site in Böcklerpark>, Outdoor public project, Berlin, Germany

출판 Publications

- 2020 <대부-구성, 아카이브>, 서울
<Daebu-Construction, Archive> richtig technik, Seoul, Korea

수상 및 아트레지던시 Awards & Artist-in-Residence

- 2020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지원, 안산
Art Project Gran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아르코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시각예술 분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ARKO Arts Support Program, Arts Council Korea, Seoul, Korea
- 2019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경기문화재단, 수원
Gyeonggi Creation Center Artist-in-Residenc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mail@parksinyong.com

박진희 Jinhe Park

런던왕립예술원(Royal College of Art) 조소과 석사, 런던 영국
MA, Sculpture, Royal College of Art, Fine Art (London)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슬레이드스쿨오브파인아트, 조소과 학사, 런던 영국
BA, Sculpture,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London)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8 <나의 절망을 바라는 그대에게>, 탈영역우정국, 서울
<MONSTROUS FEMININE>, POST TERRITORY UJEONGGUK, Seoul, Korea
- 2017 <에민함 그 사소함에 대하여>, 갤러리 777, 양주
<BLUE MAN>, 777 GALLERY, YANGJU,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20 <흩어진 생각, 조합된 경험>, 단원미술관, 안산
GYUNGGI VISUAL ARTS ACHIEVEMENT EXHIBITION: <SCATTERED THOUGHTS COMBINED EXPERIENCE>,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 2018 다층의 기록,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A MULTI LAYERD RECORD>, CHANG UCCHIN MUSEUM OF ART, YANGJU, KOREA
- 2017 <SWAP UK/UKRAINE>, MALA GALLERY OF MYSTETSKYI ARSENAL, 키예프, 우크라이나
<SWAP UK/UKRAINE>, MALA GALLERY OF MYSTETSKYI ARSENAL, Kiev, Ukraine
- 2016 <CIRCLE OF COMMUNICATION>, YERMILOV CENTRE, 하르키우, 우크라이나
<CIRCLE OF COMMUNICATION>, YERMILOV CENTRE, KHARKIV, Ukraine
- 2016 <SWEAT>, 캄든아트센터, 런던, 영국
<SWEAT>, CAMDEN ART CENTER, LONDON UNITED KINGDOM

수상 GRANT & FELLOWSHIPS

- 2019 경기문화재단유망작가지원사업, 수원
EMERGING ARTIST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2018 퍼블릭아트뉴히어로선정, 퍼블릭아트매거진, 서울
PUBLIC ART NEW HEROS, PUBLIC ART MAGAZINE, Seoul, Korea
- 2018 예술작품지원, 서울문화재단, 서울
VISUAL AR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8 제3회뉴드로잉프로젝트, 우수상,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양주
AWARDEE OF NEW DRAWING PROJECT IN CHANG UCCHIN MUSEUM OF ART, YANGJU, KOREA
- 2017 소마드로잉센터아카이브작가, 서울
SELECTED FOR ARCHIVIE ARTIST, DRAWING CENTRE SOMA MUSEUM OF FINE ART,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경기창작센터입주작가,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RE, ANSAN, KOREA
- 2017-18 777레지던스 2기입주작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양주
ART STUDIO 777 RESIDENCY, CHANG UCCHIN MUSEUM OF ART, YANGJU, KOREA
- 2016 SWAP: UK/UKRAINE 레지던시, 우크라이나영국문화원, 야밀로브미술관, 하르키우, 우크라이나
SWAP: UK/UKRAINE ARTIST RESIDENCY PROGRAM, THE BRITISH COUNCIL UKRAINE, YERMEILOVCENTRE, KHARKIV, Ukraine

WWW.PARKJINHE.COM
PARKJINHE.COM@GMAIL.COM

서혜민 Hyemin Seo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와 전문사
M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학사
BA,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파동 시점>, 갤러리팔레드서울, 서울
<Point of Wave>, Palais de Seoul, Seoul, Korea
- 2018 <감각의 재구성>, 소곰포갤러리, 울산
<Reconstruction of the sense>, SogeumpoGallery, Ulsan,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0 <옴폭 파이오 볼록 솟은>, 갤러리 밈, 서울
<Valley and Peak>, gallery meme, Seoul, Korea
- 2019 <Territory of Music>, 문화비축기지, 서울
<Territory of Music>, Oil Tank Culture Park T6 Culture Archive, Seoul, Korea
- 2019 <삼각형의 구조>, 스페이스 빔, 인천
<Triangular Composition>, Space Beam, Incheon, Korea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Mysterious Morning>, GCC Exhibition Hall, Ansan, Korea
- 2018 <FRESHNESS>, 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장, 울산
<FRESHNESS>, Ulsan Culture & Arts Center, Ulsan, Korea

주요 공연 Selected Performance

- 2019 <NORDTalks>, 문화비축기지 야외공연장, 서울
<NORDTalks>, Oil Tank Culture Park, Seoul, Korea
- 2018 <ICMC2018>, 대구, 한국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 2018>, Daegu, Korea
- 2017 <14th Sound and Music Computing Conference>, 알토대학교., 에스푸, 핀란드
<14th Sound and Music Computing Conference>, Aalto Univ., Espoo, Finland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2 대상 수상, 현대자동차 사운드 디자인 공모전, 서울
1st Prize, Hyundai Motors Sound Design,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20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염포예술창작소, 울산
Yeompo Art Stutio, Ulsan, Korea

music.mean@hanmail.net

서혜순 Hye-Soon Seo

피레네고등예술학교, 조형예술 석사, 타르브, 프랑스
DNSEP (MA) Diplôme National Supérieur d'Expression Plastique, Ecole Supérieure d'art des Pyrénées, Tarbes, France
피레네고등예술학교, 조형예술 학사, 타르브, 프랑스
DNAP (BA) Diplôme National d'Arts Plastiques, Ecole Supérieure d'art des Pyrénées, Tarbes, France

-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그곳에 가면 그소리의 흔적이 있지... : schizophrenia, 공간분열>, 경기창작센터, 안산, 한국
<If you go there, there's a trace of the sound ... : schizophrenia, space spli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미끄러지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거나>, 김종영미술관, 서울
<Slip or Nothing>, Kimchongyung Museum, Seoul, Korea
- 2018 <나, 여기 편히 잠들길...>,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Rest in Peace>, Residency TEMI, Deajeon, Korea
- 2017 <소수를 위한 노스탈지아>, 비영리전시공간씩, 대구
<Nostalgia for the few>, Nonprofit Exhibition Space, SSAC, Deagu, Korea
- 2011 <Làche-vitrine, numero26>, Omnibus, (Laboratoire de proposition artistiques contemporaines), 타르브, 프랑스
<Làche-vitrine>, numero 26, Omnibus, Tarbes, France

-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Offraum8, 뉘셀도르프, 독일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Offraum8, Düsseldorf, Germany
- 2019 <유령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333, 낮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333>, The day and the night, Residency TEMI, Deajeon, Korea
- 2017 <상쇄에 저항하는 소리들>, 언오피셜프리뷰갤러리, 서울
<Cancellation Resisting Sounds>, Unofficial Preview gallery, Seoul, Korea
- 2012 <Jeune Création>, 104, 파리, 프랑스
<Jeune Création>, 104, Paris, France

-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20 다원예술, 서울예술지원_유망, 서울문화재단, 서울
Interdisciplinary Art, supporting arts for Exhibition Gra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9 아트프로젝트전시지원금, 경기문화재단, 수원
Art_Project Grant, Gyeonggi Creation Center, Suwon, Korea
- 2018 신진작가지원전, 김종영미술관, 서울
Creative Young Artist, Kimchongyung Museum, Seoul, Korea
- 2017 제3회 포트폴리오박람회, 우수상, 서울예술재단, 서울
3rd portfolio fair, Excellence Award, Seoul Arts Foundation, Seoul, Korea
- 2012 신진작가지원전, Le Moulin des Arts de Saint-Rémy, 프랑스
2nd Prix de la Jeune Création, Le Moulin des Arts de Saint-Rémy, France

- 주요 아트레지던시 Selected Artist-in-Residence**
- 2019-20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Residency Artist TEMI, Deajeon, Korea
- 2017 남원사운드아티스트레지던시, 남원
Namwon Sound Artist Residency, Namwon, Korea
- 2013 트라이앵글프랑스, La Friche de la Belle de Mai, 미르세이유, 프랑스
Triangle France, La Friche de la Belle de Mai, Marseille, France

www.hyesoonseo.com
shsoon21@naver.com
beaux_arts1@hotmail.com

성필하 Pilha Seong

청주대학교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MFA, Fine Art,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청주대학교 회화학과
BFA, Fine Art,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개인전 및 2인전 Solo and Duo Exhibitions**
- 2019 <오늘을 기억하는 공간 - 각자의 빈틈>, 단원미술관, 안산
<Empty Space in Each One>,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 2017 <시선처리>,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Unstable Eyes>,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낮선, 출발>, 공간시은, 전주
<Unfamiliar Departure>, Space Sieun, Jeonju, Korea
- 2017 <낮선, 도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Unfamiliar Arrival>,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 2014 <내일의 작가展>,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Emerging Artist>, Daecheong Ho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20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Program, Ansan, Korea
- 2019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Program, Ansan, Korea
-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청주
Cheongju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Cheongju, Korea

sung30g@naver.com

안상훈 Sanghoon Ahn

쿤스트아카데미 윈스터 마이스터슐러, 윈스터, 독일
Meisterschüler, Kunstakademie Münster, Münster, Germany
쿤스트아카데미 윈스터 디플롬(아카데미브리프), 윈스터, 독일
Akademiebrief(Diplom), Kunstakademie Münster, Münster, Germany
중앙대학교 서양화과
BFA, Fine Art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8 <올해의 입주작가전> 모두와 눈 맞추어 축하인사를 건네고, 인천아트플랫폼
내 신발이 조금 더 컬러풀 해, 갤러리 조선, 서울
<This Year's Platform Artist> Embrace the Uncertaint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My shoes are a bit more colorful, gallery chosun, Seoul, Korea
- 2017 <굿: 페인팅>,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인천
<GOOD PAINTING>, Incheon Art platform Warehouse Gallery, Incheon, Korea
- 2016 <아스팔트 위에는 빵이 자라지 않는다>, 크라이스미술관, 오스터부르크, 독일
<No bread grows on asphalt>, Kreis Museum, Osterburg, Germany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어긋나는 성장점>, 문화비축기지, 서울
<Uneven Growing Point>, Culture Oil Tank T1, Seoul, Korea
<안쓰 내일의 감각>, 설치+사운드, 가변크기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Ahn's_ The Senses of tomorrow>, installation view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수림미술상>, 수림아트센터, 서울
<Surim Award>, Surim Artcenter, Seoul, Korea
- 2018 <Veni vidi vici>, Plan B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Veni vidi vici>, Plan B Project space, Seoul, Korea
<이미지 속의 이미지>,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Image in image>, Artspace Hue, Paju, Korea
- 2015 <5. 템펠호퍼 미술전>, 템펠호프 미술관 갤러리, 베를린, 독일
<5. Tempelhofer Art Exhibition>, Galerie im Tempelhof Museum, Berlin, Germany

- 프로젝트 Projects**
- 2019 <섬사람_숨 쉬는 사람>, 혼합재료, 가변크기, 경기창작센터, 안산
<SUMM-ER>,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술로쇼 +> 갤러리 조선, 서울
<Solo Show +> gallery chosun, Seoul, Korea
- 2017 <당신을 위한 미술관>,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The Museum for you>,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9 수림미술상 우수상, 서울
Surim Award, Soorim Cultural Foundation, Seoul, Korea
- 2018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서울
Public Art New Hero, Seoul, Korea
- 2017 올해의 입주작가상,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This Year's Platform Artist Award,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15 작업지원금, 작센안할트, 독일
Work Scholarship Sachsen-Anhalt, Germany

-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2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MMCA Residency Goyang, Korea
- 2019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7-18 인천아트플랫폼 8,9기, 인천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15 쿤스트호프 다렌스테트 레지던시, 작센안할트, 독일
Residency Kunstthof Dahrenstedt, Sachsen-Anhalt, Germany

sahooahn@gmail.com

이병수 Byungsu Lee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서양화 전공
MFA,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BFA, College of Fine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9 <아름새 없는 세계>, 더레퍼런스, 서울
<Welcome to the Seamless World>, THE REFERENCE, Seoul, Korea
- 2018 <SO.S(SARUBIA Outreach & Support) - 이병수: 우리 세계를 위한 송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SO.S(SARUBIA Outreach & Suppprt)- Byungsu Lee: Ode to Our Communities>,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 2014 <메이드 인 안타티카>, 공간291, 서울
<Made in Antarctica>, Space 291, Seoul, Korea
- 2012 <인식의 각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The Angle of Recognition>,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Ansan, Korea
- 2019 <퍼폼2019: 링크아웃>,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일민미술관 (서울)
<PERFORM2019: Linkin-out>,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Ansan, Korea
- 2019 <거짓말>,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L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 수상 Awards**
-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
Arts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eoul, Korea
- 2017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SO.S (Sarubia Outreach & Support) 프로그램 선정작가,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SO.S (Sarubia Outreach & Support), Project Space SARUBIA, Seoul, Korea
- 2014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Selected Emerging Artists Program,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2 뉴디스코스 작가선정 대상, 사이미술연구소/사이아트갤러리, 서울
New Discourse Competition Grand Prize, Cyart Institute & Gallery, Seoul, Korea

-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Ansan, Korea
- 2012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청주
Cheongju Art Studio Residency Program, Cheongju, Korea
- 2010 금천예술공장 레지던시, 서울
Seoul Art Space Geumcheon Residency Artist, Seoul, Korea

sysola31@gmail.com

이여운 Yuwoon Lee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학사
BFA, Oriental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석사
MFA,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Ph.D, Graduate school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Reflection: Yu Woon Lee>, 갤러리 아트모라, 서울<Reflection: Yu Woon Lee>, Gallery Artmora, Seoul, Korea
- 2018<Modern Times>, 갤러리 도스, 서울<Modern Times>, Gallery Dos, Seoul, Korea<논리로 가득찬 캔버스에 검은 시를 띄우다>, 갤러리 9P, 서울<Fly a black poem on a canvas full of logic>, Gallery 9P, Seoul, Korea
- 2017<Duplicate>, 유중갤러리, 서울<Duplicate>, Ujung Gallery, Seoul, Korea<Mystic Forms>, 스트리트뮤지엄_골목길, 서울<Mystic Forms>, Street Museum_Alley,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Artmora>, ART SALON : 첼시, 미국<Artmora>, ART SALON : Chelsea, USA<묵·비묵·2019 한국·대만 당대수묵교류전>, Aglow Art Space : 타이난, 대만<墨·非墨·2019 韓國 臺灣 當代水墨交流展>, Aglow Art Space : Tainan, Taiwan<ART INTERNATIONAL ZURICH 2019>, Puls 5–Giessereihalle : 취리히, 스위스<ART INTERNATIONAL ZURICH 2019>, Puls 5–Giessereihalle : Zurich, Switzerland<궁>,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Palace>,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Icheon, Korea<재·분류 : 밤은 밤으로 이어진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Re-classification : The night leads to the night>,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수상 Awards

- 2018베니스 살롱 카우치 작가 선정, 베니스, 이탈리아Win a prize the encore invited artist of Venice Salon, Venice, Italy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작가 선정, 서울Win a prize in New Hero of Public Art Competition, Seoul, Korea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 지원사업 시각예술, 서울The SFAC supports creative art activities. visual arts, Seoul, Korea
- 2017베니스 살롱 카우치 작가 선정, 베니스, 이탈리아Win a prize in Venice Salon Couch Project, Venice, Italy
- 2016유중아트센터 작가공모 당선, 서울Win a prize in UJung Art Center the Artist Competition,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안산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9
- 2018베니스 살롱 앙코르 초청 작가, 베니스, 이탈리아Venice Salon Encore Couch Project. Venice, Italy 2018
- 2017베니스 살롱 카우치 작가, 베니스, 이탈리아Venice Salon Couch Project. Venice, Italy 2017

이웅철 Woongcheol Lee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MFA,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국민대학교 입체미술과
BFA, Sculpture,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8<안무: 드로잉과 설계 사이(양은혜 기획)>, 플랫폼-엘, 서울<Choreography: Between Drawing and Design>, Platform-L,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네이처 프로젝트>,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서울<Nature Project>, Seoulo Media Canvas, Seoul, Korea
- 2019<유령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한강건축상상전>, 문화비축기지, 서울<Greet the Han River>, Oil Tank Culture Park, Seoul, Korea
- 2018<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Counter-Memory & Reconstruction of Body Movement>, Seoul Art Space SEOGYO, Seoul, Korea
- 2017<경기아트프리즘>, 경기도미술관, 안산<Gyeonggi Art Prism>,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선정 및 아트레지던시 Grants & Artist-in-Residence

- 2019경기창작센터, 안산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다원예술 분야 기획 공모 선정, 플랫폼-엘Live Arts Program, Platform-L, Korea
- 2017경기청년신진작가 공모 선정, 경기도 미술관, 안산Gyeonggi Young Artist Contes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소창 Collection

- 2017경기도미술관, 안산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mnwc@naver.com

이재욱 Jaeuk Lee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통합디자인[사진] 석사
MFA, Integrated Design[Photography], University of the Arts Bremen, Germany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학사
BFA, Digital Media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레드라인>, 상업화랑, 서울<Red Line>, Sangup gallery, Seoul, Korea
- 2018<너의 잘못이 아니야>, KT&G 상상마당 갤러리, 서울<It's not your fault>, KT&G Sangsangmadang Gallery,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광장: 미술과 사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The square: Art and society in Korea>, MMCA Gwacheon, Korea
- 2019<유령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Ghost city>, Place Mak, Seoul, Ansan, Korea
- 2019<고스트 씨티>, 플레이스막 연희, 서울<Ghost city>, Place Mak, Seoul, Korea
- 2019<담양>,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광주<Damyang>, Shinsegae department store gallery, Gwangju, Korea
- 2019<그림에도 역사는 계속된다>, 주홍공한국문화원, 홍콩<Nevertheless, History continues>, Korean cultural center in Hongkong, Hongkong
- 2018<이동하는 예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Artist on the move>, MMCA Goyang residency, Goyang, Korea
- 2018<제10회 KT&G SKOPF 올해의 작가전>, 고은사진미술관, 부산<KT&G SKOPF>,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 2018<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4.3 70주년 네트워크 프로젝트>, d/p, 서울<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Network Project>, d/p, Seoul, Korea
- 2017<아아 오디세이>, 예술공간 이아, 제주<IAa Odyssey>, Art Space IAa, Jeju, Korea
- 2017<어딘가로>, 브레멘시립갤러리, 브레멘, 독일<Elsewhere>, Bremen Municipal Gallery, Bremen, Germany
- 2017<나는 갈등한다 고로 존재한다>, 동강국제사진제, 영월<I conflict, therefore I am>, Donggang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Yeongwol, Korea
- 2016<사진마스타>, 라이카 갤러리, 포토키나, 쾰른, 독일<Masters of Photography>, Photokina Leica Gallery, Cologne, Germany
- 2016<갈등?>, 성마가성당, 하노버, 독일<Conflict?>, St. Mark's Church, Hannover, Germany
- 2016<Are you with me now?>, 문화예술 프로젝트 스페이스, 브레멘, 독일<Are you with me now?>, Art and Culture Spedition e.V., Bremen, Germany
- 2015<Crisis-What crisis>, 미테 갤러리, 브레멘, 독일<Crisis-What crisis>, Gallery Mitte, Bremen, Germany
- 2015<Facing New Spaces>, 함부르크 사진트리엔날레, 함부르크, 독일<Facing New Spaces>, Triennale of Photography Hamburg, Hamburg, Germany

수상 및 아트레지던시 Awards & Artist-in-Residence

- 2019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입주작가, 안산Gyeongggi creation center artist residence, Ansan, Korea
- 2018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입주작가, 고양MMCA Goyang artist residence, Goyang, Korea
- 2017제10회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프로그램 올해의 최종작가, 서울The 10th KT&G SKOPF Final selected artist, Seoul, Korea
- 2017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공간이아 입주작가, 제주Art space laa Jeju artist residence, Jeju, Korea
- 2016브레멘-이즈미르 사진가교류 기금, 괴테인스티튜트, 독일Bremen-Izmir Photographic exchange project, Goethe Institute, Germany

출판 Publishing

- 2018<Wonderland>, KT&G 상상마당<Wonderland>, KT&G Sangsangmadang

lee@jaeuk.de

전혜주 Hyejoo Jun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Art and Media, 마이스터슐러
Meisterschüler, Art and Media,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Germany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Art and Media, 석사
MFA, Art and Media,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Germany
오펜바흐 조형예술대학, 시각예술, 포어디플롬
Vordiplom, Visual communication, Offenbach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Offenbach, Germany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회전>, 스페이스 캔, 서울<Whirl>, Space CAN, Seoul, Korea
- 2019<회색입자>, 플레이스막, 인천<Gray Particles>, Place MAK, Incheon, Korea
- 2018<수평선 0시 0분 0초>, 인천아트플랫폼, 인천<Horizon 00:00:00>,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17<무심(無心), 한 물줄기의 이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No-mind, the Name of a Stream>,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유령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2018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2018 PLATFORM ARTIST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 2017<Mapping the City – 난지아트쇼 IV>,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Mapping The City>, SeMA Nanji Residency, Seoul, Korea
- 2016<1,2,3,4,5,6,>, 갤러리 175, 서울<1,2,3,4,5,6,>, Gallery 175, Seoul, Korea
- 2016<Outskirts>, 스페이스빔, 인천<Outskirts>, Space Beam, Incheon, Korea
- 2015<No Parking>, Ca'd'Oro 갤러리, 뉴욕, 미국<No Parking>, Ca' d'Oro Gallery New York, New York, US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20경기예술창작지원 - 우수작가 창작지원 선정, 경기문화재단, 수원Gyeonggi Art Creation Support for promising Artis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2019인천형예술인지원사업 - 유망예술가 다년 활동지원 선정, 인천문화재단, 인천Emerging Artist Grants,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ncheon, Korea
- 2019예술지원 사업 - 최초예술지원 창작발표형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First Art Gran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7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사업 선정, 서울문화재단, 서울Young artist Grant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5인사미술공간 시각예술분야 작가-큐레이터 워크숍 참여작가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INSA Art Space artist and curator workshop, Art Council Korea, Seoul, Korea
- 2013올라퍼 엘리야슨 공간연구소, 참여작가 선정, 올라퍼 엘리야슨 스튜디오, 베를린, 독일Institute for Spatial Experiments, participant, Studio Olafur Eliasson, Berlin, Germany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20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 서울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9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안산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8인천아트플랫폼 9기 입주작가, 인천Incheon Art Platform, Incheon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ncheon, Korea
- 2017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 청주Cheongju Art Studio,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hyejoo.jun@gmail.com

정재희 Jaehee Jung

베를린 예술대학(UdK Berlin) 비주얼커뮤니케이션(Prof. Joachim Sauter, 뉴미디어 전공) 석사
MA, Visual Communication (New Media with Prof. Joachim Sauter),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Germany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HBK Braunschweig) 순수미술(Prof. Ulrich Eller) 마이스터슐러
Meisterschüler, Fine Arts (Sound Art with Prof. Ulrich Eller),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 Braunschweig, Germany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HBK Braunschweig) 순수미술(Prof. Ulrich Eller) 디플롬
Diplom, Fine Arts (Sound Art with Prof. Ulrich Eller),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 Braunschweig, Germany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BFA,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9 <이상한 계절>,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안산
<Strange Seaso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Project Gallery), Ansan, Korea
- 2018 <Smart New World>, 더레퍼런스, 서울
<Smart New World>, The Reference, Seoul, Korea
- 2017 <Unsmart Objects>, 아웃사이트, 서울
<Unsmart Objects>, Outsight, Seoul, Korea
- 2016 <Everyday Sound Units>, 갤러리정미소, 서울
<Everyday Sound Units>,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유령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미디어의 장>,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Media Field>,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8 <마사코 여사의 의심: 줄>, 예술공간 의식주, 서울
<Mrs. Masako's Doubt: Rope>, The Necessaries, Seoul, Korea
- 2018 <K'ARTS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K'ARTS 갤러리, 서울
<The 2nd Annual K'ARTS Studio Exhibition>, K'ARTS Gallery, Seoul,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9 경기창작센터-경기도미술관 퀀텀점프 2인 릴레이 개인전 작가 선정, 안산
Selected as an Artist for Quantum Jump 2-Artists Relay Solo Shows by Gyeonggi Creation Center and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서울
The First Arts Support fro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7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서울
The First Arts Support fro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08 김중영미술관 신진조각가 선정, 서울
Selected as a Young Sculptor by Kim Chong Yung Museum,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7 K'ARTS 창작스튜디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서울
K'ARTS Studio,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maumbulle@gmail.com

조민아 Minah Cho(趙玟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학과
MFA, Oriental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BFA, Oriental Pain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부분 혹은 전부>, Pier-2 레지던시, 가오슝, 대만
<Partial or Whole>, Pier-2 Artist in Residency, Kaohsiung, Taiwan
<비껴진 자리에서>, 인스턴트루프, 서울
<In a detached position>, Instant roof, Seoul, Korea
- 2018 <소란스러운 적막>, OCI미술관, 서울
<Deafening Silence>, OCI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7 <오늘의 기약>, 갤러리임, 서울
<Pledge of today>, Gallerymeme, Seoul, Korea
Known face, unknown tomorrow, Café Libre+Maybell Bakery, Seoul, Korea
- 2016 <숙련과 노하우>, 인스턴트루프, 서울
<Skills and Knowhow>, Instant roof,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 <농담, 결코 가볍지 않은>, 경북대학교미술관, 대구
<Joke, never light>, Art Museum K.N.U, Daegu, Korea
<제강이 춤을 출 때>, 175갤러리, 서울
<When Dijiang dances>, 175gallery, Seoul, Korea
- 2018 <지평선 너머로-한중 서화교류전>, 강릉아트센터, 강릉
<Korea - China Joint Exhibition -Below the horizon>, Gangneung Arts Center, Gangneung, Korea
<금호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고독의 기술>, 금호미술관, 서울
<Kumho Art Studio Exhibition -The Art of Solitude>,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제2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nd Gwangju Hwaru-Exhibition of Ten Artists>,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Pier-2 레지던시, 가오슝, 대만
Pier-2 Artist in Residency, Kaohsiung, Taiwan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Creative residency, Ansan, Korea
- 2016 금호창작스튜디오, 이천
Kumho Art Studio, Icheon, Korea
- 2015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Project residency, Ansan,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9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부분 선정, 서울
Visual Arts Project Selecte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8 제2회 광주화루 우수상, 광주
2nd Gwangju Hwaru Award, Gwangju Bank, Gwangju, Korea
- 2017 OCI 미술관 Young Creatives, 서울
OCI Young Creatives, OCI Museum, Seoul, Korea
- 2017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부분 선정, 서울
Visual Arts Project Selecte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소장 Collections

OCI 미술관, 서울
OCI Museum, Seoul, Korea
경기도미술관, 안산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자하미술관, 서울
Zaha Museum, Seoul, Korea

www.cho-minah.com
hahaha998@nate.com

조이경 Yikyoung Cho

Kunstakademie Münster_ 뉴미디어아트(Porf. Koepnick)_ Meisterschülerin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The Colour of Paint_ing>, fill Gallery, 서울
<The Colour of Paint_ing>, fill Gallery, Seoul, Korea
- 2019 <Image of Others>, KSD 갤러리, 서울
<Image of Others>, KSD Gallery, Seoul, Korea
- 2016 <표면의 깊이/ 깊이의 표면>, 스페이스몐 미술관, 청주
<Surface Of Depth/ Depth Of Surface>, Space MoM Museum Of Art, Chungju, Korea
- 2015 <저 샤워기는 그 샤워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티아트센터, 부산
<That Shower Is Not The Shower. Nonetheless.>, Hongti Art Centre, Busan, Korea
- 2015 <À bout de peinture #2> Gallery Gabi, 서울
<À bout de peinture #2> Gallery Gabi,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 <디어시네마-차이와 반복> 국립현대미술관, film video, 서울
<Dear Cinema-Difference and Repetition>, mmca,film video, Seoul, Korea
- 2019 <The 2019 Sovereign Asian Art Prize - Finalists Exhibition>, Sovereign Art Foundation, Hong Kong
- 2018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Geek Zone>, K현대미술관, 서울
<Geek Zone>, K-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2016 <제7회 서울 사진축제- 서울 신아리랑>,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The 7th Seoul Photo Festival: The New Arirang>,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6 <제16회 서울국제미디어페스티벌>, 미디어극장 아이공, 서울
<The 16th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Media Theatre i-Gong,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8 제3회 사진예술선정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안산
2019 Artist in Residence a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6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5기 입주작가, 천안
Artist in Residence at White Block Art Center, Cheonan, Korea
- 2015 한국종합예술학교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서울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Visual Arts K'ARTS Residency, Seoul, Korea
- 2012 부산문화재단 홍티아트센터 4기 입주작가, 부산
Artist in Residence at Hongti by The Busan Foundation for Art & Culture, Busan, Korea
GlogauerAIR Artist in Residence, 베를린, 독일
Artist in Residence at GlogauerAIR, Berlin, Germany

bluecho513@gmail.com

구소영 Soyoung Goo

계원예술대학교 (K-SAD) 전공심화과정 공간연출학과 학사
BFA, Dramatic Space Creation,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Uiwang, Korea
계원예술대학교 (K-SAD) 공간연출학과 / 무대미술 부전공 전문학사
BFA, Dramatic Space Creation,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Uiwang, Korea

- 개인/단체 전시 및 프로젝트 Solo Exhibition & Group Exhibitions
- 2019

<흐르는 몸마음 프로젝트>, 조치원 문화정원, Culture Planning, 세종
<Flowing Body mid Project>, Jochiwon Cultural Garden, Sejong, Korea
-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9

<Green Art Road Project>, 몽골문화예술위원회, Culture Planning, 몽골
<Green Art Road Project>, Mongolian Culture and Arts Committee, Monglia
- 2019

<꿈틀꿈틀 만만세!(어린이 전시)>, BRT작은미술관, Group exhibition, 세종
<kkumteulkkumteulmanmanse(childrenexhibition)>, BRTsmall art museum, Sejong, Korea
- 2018

<상상공장 0장장>, 경기창작센터, 안산
<Imagination Factory 0 Jang Jang>,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 2018

<마음의 정원 헬로! 리틀 아티스트> 안양파빌리온, Cultural Artist Education, 안양
<Garden of mind Hello! Little Artist>, AnyangPavilion, Anyang, Korea
- 2017

<VIEUX MEDIA>, La Générale Nord-Est, Paris
<VIEUX MEDIA>, La Générale Nord-Est, Paris, France
- 2017

<서울혁신파크(7동 예술실험동), H02: Black Swan 展>, Group exhibition, 서울
<H02: Black Swan>, Seoul InovtionPark, Seoul, Korea
- 2016

<시민청 안녕하세요 서울씨!>, Group exhibition, Culture Planning, 서울
<Hellow Seoul!, Seoul Citizens Hall>, Seoul, Korea
- 2016

<서울혁신파크(7동 예술실험동) 각각의 강展>, Group exhibition, 서울
<River Ofblivion, Seoul InovtionPark, Seoul, Korea
- 2016

<시민청 2016 창작공간 페스티벌>, Group exhibition, 서울
<2016 Creative Space Festival>, CitiaensHall, seoul, Korea
- 2016

<서울혁신파크(7동 예술실험동) 낭만적인간:질병의 사회사展>, Group exhibition, 서울
<L'HommeRomantique: Sociologie de L'épidémie>, Seoul InovtionPark, Seoul, Korea
- 2016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문화전당 Asia Kula Kula ring展>, Group exhibition, 광주
<Asia Kula Kularing,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 2016

<Walery Art 제주 대만 해외교류展>, Group exhibition, 대만
<The new maritime network Intrenational Excange Between Jeju& Taipei>, WaleryArt, Taipei, Taiwan
- 2016

<아트창고 레지던스, 새김의 놀이터展>, Solo Exhibition, 제주도
- 2018

<A Carving Playground, Art Warehouse Residency>, Jeju, Korea
- 2016

<안양문화예술재단, 환영합니다展>, Group exhibition, 안양
<Welcome aboard, Open School>, Anyang Public Art Project, Anyang, Korea

아트레지던스 Artist-in-Residence

- 2018-19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6

제주도 아트창고 입주작가, 제주
Jeju Art Warehouse, Jeju, Korea

예술교육 경력

- 2020

오딧세이 ‘이름’ 학교 <몽몽실험실>(예술가교사), 서울
Odyssey 'Irum' School <MongMongLab>, Teaching Artist, Seoul, Korea
- 2019

세종문화재단 예술동아리<꿈지락 인형극>(예술가 교사), 서울
Sejong Cultural Foundaton,Art Club<wriggle puppetshoe>,Teaching Artist, Seoul, Korea
- 2017-19

서울예술문화재단 청소년 Teachin Artist (예술가 교사), 서울
Seoul Cultural Foundaton,teenager Teachin Artist, Seoul, Korea
- 2016-17

양천해누리 장애인복지재단 청년대학 (예술가 교사), 서울
YangcheonHannuriWelfare Foundation for the Disabled youth college, Teaching Artist, Seoul, Korea

guaba89@gmail.com

김용현 Yonghyun Kim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뉴폼 전공
MFA, New for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대진대학교 서양화와
BFA, Painting, Daejin University, Pocheon, Korea

-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9

<Elbow room : 자유활동범위, 스페이스 00연회, 서울
<Elbow room>, Project space 00 yeonhui, Seoul, Korea
- 2018

<4th channel>, 스페이스1326, 창원
<4th channel>, space1326, Changwon, Korea
- 2015

<즐거운 인생>, 스페이스1326, 창원
<The Happy Life>, space1326, Changwon,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KIM & KIM>, 아무랩, 서울
<KIM & KIM>, amulab, Seoul, Korea
- 2018

<우사단 비디오 프로젝트>, 망고서림, 서울
<Usadan video project>, mangoseolim, Seoul, Korea
- 2017

<Eardrum Motel>, 양주시립미술관 777레지던시, 양주
<Eardrum Motel>, Residency777, Yangju, Korea
<와우산로 식물원>, 엘리펀트아트, 서울
<Wausan-ro botanical garden>, elephant art, Seoul, Korea
- 2016

<연회동네>, 스페이스00연회, 서울
<Village yeonhui>,space 00 yeonhui,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20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5

경남창작센터, 산청
Gyeongnam Art Creative Center, Sancheong, Korea
드로잉 스페이스 살구, 서울
Drawing Space Saalgoo, Seoul, Korea

vitoveto@gmail.com

김은솔 Eunsol Kim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뉴미디어학부 석사
MFA, Newmedia,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Seoul, Korea
상명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전공 학사
BFA, Photography&Visual Media, Sang-Myung University, Cheonan, Korea

-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8

<NO_INFO>, 무악파출소, 서울
<NO_INFO>, Artmooak,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uop Exhibitions

- 2019-20

<회기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흐르는 몸과 마음>, 조치원문화정원, 세종
<Flowing body and mind>, Jochiwon Cultural Garden, Sejong, Korea
- 2017

<미디어 파사드 [百 畫 店]展>, 양주시립장옥진미술관, 양주
<Media Facade [Hundred of Image]>, Chang Ucchin Museum of Art Yangju City, Yangju, Korea
- 2015

<Sens of Wonder展>, 금천예술공장, 서울
<Sens of Wonder,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Korea
- 2015

<친절한 무기력展>,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Friendly Helplessnes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 2013

<주안미디어페스티발>, 송의아레나, 인천
<Juan Media Festival>, Sungui Arena, Incheon, Korea
- 2011

<서울국제실험영화제 국내 경쟁 EX NOW-5>, 한국영상자료원, 서울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EX NOW-5>, Korean Film Archive, Seoul, Korea
<서울사진축제>,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Seoul Photo Festival>, Se MA Gyeongheegung,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8-20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네트워크구축 참여(몽골)
Youth Art Network Constrction, Arts Council Korea, Mongolia
- 2018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다원예술분야 선정, 서울
Grant for “Alpha and Omega”,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5

서울문화재단 다빈치크리에이티브 2015, 서울
DAVINCI CREATIVE 2015,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 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퍼블릭 아트 오픈콜, 서울
Public Art Opencall, Arts Council Korea, Seoul, Korea
- 2011

EXIS(서울국제실험영화제) 중문상, 서울
JungWoon Award, Experimental Film and Video Festival in Seoul, Seoul, Korea
- 2011

서울사진축제 포트폴리오 선정
Portfolio Contest, Seoul Photo Festival, Seoul, Korea

kimeunsol243@naver.com

김재유 Jaeyoo Kim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MFA,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단국대학교 서양화와
BFA, Painting,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8

<몽중풍경>, 반줄갤러리, 서울
<Landscape in dream>, gallery Banjul, Seoul, Korea

단체전 Gruop Exhibitions

-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바람을 바라보다>, 광동제약 가산천년정원, 서울
<Way of see the wind>, Kwangdong, Seoul, Korea
- 2019

<Focus on Anyang>, 평촌아트홀, 안양
<Focus on Anyang>, Pyoungchon Arts Hall, Anyang, Korea
- 2019

<Y&Y Artist Project>, 영은미술관, 광주
<Y&Y Artist Project>, Youngeun Museum, Gwangju, Korea
- 2018

<뉴웨이브:코드10>,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천안
<NEW WAVE CODE 10>, Cheonan Art Center Museum, Cheonan,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20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소장 Collections

- 2019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
Anyang Foundation for Culture&Arts, Anyang, Korea
- 2019

영은미술관, 경기광주
Youngeun Museum, Gwangju Gyeonggi-do, Korea

kjy21117@naver.com

김채린 Chaelin Kim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석사
MFA, Departmen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사
BFA, Department of Sculpture,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따뜻한 여름의 둥근 모서리>, OCI 미술관, 서울
<The round edge of summer lush>, OCI Museum, Seoul, Korea
- 2018 <열한가지 조각>, 김종영미술관, 서울
<Eleven pieces of sculpture>, Gimjongyo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5 <무소속의 시간들>, 보스톡(00연희스페이스), 서울
<Unattached Moments>, VOSTOK(Yeonhui Public Space), Seoul, Korea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20 <눈 깜짝할 새>, 일우스페이스, 서울
<IN A FLASH>, ILWOOSPACE, Seoul, Korea
-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do, Korea
- 2019 <미술이 살고 있는 그 집>, 송창당대예술헌관, 북경, 중국
<Where art lives(The house)>, Songzhuang Contemporary Art Archive, Beijing, China
- 2017 <신진작가지원잔>,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도
<Selection of Rising Artist support exhibition>, Uijeongbu Seoul Arts Center, Gyeonggi, Korea
- 2017 <moer & more>, 신미술관, 청주
<moer & more>, Shin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9 OCI 영크리에이티브스 선정, OCI미술관, 서울
OCI Young Creatives, OCI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8 창작지원작가 선정, 김종영미술관, 서울
Selection of artistic support, Kim chong Young Museum, Seoul, Korea
- 2017 신진작가공모선정,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
Selection of Rising Artist support, Uijeongbu Seoul Arts Center, Uijeongbu, Korea
- 2017 신인작가 공모선정, 신미술관, 청주
Selection of New Artist support, Shin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 2016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공예부문 특선, 서울
Korean Art Grand Prize Exhibition for Ceramics Special Selection,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20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t artist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6 수로요 도예 레지던시 입주작가, 고성
Suroyo Ceramics Residency resident artists, Goseong, Korea
- 2014 경남예술창작센터 5기 입주작가, 산청
Gyeongnam Art Creative Center 05 resident artists, Sancheong, Korea

vitoveto@gmail.com
www.kimchaelin.com

송성진 Sungjin Song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동작들>, 스페이스mm, 서울
<Motions>, Space mm, Seoul, Korea
- 2019 <Inner city>, New space art foundation, 후에, 베트남
<Inner city>, New space arts foundation, Hue, Vietnam
- 2018 <한평조차(1坪 潮差)>, 선감도 갯벌, 안산
<1 pyeong house between tides>, Tideland Sungamdo, Ansan, Korea
- 2017 <자세들 - 매달림, 균형>,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Postures - Hang on, Blance>, Kunstlarhaus Bethanien. Gamanry
- 2016 <There>, 스페이스 오뉴월 이주현, 서울
<There>, Space ohnewall Ejuheon,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광장-미술과 사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The Square : Art and Society in Korea 1900-2019 part2.>, MMCA, Seoul, Korea
- 2019 <상심의 바다-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다대포, 부산
<Sea of Heart break : Sea Art Festival 2019>, Dadaepo, Busan, Korea
- 2018 <도시의 상상 골목의 기억-오르다 내리다>, 일맥문화재단, 초량1925, 부산
<Memory of an alley-Imagination of the city>, Choryang1925, Busan, Korea
- 2018 <적막한고요와 짙은해무사이>, 경기창작센터, 안산
<Lonesome silence and heavy sea mist>, GCC, Ansan, Korea
- 2017 <카라치비엔날레>, 포마아트센터, 카라치, 파키스탄
<Karachi beinnale>, Fomma Art center, Karachi, Pakistan Paris, France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8-9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6 쿤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베를린, 독일
Ku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mnary
- 2014 사사아트프로젝트, 프놈펜, 캄보디아
SasaArtProject, Phnom Penh, kambodia
- 2013 뉴제로 아트스페이스, 양곤, 미얀마
Myanmar New zoro artspace, Yangon, Myanmar

수상 및 선정 Awards & Grants

- 2018 뉴컬렉티브-뉴체인지 경력작가선정, 경기문화재단, 수원
New collective & New ChangeGyeonggi-Career aris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Suwon, Korea
- 2017 카라치 비엔날레 참여작가 지원 선정, 한국예술위원회, 파키스탄
Krachi beinnale Participation support, Arko, Pakistan
- 2013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공모 특선, 부산비엔날레, 부산
Busan Biennale Sea Art Festival special selection, Busan Biennale, Busan, Korea
- 2012 하정웅청년작가전선정,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Ha Jung-Woong Young Artist Award,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작품소장 Collections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Museum of Art Busan, Busan, Korea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 경기도미술관, 안산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1215g@naver.com
https://1215g4.wixsite.com/song

이언정 Unjung Lee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와
MFA, Graduated from Printmaking Dept,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판화와
BFA, Graduated School of Printmaking Dept,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9 <작은도시, 산책>, 뮤지엄산, 원주
<Small city, walk>, museumsan, Wonju, Korea
- 2016 <Urban Space(belt 2016 선정작가)>, 갤러리 고도, 서울
<Urban Space(belt 2016)>. gallery godo, Seoul, Korea.
- 2016 <Urban Space (상상의 도시와 산책자)>, 가나아트스페이스
<Urban Space(Imaginary city and Flaneur)>, Ganaartspace, Seoul, Korea
- 2012 <Urban Space>, 인사아트센터, 인사동, 서울
<Urban Space>, Insa art center, insa-dong, Seoul, Korea
- 2011 <Urban Space>, 갤러리 아트가, 효자동, 서울
<Urban Space>, gallery Artga, Hyoja-dong,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50회 이상(중국, 일본, 대만, 폴란드, 미국, 말레이시아 포함)
More than 50 times of group exhibitions
- 2018 International Invitational Mini Prints Exhibition,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Taiwan
- 2017 22nd Eastern Art Salon – Lublin 2017, Museum of Lublin, Poland
- 2016 Binhai new area sino-korea engraving exchange exhibition collection, TEDA library&archives, Tianjin, China
- 2015 The 5th NBC Meshtec Tokyo International Screen Print Biennial, Tokyo, Japan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20 경기창작센터, 안산
Resident artist, Gyeonggi Creative Center, Ansan, Korea
- 2018 갤러리 인사아트 아틀리에 입주 작가, 서울
Gallery Insa Art Atelier resident artists, Seoul, Korea

수상 및 지원 Awards & Fellowship

- 2018 뮤지엄SAN 제2회 신진판화공모전 작가선정, 원주
Selected as an Artist for the 2nd Museum SAN New Printmaking Competition, Wonju, Korea
- 2017 제5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원주시장상, 원주
5th Wonju Ancient Asian Woodblock Print Association Annual Competition / excellence award, Wonju, Korea
- 2016 벨트 공모전 선정작가, 서울
Belt Competition selected artists, Seoul, Korea
- 2014 제7회 서울 메트로 미술대전 대상, 서울
7th Seoul Metro Art Awards / Grand prize, Seoul, Korea
- 2013 제33회 한국 현대판화공모전 특선, 서울
33th Korean Contemporary printmakers Association Annual Competition / special selection, Seoul, Korea

pizmin@naver.com

이현지 Hyunji Lee

건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현대미술학과
BFA, Contemporary art,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8 <오아시스, 유리, 벽돌>, 위켄드, 서울
<Floral foam block, glass, brick>, Weekend seoul, Seoul, Korea
- 2015 <Bird's garden>, Werner thoeni Art space, 바르셀로나, 스페인 외
<Bird's garden>, Wernerthoeni Artspace, Spain

단체전 Group Exhibitions

-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Instinctively return>,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Be-hold, 빈집 2가>, 서울
<Be-hold, Be-in House>, Seoul, Korea
- 2018 <Pre-view, 빈집1가>, 서울
<Pre-view, Be-in House>, Seoul, Korea
- 2017 <빈집프로젝트, 빈집1가>, 서울
<Artist's studio plus XX, Insa 1gil>, Seoul, Korea
- 2015 <세이프티 번트, 20/300>, 서울, 한국 외 다수
<Safety bunt, 300/20>, Seoul, Korea

아트레지던스 Artist-in-Residence

- 2019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8 Vermont studio center, 미국
Vermont studio center, USA
- 2017-18 Be-in House, 한국
Be-in House, Korea
- 2017 Dos mares, 프랑스
Dos Mares, France
- 2015 Werner thoeni Art space, 스페인
Wernerthoeni Artspace, Spain

수상 및 지원 Awards & Fellowship

- 2018 Merit Based Artist Fellowship, Vermont studio center, 미국
Merit based artist fellowship, Vermont studio center, USA
- 2018-17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
supporting fund for International artist, Arts Council Korea
- 2017 연구 지원, Dos mares, 프랑스 외 다수
Asia artist fellowship, Dos mares, France

워크숍 및 교육 Workshop & Teaching experience

- 2017-18 시각예술관련 워크숍 '스쳐 지나가는 밤 / 토틈히 단단히 / 독산 표류기', 금천문화재단, 한국
- 2018 Passing night, Geoumcheon Foundation, Seoul, Korea
- 2017 The journal of Docksan, Geoumcheon Foundation, Seoul, Korea
- 2013-16 시각예술워크숍, 서울문화재단, 한국
Art workshop program, Seoul foundation, Seoul, Korea

hyunjierin@gmail.com

전희경 Jeikei_Jeon, Heekyoung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MFA, Fine Art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홍익대학교 회화과
BFA, Fine Art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주요 개인전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19
- <안온한 세계>, (구)떡집, 안산
<A Tranquil World>, Old Rice cake house, Ansan, Korea
- 2018
- <바람이 구름을 걷어 버리듯>,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As wind brushed the clouds away>, Shinhan gallery, Seoul, Korea
- 2015
- <정신의 향연>, 이랜드스페이스, 서울
<Spiritual Feast>, E-land Space, Seoul, Korea
- 2014
-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정선미술관, 서울
<Where are you among these_ideal, reality and desire?>, GeomJae GeongSeon Art Museum, Seoul, Kore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0
- <세상의 모든 드로잉>, 아터테인, 서울
<All drawing of the world>, Atertain, Seoul, Korea
- 2019
-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만리동 광장, 서울
<Seoul Media Canvas>, Manli-dong Square , Seoul, Korea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CC, Ansan, Korea
<아트경기>, 국립암센터, 일산
<Art_Gyeonggi>, Popup gallery, NCC(National Caner Center), Ilsan, Korea
- 2018
-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Gyeonggi Millennium Docufesta>, GMoMA special exhibition Gyeonggi Archive_NOW, Sangsang Campas, Suwon,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7-20
-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Korea
- 2013
- 관두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Guandu Art Museum, Taipei, Taiwan
- 2012
- 타이둥 미술관, 타이둥, 대만
Taitung art museum AIR,Taitung, Taiwan
- 2011
- 오픈 스페이스 배, 부산
Open To You, Openspace Bae, Busan, Korea

수상 및 선정 Award & Grants

- 2015
- 네이버문화재단 ‘헬로우아티스트’ 선정, 서울
Hello, Artist, Naver Foundation, Seoul, Korea
- 2015
- 에트로 미술상 은상 수상, 서울
Etro Award, Silver prize, Baekwon Foundation, Seoul, Korea
- 2013
- 경제정선미술관 ‘내일의작가’ 대상 수상, 서울
Promising, Winner, Geomjae Jeongseon Art Museum, Seoul, Korea

jeikeidesire@gmail.com

정민정 Minjung Jung

용인대학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Master of Education Major in Art Education, Yongin University, Yongin, Korea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학과 학사
Bachelor of Fine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경력-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19
-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7
- <키네틱페스티벌>, 비발디하우스, 시흥
<Kinetic Festival>, Vivaldi-Art house, Siheung, Korea
- 2016
- <메이커 페스티벌 오토마타 특별전>, 동대문디자인센터, 서울
<Maker Festival Automata Special>, DDP, Seoul, Korea
- 2015
- <메이크 오토마타>, 창조경제박람회, 킨텍스, 고양
<Creative economy Fair 'Automata Make'>, Kintex, Goyang, Korea
- 2015
- <나비해카톤 'H.E.ART BOT'>, 아트센터나비, 서울
<NabiHackathon 'H.E.ART.BOT'>, Art Center Navi, Seoul, Korea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9
- 경기창작센터, 기획레지던시,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Project Residence, Ansan, Korea

wldnart@naver.com

정정호 Jungho Jung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사진학과
MFA,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hotography, Seoul, Korea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BA, Ku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Seoul, Korea

개인전 Solo Exhibitions

- 2019
- <Leica x 정정호>, 현대카드디자인라이브러리, 서울
<Leica x Jungho Jung>, Hyundai Card Design Library, Seoul, Korea
- 2019
-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류가현, 서울
<Archive: Machine, Car and City>, Ryugaheon Gallery, Seoul, Korea
- 2016
- <Architype 7017>, 갤러리정미소, 서울
<Architype 7017>, Artspace Jungmiso, Seoul, Korea
- 2015
- <Fragments>,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시드니, 호주
<Fragments>, Australian Center for Photography, Sydney, Australia

주요 단체전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0
- <보존과학자 C's하루>,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Conservator C's Da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heongju, Korea
- 2019
- <KT&G SKOPF 올해의 작가전>, 고은사진미술관, 부산
<KT&G SKOPF Artist of the yea>r, Goew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 2019
-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안산
<Homing Instinc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9
- <포토런던>, 소머셋하우스, 런던, 영국
<Photo London>, Somerset House, London, UK
- 2019
- <멀티엑세스 4913>, 서울시립미술관서소문본관, 서울
<Multi Access 4913>,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 2018
- <통합불가능한 개별적 개체들>, 경기창작센터, 안산
Nonunifiable Heterogeneous Individuals>,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수상 Awards

- 2018
- KT&G 상상마당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SKOPF 올해의 작가
KT&G SKOPF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_Artist of the year, KT&G Sangsangmadang

아트레지던시 Artist-in-Residence

- 2018-20
- 경기창작센터, 안산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2017
- 예술지구 P, 부산
Art Distric P, Busan, Korea
- 2015
- Bogong Center for Sound Culture, NSW, 호주
Bogong Centre for Sound Culture, Australia
- 2014
- 아르코 이란 노마딕레지던시 프로그램, 한국문화예술위원
ARKO Normadic Residency Program in Iran, Arts Council of Korea

소장 Collections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Seoul Museum of Art, Korea
KT&G 상상마당, 한국
KT&G Sangsangmadang, Korea
라이카카메라코리아, 한국
Leica Camera Korea, Korea
호주현대사진센터, 호주
Australian Centre for Photography, Australia
보공사운드컬처센터, 호주
Bogong Centre for Sound Culture, Australia
이란예술위원회, 이란
Iranian Academy of Arts, Iran

jungho.jng@gmail.com

Andrita Yuniza Orbandi

Education
September 2009 - June 2012 Proctor High School, Minnesota, U.S.

August 2012 - September 2016
BA in Visual Arts,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Indonesia

October 2016 - June 2017
Erasmus in Freie Kunst bei Raimund Kumer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Braunschweig, Deutschland

Artist-in-Residence

30 April - 14 May 2017
Organized by Mehmed Alagöz, ADYÜ, Adiyaman, Turkey

Solo Exhibition

- 2017
- "Spielen" Solo show for "Researching Happiness" and "Towards Relative Truth" project: at Artmax, Braunschweig, Germany
Video Art 'Perpetuity' Volksbank BraWo LED, Braunschweig, Germany
- 2016
- "Menuju Titik Ba" (Towards the point of 'Ba') BFA Final Presentation at CC Timur Yard of Institut Teknologi Bandung, Bandung, West Java, Indonesia

Group Exhibition

- 2019
- 'Speed/Laju' Kompetisi Karya Trimatra Salihara 2019
'ARTJOG MMXIX' Jogja National Museum (Curated by Agung Hujatnika, Ignatia Nilu and Bambang Toko)
'Into The Future' Galeri Nasional, Jakarta, Indonesia (Curated by Carla Bianpoen and Citra Smara Dewi)
- 2018
- Soemardja Sound Art Project 2018 Galeri Soemardja Bandung, Indonesia (Curated by Bob Edrian Triadi)
- 2017
- Bandung Contemporary Art Awards 5 Lawang Wangi, Bandung, Indonesia (Curated by Agung Hujatnika)

andritaorbandi@gmail.com

Maria Ivanova

Graduate
2018 UI/UX design, Introduction to User Experience Desig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2015 art theory, ICA, Moscow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MA
2012 artist, Moscow State Academic Art Institute named V.Surikov, MFA

Solo Exhibition
2019 Just shadows in tha cave, Gyeonggi Creation Center, South Korea (with artist Ying-Tin, Taiwan)2019 - Body-chromakey, Cite des arts, Paris, France
2018 Elementary event space, Maxim Boxer gallery, Moscow, Russia (with artist A. Levina, Russia)
2015 Antinomy, gallery "Open club", Moscow, Russia

Selected Exhibitions
EMINENT DOMAIN, Robert Miller Gallery, New York, USA (2018);
Chrom-art, OXO Tower, London, UK (2017);
Modern Mosaics of Moscow, Museum of Moscow, Moscow, Russia (2017).
2017 IV KAZAN INTERNATIONAL PRINTMAKING BIENNALE "RIDER", The State Museum of Fine Arts of the Republic of Tatarstan, Kazan, Russia
2015-16 "Shenzhen International Watercolor Biennial Exhibition", Shenzhen Art Museum, Shenzhen, China

Artist-in-Residence
2019 Gyeonggi Creation Center, South Korea
2019 Cite des Arts, Paris, France2018 - Open Studios, CCA WINZAVOD, Moscow, Russia2012 - The residence of the Russian Union of Artists Vyshny Volochyok, Russia2011 - Castello di Boca, Kotor, Montenegro

maria2012ivanova@gmail.com

Ying-Ting Chen

The motive of creation comes from the flowing time in life. I am like a traveler following the flowing time to move, collect and record stuff in the different time and space in an attempt to inspire idea for creation in the process of trying, adventure and introspection. I try to collect thoughts of creation from living experiences and by the collected stuff in daily life. My focus and original emotion on the fiber material help me recall memories to find the position of self-existence in life.
Life is the process connected by many travel experiences. The only way of realizing how to step forward on the next unknown path is to walk step by step during every travel.

Education
2009-12 Tain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Applied Art graduate institute (M.F.A)

Awards
2019 "Cheongju Craft Biennale", Selected, Cheongju, Korea
2019 "8th International Biennial of Contemporary Textile Art WTA", Selected, Madrid, Spain
2018 "Bavarian Craft Council Prize 2018 for Young Applied Arts", Selected, Munich, Germany
2016 "Contemporary Textile Art Biennial CONTEXTILE 2016", Acquisition Award, Guimaraes, Portugal
2014 "Valcellina Award-IN TERNATIONAL TEXILE / FIBER ART COMPETITION", Senate Award, Italy Maniago
2013 "SUAVE 5, International Juried Textile Accessories Triennial", Selected, Spain
2013 "Fiber Arts Fiesta-The Biennial Juried Show and Fiber Arts Exhibition" Selected, Albuquerque, NM, USA
2013 "Kaohsiung Awards", First Prize, Taiwan(R.O.C.)
2012 "From Lausanne to Beijing - the 7th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Selected, Jiangsu, China
2012 "Talente 2012", Selected, Munich, Germany

Artist-in-Residence
2019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Solo Exhibition
2019 「Daily Package」, 箱庭 はここにわ select shop, Taichung, Taiwan
2018 「Rust-Textile-POP UP」, ChangChang metal gallery, Taipei, Taiwan
2016 「Rusted Objects」, Delicate Antuque select shop, Taipei, Taiwan
2012 「My Journey in Fiber - Solo Exhibition of Fiber Art」, 藝象gallery, Tainan, Taiwan

Group Exhibition
2019 "Cheongju Craft Biennale", Cheongju, Korea
"2019 GCC Creation Festival", Gyeonggi, Korea
"8th International Biennial of Contemporary Textile Art WTA", Madrid, Spain 2018
"2019 Madou Sugar Industry Art Triennial", Madou Sugar Refinery, Tainan,Taiwan
"BKV-Prize 2018", Special Exhibition, I.H.M, Germany Munich

yingting01@yahoo.com.tw

2019 경기창작센터 아트레지던시

기 획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총 괄	조광연
진 행	김태용, 방초아, 이선규
시설지원	박인호, 박문철, 박종호, 김시석, 김병기, 조관휘, 박종원, 우덕영, 김병완, 김일용, 심종범, 신민철, 김옥엽, 이정숙, 신진영, 문영애
디자인	디자인봄 이미영
편집인	조광연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 헌
발행처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발행일	2020. 6

본 출판물은 2019 경기창작센터 프로그램 및 입주작가 활동 보고를 위해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창작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T. 032.890.4820
F. 032.890.4819

<http://gcc.ggcf.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reationcenter>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gcc.ggcf>

Gyeonggi Creation Center Artist-in-Residence 2019

Organiz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Director	Kwang-yeon Cho
Curator Support	Taeyong Kim, Choah Bang, Sunkyu Lee
Maintenance Support	Inho Bak, Muncheol Park, Jongho Park, Siseok Kim, Byeonggi Kim, Gwanhwi Cho, Jongwon Park, Deokyeong Woo, Byeongwan Kim, Ilyong Kim, Hongbeom Sim, Mincheol Shin, Okyeop Kim, Heongsuk Lee, Jinyeong Shin, Yeongae Moon
Publication Design	DesignVom Miyoung Lee
Editor	Kwang-yeon Cho
Publisher	Hun Kang, President of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ublica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Date Of Publishing	2020. 6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report of 2019 GCC programs and
artist's activitie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means
without permission of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gam-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T. 82.32.890.4820
F. 82.32.890.4819

<http://gcc.ggcf.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creationcenter>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gcc.ggcf>